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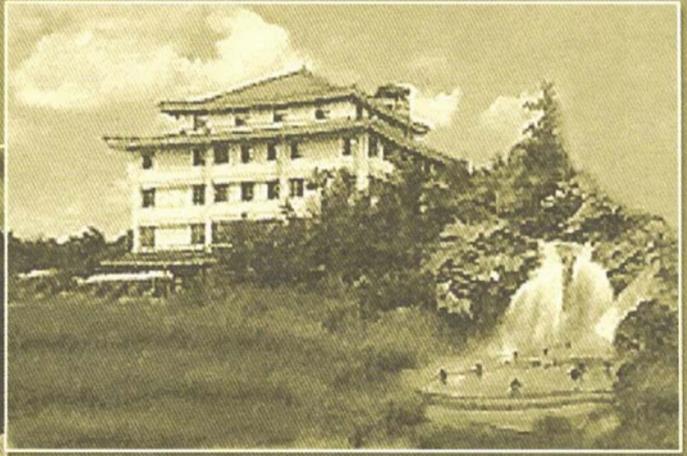
속초문화

THE SOKCHO CULTURE JOURNAL

2003 • 제19호

ANNUALLY





관광 일번지 - 속초를 말할 때면 산과 바다와 호수
그리고 온천을 떠올리게 됩니다.

온천의 역사가 유장한 까닭에 전설로도 유명한
척산 온천(尺山溫泉)은 지하 4천 미터에서 형성된 섭씨 53도의
온천수가 용출되는 국내 최상의 온천이면서
설악산 국립공원 최적의 온천 휴양지로 꼽습니다.
척산 온천이라고 하면 [척산온천 휴양촌]을 일컫습니다.

척산온천 휴양촌

The Choksan Hot Spring Hotel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972-1

☎ 속초 033-636-4000(代) / Fax.033-636-4007

☎ 서울 02-653-4231

<http://www.choksan.co.kr>

(株) 大洋

(株)大洋은 주민 여러분과 함께 상복교의 튼실한 복원을 위해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진행중인 각종 공사를 위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작업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성실’은 (株)大洋의 신념입니다.



본 사 /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709
대표전화 (033)252-7881~3 / 256-6000~9

속초전화 (033)632-6809 · 1 / 631-2990
전 송 (033)631-3404 소장자택 (033)632-88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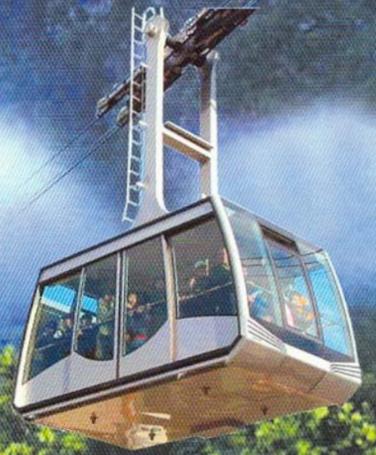
소장 박승호

보다 좋은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설악산의 케이블카 운행이
재개되었습니다.

천혜 관광자원의 명산
설악의 케이블카 속에서
새로운 여행의 정취에
빠져보세요.

설악관광(주)에서는
케이블카의 세계적인 수준의
안전도 보강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새롭게
여러분 앞에 다가옵니다.



설악관광주식회사
(케이블카)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46-2
(www.sorakcablecar.co.kr)
Tel.(033)636-7362, 7365

성황리 분양중

27평형
35평형

Dream APT

속초에서 처음 선보이는 고품격
3-BAY 아파트!

기다린 보람이 있다.

Dream

당신이 꿈꿔왔던 바로 그 아파트

대명 드림아파트 분양

속초
영랑동

GRAND OPEN

모델하우스
상시개관중

2004년 12월 입주예정

시행사 (주)대명주택건설 033)632-8899
시공사 (주)대명종합건설 033)638-0404

모델하우스 위치



현장위치



대표 최평규 집사 (조양감리교회)

THE SOKCHO CULTURE JOURNAL

속초문화

ANNUALLY · 2003 제19호

속초문화원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570-5 ☎217-010

전화 (033)632-1231 / 전송 (033)632-1241

http://www.sokcho-cultur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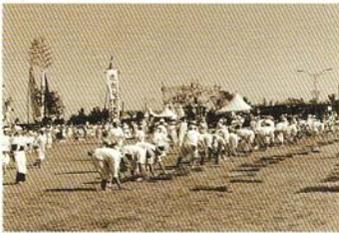
E-mail : sc1241@sokcho.org

■ 발행인 / 최용문

■ 편집인 / 박영도 · 한정규

■ 권두회호	최동춘 · 6
■ 권두시 / 하늘 악보	이성선 · 7
■ 발간사 / 민속과 문화의 애향 도시로 급부상	최용문 · 9
■ 문예중흥선언	· 10
■ 속초시민현장	· 11
■ 속초시가	· 12
■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미래 도시 속초	· 13
■ 포토에세이	박영도 · 14
■ 설악문화제	· 20
■ 속초 사진협회 사진전	· 24
■ 문화원 동정	· 31
■ 통일기원 속초 해맞이 축제	· 38
■ 속초 해양 축제	· 46
■ 설악문화제	· 53
■ 전국 청소년 풍물겨루기 한마당	· 56
■ '낙산사 사계절' 관광엽서	최낙민 · 64
■ 향토문화와 지방문화원	권용태 · 66
■ 속초시 문화회관의 시설확충을 바라며	최준집 · 69
■ 강원문화의 발전방향	채용생 · 71

CONTENTS



cover story

제44회 한국 민속 예술 축제에 강원도 대표로 출연하여 금상(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도문동 메나리 농요] 가운데 '가을걷이' 연출 장면을 담았다.

발행일 / 2003년 12월 24일
인쇄처 / 강원일보사 출판국

《속초문화》 제작비 일부는 도 문예진흥기금을 받고 있음.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의 임의 전재·복제를 금함.

비매품

■ 편집위원 / 이인철, 노광복, 이기을, 오윤근, 김광수, 윤의구, 최현식

■ 청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양언석 • 74
■ 속초 민속의 계승과 발전은 계속된다	최용문 • 78
■ 강원도 민속 예술 경연대회	• 111
■ 속초시 도문메나리 농요	• 139
■ 영랑호 화랑체험장 건립	최원복 • 154
■ 속초 학사평 순두부축제 육성해야	장세호 • 156
■ 일본 가이나 마쓰리제	유영순 • 163
■ 만해마을 준공	• 173
■ 이성선 시인-시비 그리고 추모시 모음	편집부 • 177
■ 이성선 '산시' 시화집으로 재탄생	• 185
■ 선가(船價)	이은자 • 186
■ 보은과 사랑의 실천(충정장학회)	한정규 • 188
■ 갯마당 가을 공연	• 190
■ 제12회 음악협회 속초지부 정기연주회	• 194
■ 속초시 문화상에 빛나는 얼굴들	• 197
■ 2003 한국예총 속초지부 주요사업	• 202
■ 2003 속초민예총 주요사업	• 213
■ 목향	• 220
■ 속초문화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 228

권두휘호

癸未仲秋
石松

照顧腳下

풀어주는 이야기

조고각하 - 제1의 텍스트는 '네 발 밑을 보아라' 이지만
제2,3 텍스트는 '네 자신을 살피라' 또한 '네 주제를 파악하라' 는
속내를 장전하고 있는 글발이다.

- 편집자 · 주



석승 최 동 춘

- 홍제 미술대전 입선(1997, 1999)
- 현산 문화제 입선(2회)

권두시

※ 이성선 유고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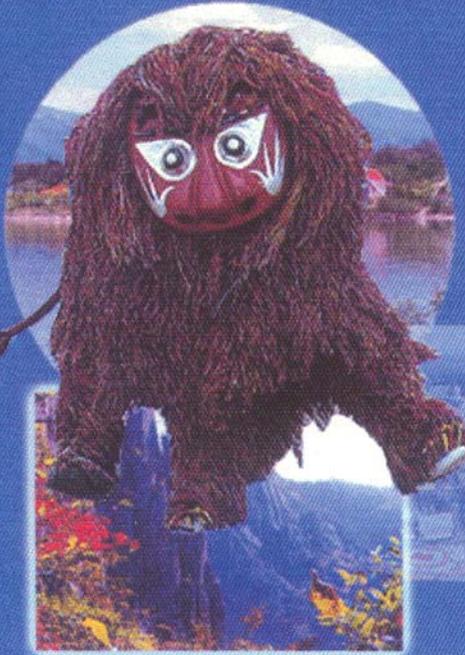
하늘 악보

길을 가다가 바라본다
다못있이 어제는 저기 떨어지고 오늘은 여기 흩어져 앉는다
어는 것은 일찍 지고 어느 것은 늦게 진다
가을 가득한
이 삶의 소리
머칠 전까지 지상을 푸르게 채우던 생명들
오늘은 누른빛 붉은빛으로 변해
대지에 눕고 바람에 뒹굴고 허공에 날린다
그러나, 아아
무엇이 차이라
여기 떨어지고 저기 앉는 것
먼저 지고 오래 남는 것
그분의 피리의 연주가
이 구멍 먼저 닫히고 저 구멍은 늦게 닫히는
어떤 음은 길게 다른 음은 짧게 작곡된
생명 모두는 우주 큰 연주 속의 한 가락

※ 이성선(李聖善 1941~2001)시인의 유고시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시 한 편을 권두시로 선정하였다.



속초문화원 Sokcho Culture Center



Korean

English

sokcho culture center

이 사이트를 주목하십시오

속초 문화의 진수가 담긴 이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산과 바다와 호수와 온천-천혜의 보고.

살기 좋은 곳으로도 이름 있는 고장.

옛부터 산이 높고 물이 맑은 고을에는

인심이 후하고 사람의 덕이 크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고장의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아우르는 속초의 서사를

여기에 담았습니다.

민속과 문화의 애향 도시로 급부상



속초문화원장 최 응 문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부족하지 않게 노력하면서
서도 늘 아쉬움과 부족함으로 교차한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각고한지 어언 40여 년의 긴 세월이 되었다.

그리고 힘들게 꽃을 피우려 애쓴 문화인들과 향토애호가 노고에는 부단히 달리
지만 아직까지 덜함에 더 정진에 정진을 기하고 있다는 점에 힘찬 박수를 보내면서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2003년 계미(癸未)년,

지난해의 아픔을 뒤로한 채 서로에게 의지하며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대담함으로
기억 속에 남는 한 해로 남게 하였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새로운 각오로 시작
한 속초에서만 영원히 볼 수 있는 해돋이와 역사성을 바탕으로 마련한 도문동 마을
의 메나리 농요가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면서 민속과
문화의 애향도시로서 급부상했다는 점이 우리를 흥분케 하면서 다음을 준비하게 만
들어 주었다.

우리가 그리 흔하게 말하던 역사 없는 도시, 실항민의 도시라고 여기던 속초라는
고향이 이제 관광을 벗 삼아 문화예술의 길라잡이가 된 것이 자명한 사실로 되어 버
렸다는 것이다. 더하여 현실로 다가선 영랑호 마상무예체험장과 속초시립박물관의
개관이 속초의 문화기반시설 확충으로 도문동의 매곡 오윤환 선생 선양사업과 연계
되어 통일이라는 이름과 함께 관광문화체험의 도시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산과, 바다, 호수, 온천, 관광과 국제교역의 도시로 탈바꿈 되어가고 있는 모습에 가
슴 벅찬 희열이 찾아온다.

내년 갑신(甲申)년은 환희와 기쁨을 선사해 주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하고 싶
다. 문화의 세기에서 우리는 더 더욱 힘찬 발걸음을 디더 지역발전과 더불어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국제문화도시인의 긍지를 되살려 속초만의 전통 문화가족의 일원이
되어보자고 강구하면서 창간 19호의 태어남에 기쁨으로서 마음을 전해본다. ●

文藝中興宣言文

우리는 民族中興의 歴史的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造力이다.

藝術이 創造力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을 찾았을 때 나라는 興한다.

新羅統一의 偉大한 업적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産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을 이어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頹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속에 꽃 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에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을 위하여 價値意識과 史觀을 바로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信의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들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1973년 10월 20일

시 민 헌 장

동해의 푸른 파도와 설악의 수려한 기상을 안고 옛부터 미풍양속을 지녀온 우리 속초시민은 동족 상잔의 쓰라린 고난을 극복하고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 오늘의 번영된 속초시를 이룩하였다.

이 자랑스러운 위업을 거울삼아 우리는 스스로 성실하게 인격을 도야하고 상부상조하는 생활양식을 실천하며 내 고장을 아끼고 가꾸는 일에 열성을 바친다.

능력에 따라 노력한 만큼 누구나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고 시민 다수에 의한 자율적이고 공개적인 의사선택 결정이 존중되는 시정을 이룩하려 사리를 버리고 공익을 앞세워 법과 질서를 지키며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체육보건 복지사업을 통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을 배양하며 빼어난 자연경관과 유서깊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휴양을 위한 쾌적한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여 국내외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친절과 사랑으로 맞이한다.

올바르고 건실한 젊은 세대의 육성 없이는 우리의 밝은 앞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개성과 창의력을 개발하는 교육에 진력함으로써 우리 모두 선진도시 문화창조의 역군이 되자.

1990년 10월 11일

속 초 시 민 일 동

속초시가

♩ = 92 - 96

이성선 작사
우동희 작곡

mf

1. 설 - 악 산 큰 뜻 반 아 가슴에 새 - 기 고
2. 해 - 안 선 굽 이 굽 이 아침 해 떠 오르 고
3. 신 - 흥 사 종 소 리 에 새벽잠 깨 - 이 어

동 해 바 다 푸 - 른 물 결 누리 에 펼 - 치 네
천 - 불 동 기 - 짜 기 에 흰 구름 몸을 묻 네
이 슬 젖 은 발 - 길 로 바닷가 거닐 어 라

mp

정 성 과 보 - 람 으 로 다 저 온 이 - 터 전
청 초 호 기 - 대 - 어 마 동 령 바라 보 니
갈 매 기 높 - 이 - 어 우리 꿈 손 짓 하 니

mf

우 독 솟 아 빛 - 나 네 하늘 아래 재 일 이 라
상 - 하 다 우 리 님 이 그 - 욱 히 깊 어 지 네
항 - 구 에 뭍 인 배 가 대 양 으 로 차 비 하 네

f

가 자 배 를 짓 - 자 산으로 바다 향 - 해

f

우 리 얼 짓 - 든 곳 여기가 내 고 - 향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미래 도시 속초

심볼마크



속초의 다양한 청정 관광자원을 상징적이며 독창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따뜻하고 밝은 색상을 사용하여 아늑하고 즐거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설악산, 일출, 속초의 청정한 바다, 자연 그대로의 호수에서 물고기를 상징화하여 다채로운 관광소재를 구상하였고, 단순한 디자인으로 인해 관광객들에게 뚜렷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캐릭터



속초시의 특산물인 오징어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역동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머리, 이어지는 시선 끝에 일출을 상징하는 해의 모양을 담고 있는 캐릭터의 모습은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때묻지 않은 동심이 묻어나는 속초캐릭터의 얼굴에서 우리는 속초시의 푸른 자연, 그 영속성과 함께 밝고 희망찬 미래를 한껏 느낄 수 있다.

시목



은행나무

은행나무의 곧게 뻗어 올라가는 줄기는 시민의 기상을, 넓게 퍼지는 가지는 지역발전을 의미하고 시가 오래도록 보존되고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시화



국화

국화는 번식력이 극히 강하여 힘차게 뻗어가는 우리시의 진취성을 나타내고 가을에 만개하는 국화는 풍요와 번영, 안정과 통일을 회구하는 시민정서를 대변하고 매사의 난관을 극복하며 영원히 지탱하는 시민의 지구력을 뜻한다.

시조



비둘기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며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군서생활을 하는 유조로서 시민의 화합된 단결을 대변하는 속초시의 염원을 담고 있다.



청호대교(靑湖大橋)

아바이마을- 실향민의 아픈 상흔을 깨고 우뚝 솟은 [청호대교-靑湖大橋], 실용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관적인 측면에서 주목되는 관광 속초의 명물로서의 풍광이 가경(佳境)을 멋지게 연출하고 있으니 말이다. 절묘하다는 표현이 지나침이 없다. 문화원 뒷선에서 이 가경을 문화지에 담자는 제기에 선뜻 동의하여 오후 햇살이 다리를 조명하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사진기를 잡았다. 마침 겨울답지 않게 포근한 오후 고향 찾은 갯배에 올랐다. 갯배로 청호동을 향하며, [청호대교]의 위용을 담았지만 액정모니터에 나타나는 화상을 저장하고 싶을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다.

청호동 갯배머리에 발을 디디자 매표소 관리 사무소에서 부르는 게 아닌가.

참으로 오랫동안 만나는 지인(知人)으로 부터이다. 반가움에 담소하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청호동의 터줏대감으로 초록은 동색이라든가 실향민이라는 데서 더욱 친근함을 느끼게 되는 사이다. 당초에는 평소 존경하는 형님벌이 되는 분을 찾기로 하였으나 출타 중이라 만나지 못했다. 청호동이 이제 빛을 보게 되려는가 싶다는 이야기로 지인의 표정이 밝다. 어디에서 이만한 가경을 만날 수 있겠는가 혼자서 마음을 다스렸다. 뒷선에서 제기한 것이라서가 아니라 이 가경을 문화지에 담아야 하겠다는 재촉이 마음을 잡았다. 그러나 여러 각도에서 담았지만 마음에 바로 이것이라는 만족은 얻지 못했다. 사족을 달면 이 다리는 총연장 530m이며, 교폭은 17.8~32.1m로 공식 명칭은 [청호대교]이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000년 4월 7일 기공하여 2003년 10월 30일 준공되었지만 아직 공식 개통은 되지 않고 있다. 믿을 만한 지인으로부터의 귀동냥에 의하면 이 교장 단체장이 다리의 밤경치를 위해 국내 다리 가운데 가장 조명 시설이 뛰어난 곳 즉 선견지에 시 관계관을 보내 뛰어난 점을 얻어 조명시설을 할 것이라고 한다. 조명 시설이 갖춰지면 젊은이들 아베크 코스로 또한 연인들의 좋은 나눔의 가경으로 거듭 태어날 것이라는 것과 바로 이것이 실사구시의 요체인 득실(得實)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며, 해넘이 햇발을 등졌다. ●



갯 배(渡船)

속초의 명물- 청호동 아바이마을 [갯배]가 고향을 찾았다. [청호대교(靑湖大橋)] 건립으로 외유하였던 갯배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실향민의 애환이 실려 있는 이 갯배는 속초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명물의 하나로 실향민의 상징이 되어 아픈 상흔이 여기에 실려 있다. 더욱 드라마 '가을 동화'의 무대가 되면서 일약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친 명소로 자리매김하였다. 마침 갯배를 카메라에 담기에 바쁜 일단의 남녀 혼성의 젊은이들을 갯배 나들목에서 만났다. 시내로 가기 위해 갯배 승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말을 건네니 '싱가포르'의 젊은이들이었다. 계속 뷰티풀을 연발하면서 설악산다까지 간다며, 이국 정취에 들떠 있었다. 나를 멧쟁이 할아버지라며 사진을 같이 담자고 하기에 응해 주었다. 꼭 이메일로 전송하겠노라고 약속한다. 그들과 작별하고 새벽길을 재촉하였다. 또한 많은 시인들이 갯배를 주제로 지은 시가 많지만 그중 내가 좋아하는 시는 이 고장 이상국 시인의 [갯배3]을 읊기며, 또 하나의 문화 경

관 '청호 대교'와 연계되는 갯배는 속초의 명물로 더욱 그 빛을 발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

미시령 너머로 해 떨어지고

개 건너 호텔은 벌써 물야영이다.

월급쟁이들 학생들 리어가 풍팔이 갔다 돌아오는 여자들로
청호동 들어오는 배는 무겁다.

-아아, 성진웃집 선자야! 느엄마가 고치加里 사오래는 걸
깜박 까먹었다. 니 건너올 때 사와라
들어가는 배를 탄 아주머니가 나가는 배에 대로 소리지른다.

- 에이, 아중안 챙피하게, 얼마친데오?

아고 건너다모는 처녀 얼굴이 그릇가루 빛이다.

-야 이 간나 다 컸다고 풀값한다. 무시기 챙피하니
고치加里 안 먹고 사니?

학생들이 먼저 킁킁거리자

오가는 배에 탄 사람들 모두 웃는다.

오늘도 갯배는 청초호 가운데서 수없이 만나고 헤어진다.

- 이상국 시집 <<우리는 읊으로 간다>>에서.



귀때기 청봉에 봄이 오면

· 글 / 편집부

● 작가 메모

- 한국사진작가협회 강릉지부 부지부장
- 한국미술협회 회원
- 속초사진협회 지도위원
- 017-371-3459 · 033-672-3457



한국사진작가협회(강릉지부)

사진작가 **崔 洛 珉**

215-800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포월리 71-23 CNM Art.
Office (033)672-3451 / H.P.017-371-3459
Home (033)672-3457 / www.nagmin.com



신선봉에 여름이 오면

설악을/이야기/하자

신선봉은 동해쪽으로 튀어나와서 봉우리를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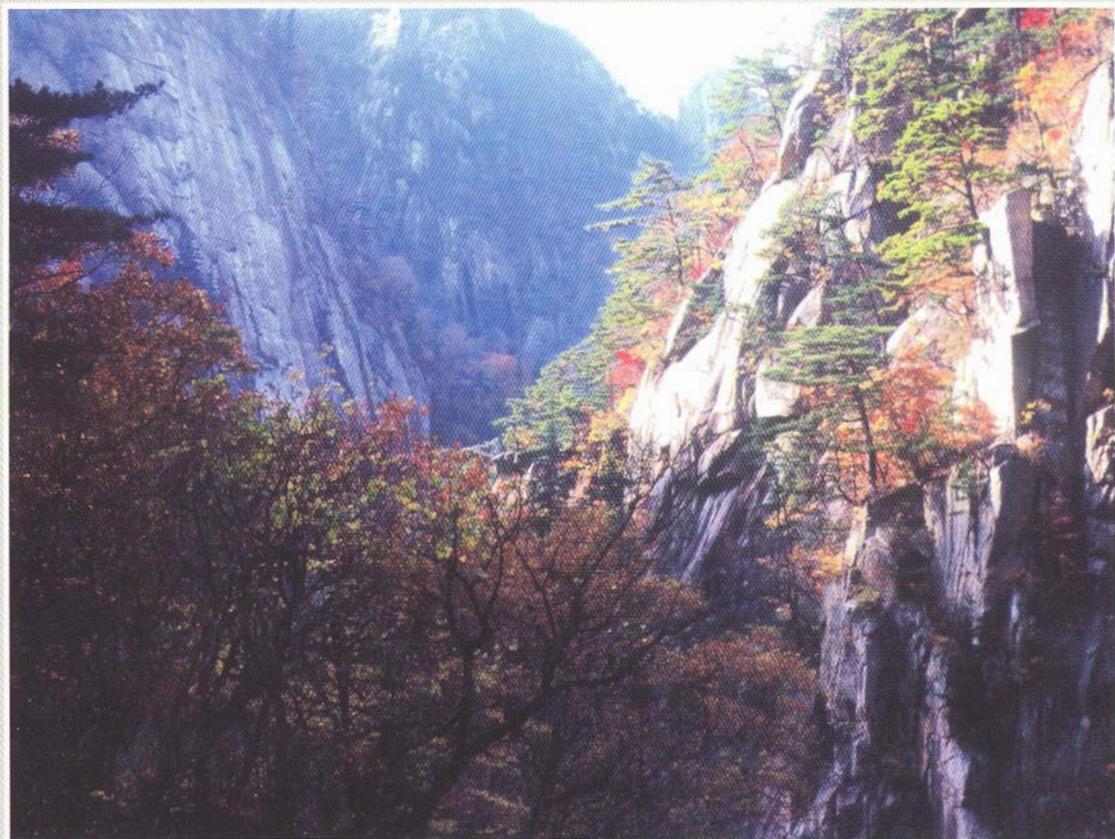
정상 부근에는 너털 지대로 되어있다.

많은 이들이 동해를 바라보는 트인 전망이 좋아서
산중에 산으로 꼽기도 한다.

어느 해인가 소간령으로 가기 전에

이곳에서 만난 마타리 근락을 잊을 수 없다.

마치 오래된 연인을 만난듯이 기뻐한 때가 있었다.



천불동 계곡에 가을이 오면

설악산의 여러 계곡 가운데 가장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글짜기로 오련폭, 천당폭, 문호담, 이호담 등의 많은 담소(潭沼)를 거느리고 있다.

일반 등산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이 계곡은 험한 등산로에 철다리와 철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건강한 이라면 누구든 이 계곡을 거쳐 대청봉 정상에 서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으리라.



끝청에 겨울이 오면

설악산에서 가장 장쾌한 능선으로 꼽는다.

서북능선을 타고 대청봉에 오를 수 있는 최단 거리 코스,

오색 코스에 비해 두 시간 정도 더 걸리지만

해발 950m의 한계령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힘이 덜 들고

계단이나 철다리 같은

시설물이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산은 왜 오르는 것일까.



설악문화제위원회
T.(033)639-2225-6
<http://seorakfestival.com>



welcome to
SOKCHO



제38회

설악 문화악제



단풍의 계절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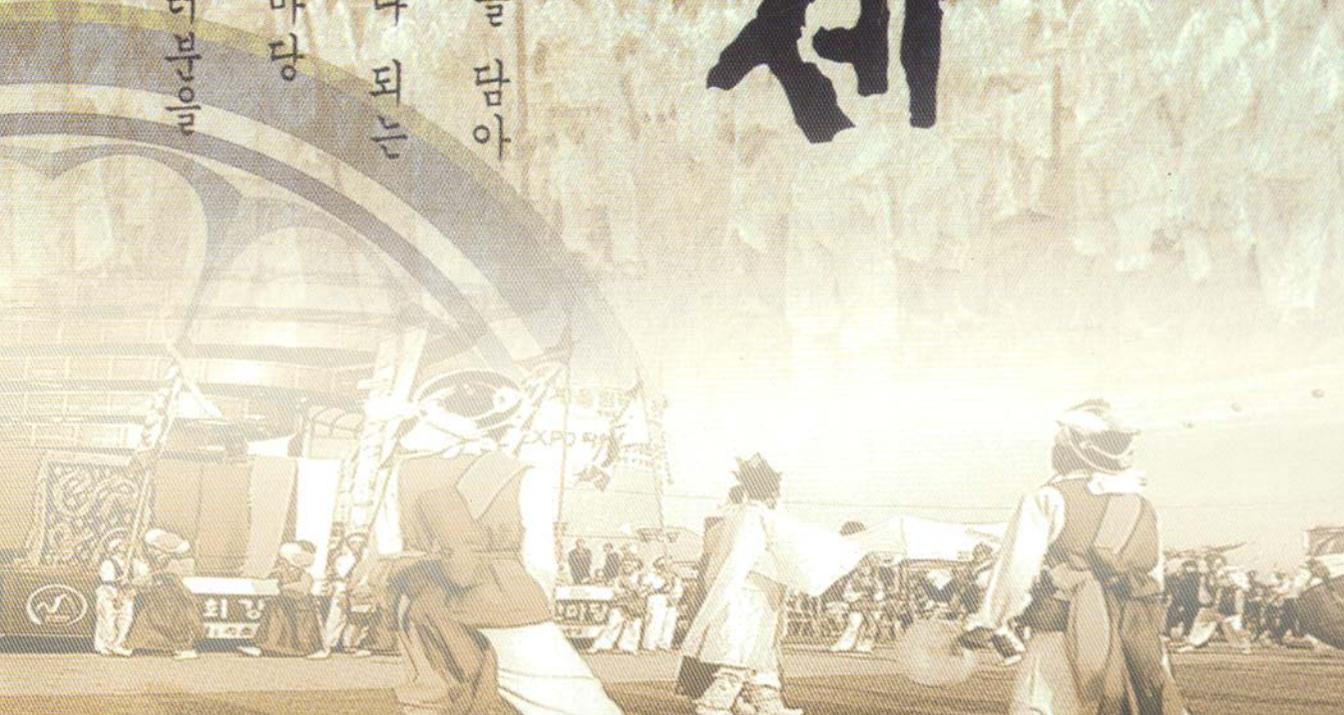
통일을 향한 열망을 담아

과거와 현재가 하나 되는

신명과 화합의 한마당

어울림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설/악/에/살/으/리/랏/다

2003. 10.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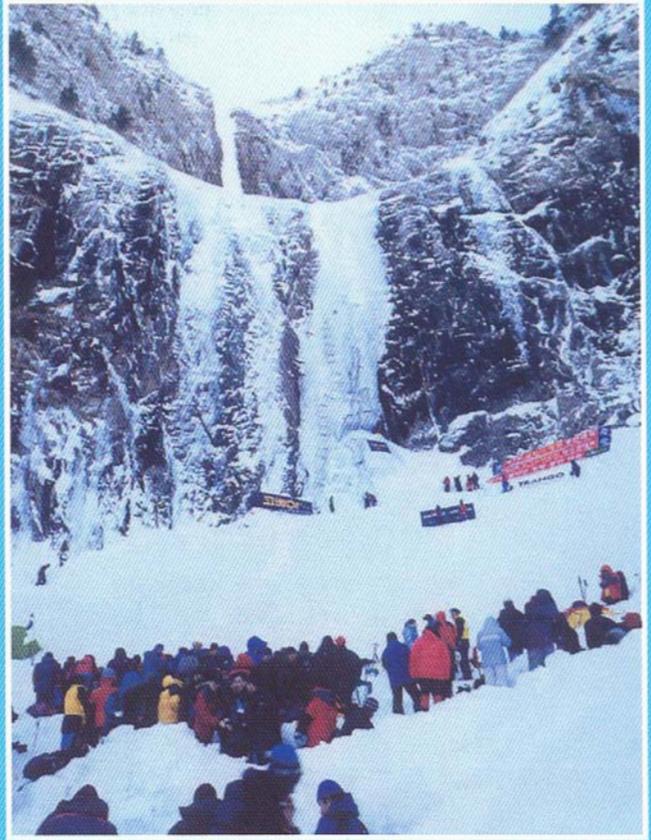
제38회



▶ 통나무 지고 나르고 자르고(인기 종목)



▶ '갯배' 끌기 _ 설악문화제의 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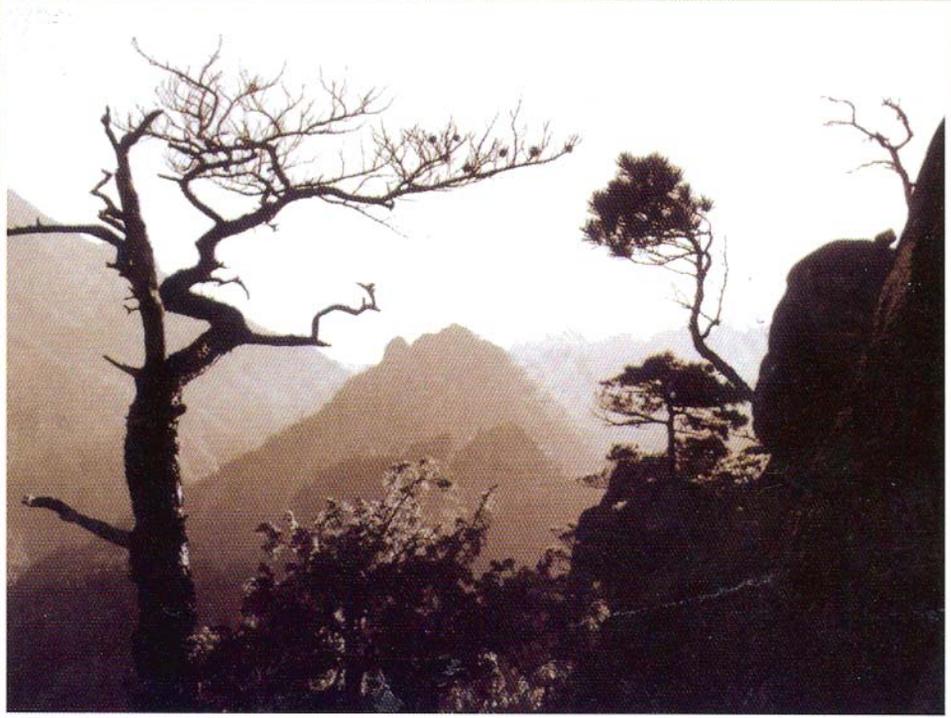


제8회 설악눈꽃축제

설악눈꽃축제위원회(위원장/김길정 도의원)가 주최한 2003년 설악눈꽃축제가 1월 25, 26 양일 설악산 설원에서 펼쳐졌다. 빙벽타기, 하얀산길타기, 최고봉등반대회 등 경기 종목을 가지고 펼친 이번 대회에는 1천5백여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참여하여 설악의 설경을 즐겼다.

주최 / 설악눈꽃축제위원회
후원 / 문화관광부 · 강원도
협찬 / (주)진로





제20회 속초사진협회 사진전

초대예총지부장 역임
강원도문화상 수상

고 문

최 구 현





제20회 속초사진협회 사진전

거진(송정초등학교) 교사

회 원

김 은 숙





제20회 속초 사진협회 사진전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명성칼라 대표

운영위원

최 홍 영





제20회 속초사진협회 사진전

제1회 고성관광사진공모전 금상 수상

부회장

이 왕 선



속초시 승격 40주년 기념



한국남성합창단 초청연주회

특별출연 / 속초시립합창단

2003.10.18 · 속초시립문화회관

「속초시 승격 40주년 기념」

한국남성합창단(단장 박태호) 초청연주회가 10월 18일 속초시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김홍식 지휘, 김지선 피아노 반주에 80명 단원들이 '숲속의 밤 노래', 'Oh! Susanna', 뮤지컬 'Muddy Water(from "BIG RIVER")', '영기방아타령', '백노래(뮤지컬 '심청전' 중에서)' 등을 열창하였으며, 이어 속초시립합창단의 '내암의 강물', '추억', '경복궁타령' 등을 불러 1천여 시민들을 매료시켰다. 한국남성합창단은 지난 1999년 속초에서 열린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성공 다지기 초청공연도 가진 바 있다.

단장 박 태 호



지휘 김 홍 식



피아노 김 지 선



program

[한국남성합창단]

지휘 _ 김홍식 / 피아노 _ 김지선

- ◆ 종교음악
Gratias agimus tibi Hans Leo Hassler
Exsultate justi in Domino Brant Adams
- ◆ 독일 남성합창
숲속의 밤노래(Nachtgesang im Walde) Franz Schubert
사냥의 노래(Jagdlieder, Opus 137) Robert Schumann
- Zur hogen(사냥을 위하여)
- Habet Acht! (주의해)
- Fruhe(아침일찍)
- Jegd morgen(사냥의 아침)
- Bei der Flasche(사냥의 위하여 건배!)
- ◆ 세계의 명곡
Oh! Susanna Stephen Foster
오, 내사랑 두 눈을 매혹하는(Tenor solo 이종근) Traditional Irish Air
무정한 마음 S. Cardillo

intermission

[속초시립합창단]

지휘 _ 김명원 / 피아노 _ 이진영

- 내맘의 강물 이수인 작사 / 이수인 작곡
추억 조병화 작사 / 김성태 작곡
Pal pa Haugen
- paul and his chickens -acappella 노르웨이 민요 / Arr. Bradley Ellingboe
경복궁 타령 김희조 편곡

[한국남성합창단]

- ◆ 뮤지컬
Muddy Water(from "BIG RIVER") Roger Miller
Memory (from "CATS") A.L. Webber
Bring Him Home(from "LES MISERABLES") C.M. Schonberg
- ◆ 한국가곡
고향의 노래 김재호 작사 / 이수인 작곡
감자 김중영 작사 / 이수인 작곡
산아!(Bass solo 최용호) 신희철 작사 / 신동수 작곡
- ◆ 우리의 노래
경기방아타령 김희조 편곡
뱃노래 (뮤지컬 '심청전' 중에서) 김희조 채보 / 편곡



2003

속초문화원 발행

· 장정룡(강릉대) · 이한길(강릉대)

CONTENTS

속초 민요의 집대성

- 속초시 행정 지도
- 사진 자료

I 속초시 민속예술의 계승과 발전

1. 속초시 민요의 분포와 양상 / 장정룡(강릉대)
2. 도문메나리 농요의 전승과 특징 / 이한길(강릉대)

II 속초 민요의 실제

1. 문헌 자료
 2. 채록 자료
- 도문동 농요 회원 명단

사진으로 / 보는

2003

문화원 / 동정





속초문화원 부설 한국문화학교 입학식

속초문화원 부설 한국문화학교 입학식이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일 시 : 2003년 3월 8일(토) 오전 11시

장 소 :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

내 용 : 한국문화학교 입학식

- 개회
- 국민의례
- 경과보고
- 개회사 및 축사
- 강사소개
- 임용장 수여
- 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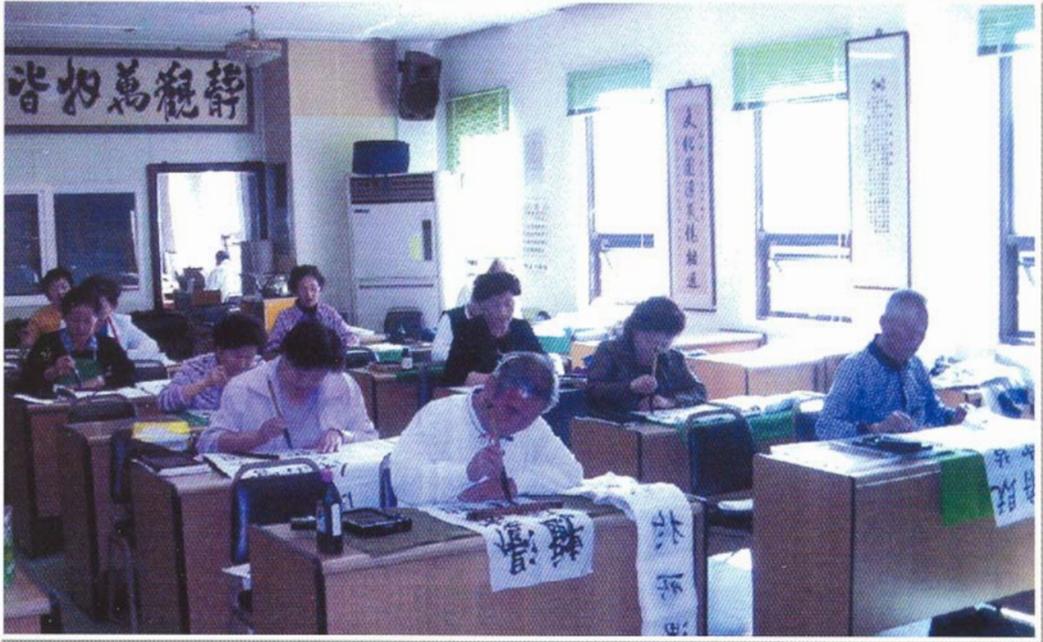
저희 속초문화원 부설 한국(향토)문화학교는 올해로 11기생을 뜻깊게 맞이합니다. 2003년도 운영되는 과목은 서예, 노래, 장구초급, 사물 초급, 중급, 전통요리, 사진 교실로 7개강좌가 운영됩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하여 많은 분들이 접수하였습니다. 문화강좌에 깊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문화학교로부터 지정문화학교로 선정

속초문화원 문화학교

서예교실



강좌명	요일 / 시간	강사
장구교실(초급)	월, 목 / 10:00~12:00	김 태 희
사물놀이(초급)	월 / 13:00~15:00	주 동 진
사물놀이(중급)	목 / 13:00~15:00	주 동 진
서예교실	화, 금 / 10:00~12:00	지 응 준
노래교실	화, 금 / 14:00~16:00	최봉하, 이근순
전통요리교실	토 / 10:00~12:00	김 병 학

속초문화원

속초시 영랑동 570-5
문의전화 632-1231/639-2439
전자우편 sc1241@sokcho.org

한국문화학교로부터 지정문화학교로 선정

속초문화원 문화학교

_ 장구 · 사물놀이 교실(초 · 고) _



강좌명	요일 / 시간	강사
장구교실(초급)	월, 목 / 10:00~12:00	김 태 희
사물놀이(초급)	월 / 13:00~15:00	주 동 진
사물놀이(중급)	목 / 13:00~15:00	주 동 진
서 예 교 실	화, 금 / 10:00~12:00	지 응 준
노 래 교 실	화, 금 / 14:00~16:00	최봉하, 이근순
전통요리교실	토 / 10:00~12:00	김 병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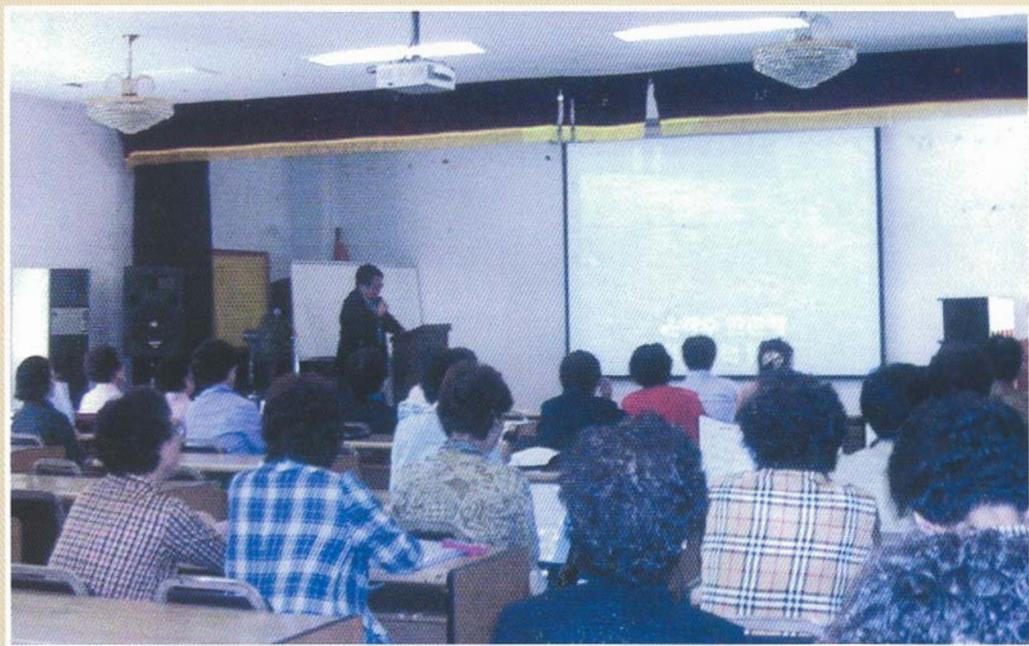
속초문화원

속초시 영랑동 570-5
문의전화 632-1231/639-2439
전자우편 sc1241@sokcho.org

한국문화학교로부터 지정문화학교로 선정

속초문화원 문화학교

— 노래교실 —



강좌명	요일/시간	강사
장구교실(초급)	월, 목 / 10:00~12:00	김태희
사물놀이(초급)	월 / 13:00~15:00	주동진
사물놀이(중급)	목 / 13:00~15:00	주동진
서예교실	화, 금 / 10:00~12:00	지응준
노래교실	화, 금 / 14:00~16:00	최봉하, 이근순
전통요리교실	토 / 10:00~12:00	김병학

속초문화원

속초시 영랑동 570-5
문의전화 632-1231/639-2439
전자우편 sc1241@sokcho.org

한국문화학교로부터 지정문화학교로 선정

속초문화원 문화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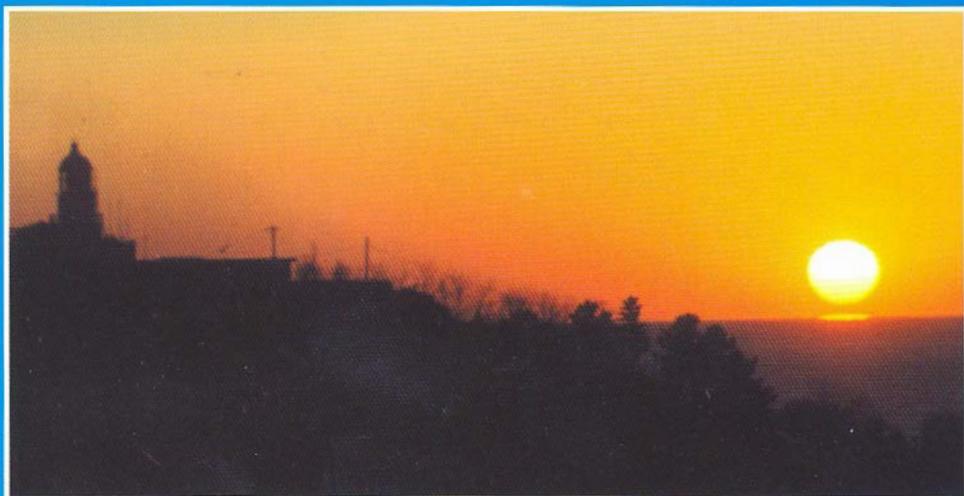
_ 요리교실 _



강좌명	요일 / 시간	강사
장구교실(초급)	월, 목 / 10:00~12:00	김 태 희
사물놀이(초급)	월 / 13:00~15:00	주 동 진
사물놀이(중급)	목 / 13:00~15:00	주 동 진
서 예 교 실	화, 금 / 10:00~12:00	지 응 준
노 래 교 실	화, 금 / 14:00~16:00	최봉하, 이근순
전통요리교실	토 / 10:00~12:00	김 병 학

속초문화원

속초시 영랑동 570-5
문의전화 632-1231/639-2439
전자우편 sc1241@sokcho.org



해야 솟아라

2003년을 밝히려

● 사진 / 속초8경 '속초등대' 앞바다로 솟는 해



통일기원 새희망 새로운 출발!

2003 속초해맞이축제

새희망! 새로운 출발

“해오름 2003!!”



새벽을 알리는 환희의 소리

새벽을 알리는 환희의 소리 사물놀이와 설장구의 북소리가 요동치면서 장엄한 용광로의 해오름이 시작됨을 알리는 전통민속 공연이 신명나게 펼쳐집니다.

해오름함성제 붉게 타오르며 떠오르는 일출의 순간, 일제히 새해의 소원을 담아 힘껏 소리지르며 오색풍선을 하늘높이 날리는 감동의 순간입니다.



해마다 즐거움이 넘쳐나는 곳, 속초!
2003속초해맞이축제의 감동적인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일시 : 2003. 1. 1 (수요일) 06:00 ■ 장소 : 속초해수욕장 및 설악해맞이공원 ■ 주최 : 속초시 ■ 주관 : 속초문화원

애기 빛나는 한
희망도 빛난다



안치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2003년 효행 청소년 시상

2월 학교 졸업식장에서 시상



보원에서는 지난 2월 각 학교 졸업식장에서 관내 14개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품행이 방정하고 경로효친 사상이 탁월한 학생을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에 의하여 사회봉사 실적이 뛰어난 청소년 14명에 대하여 효행 청소년 시상을 수여하여 건전한 문화풍토 조성에 기여하였다.

영랑초등학교	이 수 연
중앙초등학교	서 덕 환
속초초등학교	표 현 석
교동초등학교	이 승 혜
온정초등학교	김 주 영
청대초등학교	이 지 연
조양초등학교	정 준 채

청호초등학교	박 영 림
대포초등학교	김 지 연
설악초등학교	송 명 주
속초중학교	김 건 식
속초여자중학교	김 은 진
설악중학교	신 재 환

어머니, 당신을 닮아 허리 굽고 등 굽었소.

* 위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제23회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우리 민족 최대의 세시풍속인 정월대보름을 맞아 각종 민속놀이 등을 통해 우리 민속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통문화 보존과 전승을 위한 계기를 마련코자 함.

1. 행사개요

- 행사명 : 2003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 일 시 : 2003. 2. 15(토) 오후 3~7시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A구장
(석봉도자기 미술관 앞 부지)
- 주 최 : 속초시, 속초문화원
- 주 관 :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속초양양축협, 속초신협, 새마을금고연합회, 갯마당

2. 행사내용

- 연날리기 : 방패연날리기, 가오리연날리기, 제작연 날리기(문화원주관)
- 제기차기 : 농고차기, 들고차기(새마을금고연합회주관)
- 널뛰기 : 3인 1조 널뛰기(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주관)

- 옷놀이 : 3인 1조 옷놀이(속초신협 주관)
- 투호 : 3인 1조 투호 - 여성경기(속초양양축협 주관)
- 떡메치기 : 4인 1조 떡메치기-남성2, 여성 2(속초문화원 주관)
- 지신밟기 : 햇불행진, 농악공연 등(갯마당 및 도리원농악대 주관)
- 액집태우기 : 5미터 높이 액집태우기 1개소(속초문화원, 갯마당 주관)

3. 시간계획

- 15:00~15:04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 15:04~15:08 개회사(최용문 문화원장)
- 15:08~15:12 축사(동문성 속초시장)
- 15:12~15:16 축사(최준집 속초시의회 의장)
- 15:16~15:25 내빈 연날리기 시연
- 15:30~17:20 민속놀이 경연(각 부문별)
- 17:20~17:40 시상
- 17:40~17:55 지신밟기
- 17:55~19:00 액집태우기



2003 청소년 국악전수교육

- 기 간 : 2003. 4. ~ 11월
- 장 소 : 속초시 관내 각 초등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 주 최 : 속초시
- 주 관 : 속초문화원,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



속초문화원은 2003년 청소년 국악전수교육을 관내 11개 초등학교 학생 총 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하루 3시간 교육활동으로 우리 전통민속놀이 줄넘기, 널뛰기, 투호와 탈춤배우기, 소고춤 배우기, 우리 음악 풍물공연 등 우리 전통민속문화 마당으로 펼쳐져 전통문화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수준 높은 공연 관람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문화적 감성을 키우는 체험의 장을 제공하였다.



제8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성대히 치뤄

2003년 5월 20일 · 정선문화예술회관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가 5월 20일 오후 1시 정선문화예술회관에서 속초주부사물놀이패를 비롯 도내 13개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경연대회에서 대상은 양구문화원 '터'가 차지했으며 금상은 큰 너울 풍물회(정선) 은상은 우리소리(철원) 임영 사물놀이패(강릉) 등 2개팀이 수상했다.

동상에는 삼척 동해 원주 양양 횡성 등 5개지역 팀이 선정됐다.

그동안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많은 노력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며 전통문화의 맥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7회 강원도 여름청소년 풍물학교



우리음악(풍물)에 관심이 있는
도내 초·중·고생 100여 명이 참가, 5박 6일간 합숙하면서
갯마당의 지도로 '우리의 소리·우리의 가락'을 익혔다.

- △ 주 최 : 속초문화원
- △ 주 관 : 영복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
- △ 기 간 : 7월 27일 ~ 8월 1일
- △ 장 소 : 속초시 청소년 수련관





행사내용 및 강좌



구분		강사	강의내용	비고
일 반 강 좌	사물 기초반	임희영 (갯마당 기획단원)	· 풍물놀이란 무엇인가 · 악기의 기본타법과 연주법 · 가락의 구성과 종합실기	반별수업
	사물 고급반	주동진 (갯마당 기획단장)	· 사물놀이란 무엇인가 · 사물놀이의 구성원리 · 장단운동의 실제	반별수업
	설장구반	전성호 (갯마당 기획단원)	· 설장구가락 익히기 · 장단의 변형과 운용 · 설장구가락의 흐름 이해	반별수업
	판굿반	김동연 (갯마당 기획단원)	· 판굿의 흐름 · 기본 너름새 익히기 · 판굿 구성의 기본원리 · 치배별 판제와 동작선	반별수업
	상모 기초반	김태희 (갯마당 기획단원)	· 상모의 기본 · 기본 너름새와 발마치 · 소고 놀이 기본	반별수업
	상모 판굿반	정철기 박치영 (갯마당 기획단장)	· 상모의 기본 · 기본 너름새와 발마치 · 진풀이와 개인놀이 · 상모판굿	반별수업
공 통 강 좌	단소/민요	주동진 (갯마당 기획단장)	· 단소 운지법과 소리내기 · 태평소 운지법과 소리내기 · 연주의 실제	다양한 우리문화 체험학습
	탈춤 및 택견	박현기 (“경당” 동해지부장)	· 기본 몸풀기 · 탈춤 기본무 · 택견 기본 품새	기본 몸풀기 및 민속놀이 익히기

공식행사 | 청초호 유원지(특설무대)

- 개막식 / 7. 22(화)
사물놀이공연(갯마당)을 시작으로 시 승격 40주년 및 KBS 속초방송국 개국기념 축하 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지며 신나는 축제한마당의 시작을 선포!
- 폐막식 / 7. 25(금)
축제를 마감하는 장. 인디락 밴드공연과 정읍사 민속예술공연으로 축제의 아쉬운 여운을 나누며 정리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해변축전 | 청초호 유원지(특설무대)

- KBS 개국기념 공개방송 / 7. 22(화)
- 정읍사 민속예술공연 / 7. 25(금)
정읍시 정읍사민속예술공연단의 신명나는 남도 민요, 창 등 신명나는 국악한마당
- 불꽃놀이 / 7. 22(화)

해변문화축전 | 청초호 유원지(특설무대)

- 대학생 치어리더 공연 / 7. 23~7. 24(2일간)
젊음과 패기넘치는 화려한 울동을 펼치는 치어리더팀 공연.
- 매직 쇼(마술) / 7. 23(수)
재치있는 신세대 마술사 이은결의 환상의 마술 매직쇼!
- 난타 및 쇼 태권 공연 / 7. 23(수)
- 세계 민속춤 공연 / 7. 23~24(2일간)
- 스포츠 댄싱 시범 및 경연 / 7. 24(목)
- 청소년 어울림한마당 / 7. 24(목)
- 인디락 밴드 공연 / 7. 25(금)
- 한여름밤의 해변영화제 / 7. 25(1일간)

속초해수욕장

- 작은 콘서트 / 7. 22~7. 25(4일간)
홍겨운 시간, 힙합댄스, 색소폰 연주, 통기타 연주를 만끽해보자.
- 한여름밤의 해변영화제 / 7. 22~7.25(4일간)
- 고성방가 도전 100곡 / 7. 22~7. 25(4일간)
연속 5곡만 성공하면 지역특산품을 선물로 준대요..^^
- 속초 OX 퀴즈 / 7. 22~7.25(4일간)
피서객을 상대로 속초에 관한 모든 것을 문제로 출제, 최종 10명에게는 속초 이미지가 담긴 추억어린 상품도 준비되어 있어요.



속초해양 2003 FESTIVAL

Let's go 속초!
뜨거운 바다 열기속으로 ...

주최: 속초시
주관: 속초문화원
무원: 해양수산부, 강원도, 안국관광공사, KBS속초방송국,
강릉문화방송(주), GTB강원민방, YBS영동방송,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삼각신문, 사대일보, 전국매일
문의전화: (033)639-2541

속초해양페스티벌에서 피서와 축제를 동시에 즐긴다!!!

매년 무더운 7월이면 속초에서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정성으로 준비하는
속초해양페스티벌이 여러분의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립니다.



해양체험축전 | 청초호, 속초해수욕장

- **흠으로 빛는 미래 체험 /**
 7. 22~7. 25(4일간)
 속초해수욕장(몽골텐트) 도자기 관람 및
 체험 교실 운영
- **모래조각전 / 7. 22~7. 25(4일간)**
 속초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전문가의 환
 상적인 모래조각을 감상해
- **조개파기 / 7. 22~7. 25(4일간)**
 신나는 조개파기 체험후에는 참가자에게
 기쁨품도 준대요

축제일정을 일리아 재미가 보인다.

Date **22~31**

- 청초호유원지** | · 개 · 폐막식 · KBS개국기념 공개방송 · 불꽃놀이
 · 정읍사민속예술공연 · 대학생 치어리더 공연
 · 매직 쇼(마술) · 난타 및 쇼 태권공연 · 세계 민속춤 공연
 · 스포츠댄싱시범 및 경연 ·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 인디락 밴드 공연 · 한여름밤의 해변영화제

- 속초해수욕장** | · 모래조각전 · 조개파기 · 고성방가 도전 100곡
 · 속초OX퀴즈 · 한여름밤의 해변영화제 · 작은 콘서트
 · 흠으로 빛는 미래 체험

- 장 사 항** | · 오징어 맨손잡기 · 물속줄다리기 · 해변노래방
 · 수박씨 멀리빨기 · 관광배낭시체험 · 지역특산물 판매전

장 사 항

- **개 · 폐막행사 /** · 개막식 : 7. 27(일)
 · 폐막식 : 7. 31(목)
- **오징어 맨손잡기 / 7. 27~7. 31(5일간)**
 오징어를 맨손으로 잡는 신나는 체험!
 (인터넷 신청 및 현장 접수)
- ※ 인터넷접수는 <http://www.jangsahang.com>으로 하세요.
- **물속줄다리기 / 7.27~7.31(5일간)**
- **수박씨 멀리빨기 / 7.27~7.31(5일간)**
- **해변 노래방 / 7.27~7.31(5일간)**
- **관광 배낭시 체험 / 7.27~7.31(5일간)**
- **지역특산물 판매전 / 7.27~7.31(5일간)**

행사안내 : (033)639-2541~2
교통안내 : (033)639-2366
관광안내 : (033)639-2568 / 국번없이 1330
 ☎ <http://www.sokchotour.com>

2003 설악의 밤과 함께 하는 작은 콘서트

2003년 한여름밤의 문화축제 “설악의 밤과 함께하는 작은 콘서트”가 지난 7월 19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으로 설악해맞이 공원 야외공연장에서 15회 공연을 실시, 이곳을 찾은 1만여 명의 관광객 및 시민에게 체험형 관광상품으로 즐거움을 더했다.

4년째를 맞이한 작은콘서트는 전국제일의 관광문화도시 “속초시” 시승격 40주년을 맞이하여 여름 관광 시즌이 시작되는 7월부터 8월까지 시민과 관광객이 하나되는 체험형 행사로 개최되어 속초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주간은 동해바다와 설악산에서, 야간에는 속초팔경의 한 곳인 이곳에서 야간물거리 행사로 이미지를 제고하여 속초의 또다른 명소를 만들면서 여름밤에 어울리는 문화축제로 그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 동문성 속초 시장 부처의 격려.



▲ 젊음의 낭만이 무르익는 밤의 열기.



▲ 젊음이어, 사랑이어, 파도여 춤춰라!



두드리패 일본 가이나

속초시 자매시 돗토리현 '요나고시(米子市)'
7월 31일에서 8월 4일까지 (4박 5일)

(사진은 '가이나축제' 사회자로부터 소개를 받는 '두드리패')

속초문화원 부설 주부 풍물패 '두드리패'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일본 돗토리현 요나고시 '가이나 축제'에 초청되어
자매시에 대한민국의 풍물을 소개했다.
우리의 가락을 일본에 전한 속초 주부 풍물패의
자랑스런 모습을 하이라이트로 심는다.

(사진들은 무대와 '요나고시' 거리에서 공연하고 있는 두드리패의 모습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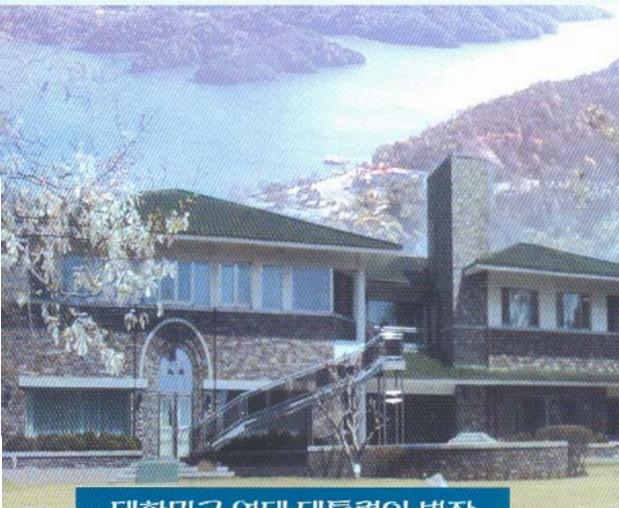


축제 참가 공연





속초문화가족 문화유적답사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별장

속초문화원 문화가족 80여 명이 노광복 부원장의 인솔 아래 10월 15~16일 1박 2일 일정으로 청남대-속리산(법주사)-정동진 통일안보공원-동해 오토캠핑장에서 열린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를 관전, 응원하였다.

금번 문화유적답사팀은 문화탐방을 비롯 속초시 승격이래 처녀 출전한 민속놀이 “속초 도문메나리 농요” 관전에 앞서 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시민을 대표하고 강원도 의지를 뚜렷히 보여주는 열띤 응원을 펼쳤다. 이 대회에서 강원도 출품작인 ‘속초 도문메나리농요’가 금상(문화관광부장관)을, 소리꾼 오순석씨가 연기상을 차지했다.



제38회 설악문화제

하·이·라·이·트



피에로(pierrot)의 등장



▶ 주부 댄싱팀의 축하 댄싱



▶ 백두산 소년예술단 공연



일본자매시
 요나고시(米子市)
 민속예술단



실악문화제
 축하 무대





풍물 치라



떡메 치라

전국 청소년 풍물겨루기 한마당

전통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며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악의 계승발전과 향후 국악인재의 발굴·육성을 위한다.



일 시 : 2003. 10. 3 ~ 10. 4

장 소 : 속초시 EXPO장 특설무대

주 최 : 설악문화제 위원회, 속초문화원

주 관 :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속초시지부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



2003 전국청소년 풍물겨루기한마당 시상내역

구 분	훈 격	수 상 구 분		
		초 등 부	중 · 고등부	농 악 부 문
종합대상	강원도지사상			(경기도광명시)충현고등학교
장 원	동국대학교총장상	(서울)신상도초등학교	강릉제일고등학교	
	강원도교육청교육감상			(춘천)송화초등학교
차 상	한국국악협회이사장상	(강릉)동명초등학교	(원주)대성고등학교	(강릉)성산초등학교
차 하	속초시장상	(양구)죽리초등학교	속초여자고등학교	
	전국문화원연합회회장상			(양양)강현초등학교
장려 상	전국문화원연합회회장상	(인제)용대초등학교	(정선)임계고등학교	(고성)공현진초등학교
특별 상	설악문화제 위원장상	(인제)원통 초등학교	속초상업고등학교	
	속초문화원장상	(양양)현북초등학교	속초고등학교 속초여자중학교	
지도 상	강원도교육청 교육감상	충현고등학교 연정숙		
계		18개교		



2003

강원도 전통문화공연상품

갯마당과 함께하는

북치고 장구치고

일시 : 상설공연 6월~10월 오후7시 장소 : 해맞이 공원, 엑스포 상징탑
주최 : 강원도, 속초시 주관 :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
후원 : 속초문화원, (사)한국예총 속초지부, (사)민예총 속초지부
공연문의 : 033) 639-2226 속초시청 문화공보과, 033) 633-6250 갯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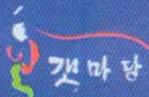
★ 자세한 안내는 www.getmadang.co.kr 참조 하세요

공연 일정

일시

장소

6월 21일 토요일	14시	엑스포공원
7월 19일 토요일	14시	엑스포공원
7월 19일 토요일	19시	해맞이공원
7월 26일 토요일	19시	해맞이공원
7월 27일 일요일	19시	해맞이공원
7월 28일 월요일	19시	해맞이공원
7월 29일 화요일	19시	엑스포공원
7월 30일 수요일	19시	해맞이공원
7월 31일 목요일	19시	엑스포공원
8월 1일 금요일	19시	엑스포공원
8월 2일 토요일	19시	해맞이공원
8월 3일 일요일	19시	해맞이공원
8월 4일 월요일	19시	해맞이공원
8월 5일 화요일	19시	엑스포공원
8월 6일 수요일	19시	해맞이공원
8월 7일 목요일	19시	엑스포공원
8월 8일 금요일	19시	엑스포공원
8월 9일 토요일	19시	해맞이공원
8월 10일 일요일	19시	해맞이공원
8월 11일 월요일	19시	해맞이공원
8월 12일 화요일	19시	엑스포공원
8월 13일 수요일	19시	해맞이공원
8월 14일 목요일	19시	엑스포공원
8월 15일 금요일	19시	엑스포공원
8월 16일 토요일	14시	엑스포공원
8월 16일 토요일	19시	해맞이공원
8월 17일 일요일	19시	해맞이공원
8월 19일 화요일	19시	엑스포공원
9월 19일 토요일	14시	엑스포공원
10월 19일 토요일	14시	엑스포공원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570-514/1

TEL : (033)633-6250

<http://www.getmadang.co.kr>



졸업생을 위한 강연회 및 공연 개최

- 친구랑 함께 하는 우리문화 “다함께 얼씨구”
- 2003. 11. 20 속초시 문화회관 대강당

속초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9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출신 양언석교수(관동대 국어국문과)의 “청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주제로 청소년들의 사회 첫 발걸음을 위한 희망찬 인생 설계 강연을 비롯 그동안 학업에 전념, 문화향수권에서 소외되어 문화를 향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전통우리문화를 위하여 갯마당의 “사물놀이” 공연과 현대음악을 위한 유명 락 그룹 “레이지본” 초청공연을 실시하여 우리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이해와 정서 함양을 도우는 계기조성과 졸업을 축하해 주는 자리가 되었다.





▲ 인기를 더해 가고 있는 노래교실 - 고운 소리 모듬

2003 속초문화원 부설 한국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회

- 기간 : 2003. 12. 12 ~ 12. 14
- 장소 : 속초시 문화회관 소강당, 전시실, 문화사랑방
- 후원 : 문화관광부, 속초시

2003년 속초문화원 부설 한국문화학교 수료식이 12월 13일 속초시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수강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1993년부터 개설된 향토문화학교는 2003년 현재까지 2,2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정통성 있는 명문학교로 거듭나면서 지역의 배움의 터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날 향토문화학교장의 표창장 수여와 한국문화학교장 문화관광부장관 수료증을 수여 받은 266명은 수료식이 끝난 후 발표회를 가졌다. 장구초급, 사물초급, 노래, 사물놀이, 고금반 수강생들이 그동안 배우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면서 참석한 문화가족과 수강생 가족들에게 흥겨운 한마당을 제공하였으며, 서예교실과 사진교실 수강생 50여 명은 12일부터 14일까지 정성껏 준비한 작품 90여점을 전시해 전시실을 찾은 시민 및 문화가족에게 작품 설명을 비롯 2004년 배움의 장을 여는 호자노릇을 하기도 했다. 또한 전통요리교실 수강생들은 문화사랑방에서는 1년과정에서 배운 솜씨로 20여 가지 음식을 전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가족 문화학교 수강생들과 함께 시식하며 속초문화원 부설 한국문화학교의 수료를 더욱 빛내주었다.



맛을, 멋을, 먹을거리의 조화
- 요리교실



북은 칠수록 맛이 난다 ▶
- 장구교실



◀ 내 고향 문화를 위해 일한 사람들
들을 위한 시상



동문성 속초 시장(앞),
최용문 문화원 원장(뒤) 등
관계 인사들이 발표회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하이라이트



사진작가 최낙민 씨 '낙산사 사계절' 관광엽서 펴내

사진작가 최낙민씨가 '낙산사 4계절' 관광엽서를 냈다.

의상대의 일출, 낙산해수욕장의 여름, 해수관음상, 홍련암의 관음전 등 낙산사의 4계절의 변화를 엽서에 담았다.

16장의 컬러사진으로 구성, 낙산사를 찾는 이들이 겨울에 많지 않음을 감안, 깨끗한 겨울풍경의 아름다움을

전달하기 위해 눈내린 낙산사의

고적한 모습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또 학생과 외국인들을 위해 국한문 혼용과 영문으로
관련자료를 기록해 가치를 더하고 있다.



향토문화와 지방문화원

지난 1965년에 개원하여 38년간 지역문화를 창달해 온 속초문화원이 제19호 「속초문화」 발간을 위해 칼럼형태의 원고를 요청하였기에 평소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관련된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전국 문화원연합회
회장 권용태

우리나라는 일본 식민지배와 6·25전쟁이라는 시련을 겪으면서도 짧은 기간내에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결과 개도국들의 정책입안자들이 우리를 벤치마킹하려고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IMF극복과정에서 보여준 기업 구조조정 성공사례를 선진국인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배워가겠다고 한다.

지난해 2002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았고 또한 개막식 행사 프로그램이 최근 문화상품으로 수출상담을 한다고 한다. 이 같은 저력의 근원은 5000년 문화전통을 바탕으로 발전을 이루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와 비슷한 제국주의 식민지의 역사적 배경을 가진 베트남은 프랑스와 독립전쟁에서 승리 한후 1954년 7월 미국, 영국, 소련, 중공, 프랑스,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의 반공주의 대표, 공산주의 대표가 스위스 제네바에 모인 참여회담에서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 북의 공산국가 월맹은 중공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 외세배척과 민족통일을 모토로 게릴라전쟁과 국지전을 병행하는 10여년의 잔혹하

고 참담한 동족상잔의 전쟁에서 미구의 막대한 경제원조와 군사 지원을 받아온 월남을 점령하여 통일 공산국가를 이룩하였다.

그 당시 패망한 월남 치하에서의 지식인, 정부관련 종사자, 자본가등 사회지도층 100여만명 이상이 보트를 타고 국외탈출을 하는 비극적인 사태에 우리나라도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 과정을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말콤 W 브라우니가 1961년 초기부터 미국인이 개입한 월남전쟁의 체험을 바탕으로 풀리처상을 수상한 「새로운 얼굴의 전쟁」(맥밀란 출판사·뉴욕·1965년)이라는 책자와 리처드 팔머의 「기상나팔」 군인의 관점에서 본 베트남 전쟁의 역사(발렌타인북·뉴욕·1978) 내용을 보면 한나라가 축적한 문화수준이 그 민족의 장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후 지역의 유지들이 자발적으로 지방문화원을 설립하여 폐허속에서 실의에 빠진 이웃 주민들의 혼 혼한 정을 모으고 전통적인 협동 정신을 부추겨 새로운 삶과 희망을 배양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 확보와 국민통합의 토대를 닦아 오늘날 북한 체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였을 뿐만 아

나라 미래에 있을 평화통일에 대비하는 분위기를 선점하는데도 크게 기여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한국 발전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지방문화원이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그 중심기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첫째, 문화원의 조직 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늘려나가고 유능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며 주민의 문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프로그램개발 등 기획력을 갖춘 고급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둘째, 문화원이 자생력을 갖춘 단체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에만 의존 할 것이 아니라 회비, 기타세입 재원을 늘려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문화원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축제 등 문화행사의 경우 그 지역의 역사성, 전통성을 고려 타지역과 변별성이 있어야 하며, 문화강좌 운영은 수요조사를 통해 강의를 선정하되 청소년반, 노인반, 직장인반, 주부반 등 계층에 적합하게 실시함으로써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문화원 운영에 지역주민 참여 확대 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지역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끌어 들여야 할 것이다.

○ 회원배가는 문화원 임원수의 증가유도의 회원구성을 읍·면·동별로 안배하여 지역문화사업에 공감대 형성

○ 임원회의의 활성화와 원장과 사무국장의 역할분담의 제도화는 문화원 운영의 투명

성 제고

○ 문화원은 공공적 성격을 가진 특수법인으로 그 자체가 부단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유기적인 조직이다. 이 뜻은 임직원들이 질서 있게 움직여야만 활성화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 문화원 조직을 대폭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진을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하여 참여의 폭을 넓혀나가는 동시에 회원을 늘려 지역 전체가 문화원 사업에 동참함으로써 지역문화 거점기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 할 수 있다.

다섯째, 문화원을 거점으로 지역에 뿌리를 내린 자발적·자생적 문화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함. 즉 주민들 스스로에 의한 일상적인 문화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 문화원 부설 향토사 연구소, 문화예술강좌모임, 직장문예활동 그룹, 주부합창단, 음악감상 모임, 연극감상 모임,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모임, 공예 및 미술실기 모임등 기타 각종 단체의 활성화를 지원함.

여섯째, 21세기에는 정보와 지식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의 시대로서 세계 각국이 문화를 기반으로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에 우리도 향토문화 콘텐츠의 기초자료 정리에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 한다.

○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에서는 산업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문화와 밀접한 IT산업쪽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산업 분야가 높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문화산업은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의 활성화가 전제 되어야만 육성될 수 있으며, 결국 문화산업시대에 우리

나라를 상징하는 콘텐츠는 지역의 향토문화가 주요소재 이기에 지역문화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지방문화원의 축적된 인적·물적 토대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대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작업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것은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어떤 방법으로 정립하여야 하는가로 귀결되면서 지방문화원에도 그 역할 강화와 변화가 요구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껏 가꾸어온 지역의 전통문화 유산을 집약할 수 있는 역사계승의 문화제 발굴 및 사연, 학술토론회 개최, 각종 전통문화와 관련된 간행물 발간 등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키어 왔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을 통하여 특색있는 향토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 동시에 지역 이미지화에 성공을 이루어 놓은 것은 우리의 큰 자산이다.

2002년도 전국 214개 지방문화원의 사업량을 살펴보면 사업비가 국고·지방비·자체비 등 약 312억원이며, 문화원 사업에 참여한 지역 주민수는 약 902만명으로 1인당 약 3,410원이 투자됨으로서 국민의 약 20%가 문화향수권을 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방문화원 사업실적은 엄청나게 상근하는 인력은 문화원 규모와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부족한 형편이며 처우도 열악한 실정이다. 문화원장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직원수는 문화원 평균 2.3명이 근무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 소재 문화원 직원들은 고장의 문화를 지킨다는 신념과 열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근무하고 있으나 박봉으로 인하여 생계를 위한 직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문화원 인력 부족 해결과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문화원 직원들에 대한 현실적인 급여기준과 상근 인력수를 정함은 물론 신분보장 제도장치 마련 등 문화행정 전문가 양성 및 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체계가 시급하다는 건의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사무국장 연봉제를 실시하여 유능한 인력확충과 처우개선을 이루는 등 지방문화원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년전부터 정부는 문화분야에도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 문화도 일반상품처럼 경쟁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 문화의 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일반 문화예술단체에도 지원금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것은 그동안 지역의 문화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해 온 지방문화원에는 큰 경종이 아닐 수 없다.

지방문화원에 대한 도전이 곳곳에서 이미 시작되었음을 인식하여 응전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오랜기간 각 지역에서 문화거점 역할을 해온 우리 지방문화원은 여타 문화단체와의 비교할 수 없는 장점과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기에 우리 스스로의 많은 분발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이곳 속초는 과거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지역이라 먼나라의 역사일부를 서두에 소개하면서 향토문화와 지방문화원이라는 화두로 문화원의 발전방안을 언급하였다. 결국 지역문화활성화라는 명제에 대한 답은 초기 지방문화원을 설립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지역문화를 일구어 온 선배들의 희생정신이 현재의 문화원 종사자들에게도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

21세기에 부응하는 속초시 문화회관의 시설확충을 바라며



최준집
(속초시의회의장)

I. 머리말

지난시대 우리는 경제성장 제일주의에 따라 산업의 발달과 소득증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속초문화의 정체성의 확립과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은 도외시 되어왔다. 그후 산업경제의 발달과 시민생활이 안정되면서 주5일 근무가 보편화되기 시작하고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에 들어서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들의 문화생활과 문화시설에 대한 욕구도 급속히 증가하면서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재고 할 수 있는 기능과 시설확충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서야 문화에 대한 투자와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지역문화예술이 활성화의 길을 걷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문화예술단체의 기대수준(期待水準)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II. 속초문화회관의 시설확충시급

문화기반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그 지역문화의 수준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990년에 건립된 속초문화회관을 비롯하여 해맞이조각공원, 청소년문화의 집,

전통민속시범놀이마당(청조호유원지 상설 이벤트장 무대)등의 시설이 있다.

이 중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시설은 속초문화회관으로 각종 공연과 전시회가 이 곳에서 주로 개최되고 있어 속초문화예술의 메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연장 시설과 장비가 노후 되었고 전시실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연습장이 없어 지역문화예술단체의 활동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속초시 문화회관은 시가 1975년도에 속초문화원에서 원사(原舍)를 기부채납을 받아 그후 증축하면서 개관하였다.(대공연장 1990년도 개관).

그동안 우리지역 문화예술의 요람으로써 그 기여한 바는 지대하였다. 회관 건립이후 과거의 크고 작은 행사가 지역에 흠뻑 퍼져 열악한 환경속에서 진행되어오던 것에서 일거에 수많은 문예행사가 폭주하면서 양과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 진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문화회관이 근래에 들어와서 과연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와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전쟁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21세기에 걸맞는 수요에 부응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할 시

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의 속초시 문화회관은 대지 2,242평 연건평 1,330평으로 대극장 734석 규모로 외형상 영북지역 최고의 문화예술의 산실로 그 위치를 공공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만족스럽지 못하다. 회전무대용으로 설계 당시의 공간은 여러가지 불합리성으로 인해 민방위 교육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오래다.

문제는 이러한 문예전당에 소규모 공연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극장도 없다는 사실이다. 연극공연의 예를 들어보면 연극이란 특성상 한번 무대에 올리려면 수개월의 꾸준한 연습 과정과 엄청난 노력, 정열, 기타 기획력 등이 총망라된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유일한 극장인 대공연장에서 연극 공연만을 허용함으로써 인해 이틀 이상 대관은 사실상 무리이며, 그간의 엄청난 물적, 인적 자원의 투입이 하루 또는 3~4회 공연으로 막을 내린다는 것은 공연의 비효율과 낭비성 문예사업으로 전락시켜 결국 지역극단의 허약체질로 유도하게 하는 한 요인 이기도 하며 소기의 공연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문제는 전시실에도 있다.

현 전시실은 연간 130일의 전시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혹서기와 혹한기를 제외하곤 연중 꾸준히 전시회가 계속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44평 규모의 현 전시실로는 지역 동우회원전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도 단위 이상의 중급규모의 전시회도 개최할 수 없는 실정이라 한다.

문제는 또한 주차장에도 있다.

문예행사를 감상하려고 찾은 시민은 이미 민방위교육장 또는 위생교육 각종 홍보행사 캠페인차량에 밀린지 오래전이다. 아울러 회

관광장을 청소년 정서함양의 장으로서 유도코자 “청소년어울마당” 개념을 수년전에 도입하였으나 “주차장어울마당(?)”으로 바뀐지 오래다.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본인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회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현재의 문화회관 대강당은 시설내부의 개보수 유지시키고, 소강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속동을 철거하고 테니스장 인근에 순수 문화예술 회관을 증축하는 것이다. 소공연 예술 극장 및 관련 부속 시설물을 확충하고 대·소 전시실 확보와 지역 극단의 상시연습이 가능한 연습실을 확보함은 물론 주차장을 지하화하여 예술문화 앞마당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을 꽃피어 시민에게 문화생활 이용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문화회관시설 확충에는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임시방편적인 개보수와 연차적보수는 자칫 예산 낭비의 악순환만 되풀이하게 되므로 영북 제1의 문화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속초시와 시의회,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합심하여 문화회관 시설 확충을 위해 활발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Ⅲ. 맺는말

21세기를 맞아 시민들이 문화수준향상 욕구에 부응하고 영북지역 문화예술, 지역 문예진흥 제1의 요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문화회관의 시설 확충이 시급하며 시설 확충을 위한 관계기관, 문화예술단체, 전시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강원문화의 발전방향



채용생
(강원도 환경관광문화국장)

1. 들어가는 말

중앙집권적인 사회에서는 지방의 경제는 물론 문화 자체가 중앙에 중속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는 지방의 독자적인 자기발전 능력은 쇠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21세기의 무한경쟁속에서 지역의 지주적·자립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기발전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가 무엇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스스로의 독자적인 결정과 자율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문화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자원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과 투자가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렀고, 그에 따른 문화재정 기반의 취약, 문화시설과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지역문화의 낙후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흔히들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로

부르고 있듯이 최근 문화수요와 문화시장이 커지면서 지역문화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자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의 고유한 문화는 지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의 개성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역의 고유문화는 이제 단순한 보존이나 보호의 차원을 벗어나 지역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의 추구라는 보다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지역 문화는 과거와는 그 내용이 달라져야 하고 강조해야 할 가치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속에서 지역문화 발전의 목표는 새로운 지역문화의 창조에 두어져야 한다. 이제까지 지역문화에 대한 정책은 전통의 보존과 계승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왔으나, 이제는 지역의 특유한 문화적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모색하고 창조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역사가 언제나 새로이 구성되고 재해석되는 것처럼 문화발전이란 공동체적 삶의 현장인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성에 뿌리내린 문화

적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야 한다.

문화적 전통의 바탕위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성을 갖는 문화를 재창조해 나가는 것이 문화발전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는 단순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육성 그 자체는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의 목표가 될 수 없으며, 개성적인 새로운 지역문화의 창조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21세기에 대응하는 문화정책인 「강원문화 인프라 구축 10개년 계획」을 통해 문화 기반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문화컨텐츠 및 문화산업을 육성해 나가기 위한 강원도 문화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강원도 문화정책의 기본방향

「삶의 질」이 최고의 선으로 여겨지는 21세기는 그 나라의 독창성을 지닌 문화적 이미지가 국가발전을 좌우하는 「문화우위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도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있는 것처럼 지역문화야말로 가장 소중한 지역발전의 인프라이다.

“강원도만의 문화”, 그것은 우리 도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이요 도민의식의 총체이며, 이것이 곧 강원도의 자존심이요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강원문화를 도외시한다면 어떠한 개발도, 어떠한 발전도 우리 도민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전제하에 지역문화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선 3기 강원도정의 목표를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에 두고 “강원도적 문화의 창달”을 강원도 문화정책의 기본방침으로 설정하고, 강원도의

문화정체성 확립으로 독특한 문화를 창조하고, 획기적인 문화인프라 구축으로 문화경쟁력을 강화하며, 열린 문화 정책으로 생활속의 문화복지를 구현함으로써 강원도 만의 고유 문화 창달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

3. 주요 정책 과제

위와 같이 설정한 기본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는 다음의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가치제고와 독특한 문화창조를 위한 여건조성이다.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① 지난 '9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강원도의 열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② 강원도 관련 사료의 체계적 발굴을 통한 구비 전승자료의 집대성, 국역사료집 발간, 강원학연구총서 발간, 강원학 연구활동 지원을 통해 강원학의 체계를 정립하고, ③ 도내 향토사료를 종합, 전시하고 시군별 특성과 변천사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강원도 향토사관의 건립, ④ 문화유적 벨트 조성사업, ⑤ 유·무형문화재 등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기반 구축을 통한 관광자원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독특한 문화창조를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① 2012년까지 영월 동강 사진마을과 같은 1시군 1특화예술마을을 조성해 나가고, ② 마을단위의 작은 박물관을 지속적으로 건립 추진하고, ③ 폐교 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④ 문화 소외지역, 관광지 등을 방문하여 공연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둘째, 강원문화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을 통한 문화경쟁력 강화이다.

이를 위해 “강원문화 인프라 구축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문화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2001년도에 수립하여 시행중인 “강원문화 르네상스 계획”을 보완하여 2012년까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계획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와 함께 문화산업(CT) 조성, 춘천 에니타운 페스티벌 개최, 문화상품 종합 전시·유통관 건립 등을 통한 문화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열린 문화정책으로 생활속의 문화복지 구현을 통한 강원도 만의 고유문화 창달이다.

문화복지의 구현에는 문화예술단체들의 자발적·적극적 참여와 공공지원을 통한 활성화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단순한 공연시설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으로 도민의 문화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① 시군단위 문화의 집, 문화학교의 지속적인 확충 및 도민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하여, ② 도립예술관 공연활동 강화와 전통국악의 보급 확대, ③ 예술단체 활동의 적극적 지원 및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④ 무대 공연작품 제작 지원, ⑤ 강원문화재단의 운영 내실화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문화는 일상의 삶에 여유와 윤택을 주고 마음의 풍요로움을 갖게 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로 21세기의 과학기술과 교육수준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보화시대의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즉, 문화의

가치는 토지, 노동, 자본, 경영과 함께 생산의 제5요소로 날로 비중이 증대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첨단 과학기술과 함께 앞으로의 경제발전을 이끄는 무형적 사회간접자본으로 취급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문화의 세기인 21세기는 문화의 중요성이 계속 증대되어 갈 것이다. 지역문화는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잠재력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기능할 것이다.

특히,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여가문화의 대중화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 고조와 문화생활의 보편화에 따른 중산·서민층의 문화욕구가 증대되어 문화예술이 삶의 질을 가늠하는 핵심적인 척도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이러한 여건 변화속에서 지역주민들의 정신적인 공감대 형성에 바탕을 둔 지역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의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4년도의 강원문화정책은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가치제고, 독특한 문화창조를 위한 여건조성, 문화유산의 관리기반 구축 및 자원화 등을 통한 강원도적 문화창달과 강원문화 인프라 확충계획의 조기 가시화, 예술활동 지원강화로 문화개방화 촉진, 문화향유 확대를 통한 문화저변 확산으로 강원문화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채용생 국장 약력)

- 前 속초부시장 ('98~2001)
- 前 강원도 산업경제국장(2001~2003)
- 現 강원도 환경관광문화국장(2003. 5~)

청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강연 : 양 언 석 교수(관동대 국어국문과)

제가 오늘 이 강연을 하게 된 것은 저도 여러분들처럼 아름다운 속초에서 어린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여러분의 선배이기에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향의 후배들을 만나 반갑습니다. 강연을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힘이 가장 센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책을 가장 많이 읽은 사람이다. 책속에는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것이 명예라면, 또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것이 진리라면, 또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것이 연인이라면 그 모든 것이 책속에 들어 있다. 진정 인생이 무엇이고, 철학이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면 책을 읽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책속에는 그 모든 것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고문진보에 이런 말이 있다. 父母教而不學이면 子不愛其身也요 雖學而不勤이면 是亦不愛其身也라. 부지런히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여러분을 사랑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어느 것도 이룰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알아야 한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을 사

랑할 수 있는 방법은 부지런히 배우는 것이다. (부모, 사회)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특권이 있다면 자기자신을 사랑하기 보다는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도 한다. 여러분보다 못하거나 좀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불만과 갈등을 갖고 살아 간다. 문제는 이 불만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취의 결혼이야기) 갈등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보다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깨달을 수 없다면 평생을 방황과 갈등으로 살아 가야만 한다. 우리는 지금이 공간에서 최고는 아니지만 최고가 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여러분이 지금 다른 친구들보다 부족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회에 나가서 그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신을 찾는 것이고, 이것이 자존심이다. (부모님, 선생님께 말대답하고 대드는 것이 자존심이 아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가지 만 이야기하고자 한다. 일본과 우리는 지경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나 인류학적으로 매우 유사한 민족이다. 하지만 일본은 자신들의 역사를 왜곡하고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민족이다.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역사를 기억하

고 있다. 자신들은 전쟁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반면에 우리 민족은 역사를 너무 쉽게 망각한다. 일본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다면 전쟁의 성격은 다르지만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섰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세계 최강의 부국이라는 것이다. 그 원인은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역사가 토인비는 역사는 반복한다고 했다. 오늘날 우리의 정치, 사회적인 삶의 형태를 보면 일본이 우리를 강점했던 과거의 역사를 망각한다면 우리는 또 다시 불행할 수도 있다. 총독부의 건물을 헐고 우리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해 산맥에 박아놓은 쇠말뚝을 빼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학생들의 모습) 우리는 일본에서 배울 것이 있다면 배워야만 한다. 일본이 미국과 무역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외상은 우리는 노라고 할 수 있는 민족이다라고 했다. 우리는 어떤가? 미국이 우리에게 그들의 농수산물을 먹으라고 한다. 그것도 통관조사를 하라는 것이다. 사실 그들이 먹으라고 하는 과일 속에는 기준치의 백배가 넘는 농약이 검출된다. 쉽게 말하면 과일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독약을 먹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어느 위정자 하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노라고 할 수 말 할 수 있는 사람하나 없다. 클린턴은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마약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협박하고 있다. 우리의 위정자들이 정신 차리지 못할 때, 우리 민족은 농약과 마약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의 위정자들은 먹을 것이 없다면 외국에서 원조를 얻어서라도 배

불리 먹이겠다고 했다. 이것은 한 정치가의 의식이라기보다는 우리 민족의 의식이었다. 하지만 일본은 달랐다. 전쟁의 폐허속에서 빵보다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자 노력했다. 그래서 외국의 유명한 철학자나 문학가들을 불러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었다. 이때,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공항을 떠나면서 - 소년이며 야망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다. 나도 그런 친구가 있다. 야망은 컸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그는 비참한 삶을 산다. 희망을 잃은 사람은 사회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불만을 가질수록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소외자가 된다. 2. 행동, 우리나라 대학생들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아무것도 안하고 공부만 하는 부류가 있다. 새벽에 일어나서 외국어 학원에 가고, 학원이 끝나면 학교에서 강의 듣고 강의를 끝나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11시쯤 어울려 한잔.

그들을 보면 산뜻해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낭만도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들의 특징은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열심히 즐기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대학생활 동안 접어 두었던 낭만과 자유를 마음껏 즐긴다. 둘째는 공부는 하지 않고 놀기만 좋아하는 부류가 있다. 논다고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사장에서 막노동도 한다. 그리고 친구들도 잘 사귀다. 이 부류의 학생들도 사회에 나가 잘 산다. 마지막의 한 부류가 있다. 공부도 안하고, 놀지도 못하는 부류가 있다. 여러분이 이 부류에 속한다면 한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러분 주위에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는 노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대

학 졸업 후 여러분의 모습이다. 실업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공통점이 있다.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탓한다. - 줄, 배경, 하지만 아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실력있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회이다. 인생은 선택이다. 고통을 택할 것인가. 쾌락을 선택할 것인가 -

대학을 진학하든 사회에 나가든 하루에 한 시간만 영어공부를 더하고 하루에 한 시간만 더 첨단기술을 배운다면 졸업 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자리를 갖고 젊음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 미래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한다면 미래는 여러분의 것이다. 야망을 가지고 있지만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절대로 여러분을 기다리지 않는다. 공부하기 싫을 때,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에게 등록금을 대주고 생활비를 주시는 여러분의 부모님은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입을 거 입지 못하고 보내 주시는 것이다. 그 분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려야 한다. 여러분처럼 건강하고 예쁘게 키워주신 그분들께 이제는 보답을 해드려야 한다. 그 보답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알 것이다. 요즈음처럼 자식도 많이 낳지 않는 집안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서 논다면 그 집안은 불행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 자식이라도 자신의 일자리를 갖고 살아간다면 그 집안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 지금은 모두 친구지만 - 신이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준 것은 죽음과 시간이다. 성공한 사람은 시간을 잘 활용한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지금처럼 많은 시간이 주어질 수 없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고등학교 때,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이야기하고 싶다.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이다. 이 소설은 주인공 싱클레아가 열 살이던 라틴어 학교에서부터 대학 생인 1차 세계대전까지의 성장과정이다. 인생은 하나의 작품이다. 여러분은 작가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의 작품이다. 여러분은 어떤 작가로 어떤 작품을 쓴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 누구나에게 사랑받는 작품을 쓸 것인가 아니면 누구도 보지 않는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 훌륭한 작품을 쓰려면 자신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너무나 모르고 살아간다. 졸업하면 뭔가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자신을 알아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야만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 작품의 초점은 자아발견에 있다. 인간의 생애란 자기 자신이 지향하는 바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이 작품의 중심적인 모티프이고 내용의 줄거리이다. 이 책은 고독을 사랑하고 그 고독이 진정 자신을 완성시켜 주리라고 믿는 사람, 악을 미워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책을 칭송한다. 어린 싱클레아는 자기 가정의 밝은 세계와 뒷골목의 어두운 곳에서 양분된 두개의 삶을 살아간다. 그의 가정은 신앙심이 깊고 평화로우며 부모님과 두나나 모두 사랑으로 충만해 있다. 이러한 가정에서 싱클레아는 자신의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 고통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 작품은 제목이상으로 유명한 말이 있다. 새는 알에서 깨야 나온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그 일은 새의 세계이다. 알에서 나오려면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된다. 새는 신의 곁으로 살아

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플락사스다라 하다.

이 말은 새가 푸른 창공 날아가려면 껍질을 깨는 아픔을 겪어야만 한다. 껍질을 깨는 아픔이 싫어 껍질 속에만 있다면 죽을 수 밖에 없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껍질을 깨는 아픔을 겪어야만 한다. 싱클레아는 항상 보호받는 가정에서 자유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 자기 가정의 평화로운 울타리를 배신하고 파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이상한 인연으로 아주 못된 프란츠크로머라는 악동을 만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어린 시절 만났던 힘도 세고 무섭고 나이도 더 들어보이는 못된 아이에게 시달린다. 그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한다. 어느날 싱클레아는 크로머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엉뚱한 거짓말로 무용담을 자랑한다. 과수원에서 사과를 많이 훔쳤다. 이것을 듣고 크로머는 이 약점을 이용하여 위협의 도구로 삼아 돈을 요구하고 심지어 누나까지 데리고 나오게 하는 못된 짓을 시킨다. 어린 싱클레아는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의 세계를 위해 고통받는다. 이때, 상급생이고 의젓하고 지혜가 많은 데미안을 만나 그의 힘의 영향을 받아 크로머를 퇴치한다. 이 때부터 데미안은 싱클레아의 친구요, 스승이요, 은인이다. 데미안에게 성장의 한 방법으로 부정과 비판의식을 배운다.(자기동생 아벨을 죽인 카인에 대한 긍정과 예수 처형시 회개한 강도에 대한 조소는 싱클레아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는다. 가정에서 배울 수 없는 일을 배우게 된다.)

싱클레아는 어떤 도시의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사춘기의 진정한 가치와 목표를 외면하고 술이라는 나쁜 생활을 하게 된 후 한 여인을 만나 퇴폐적인 생활에서 벗어난다(베아트리체). 그후 운명의 여인을 찾던 중 대학에 진

학하여 데미안의 어머니를 만나게 된다.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부인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에바부인은 싱클레아가 자기에게 사랑을 쏟는다는 것을 알고 당신의 사랑이 내 마음을 끌어당기게 된다면 나는 기꺼이 따르겠습니다라는 말로 미래를 약속한다. 에바부인은 싱클레아의 의식깊이 자리잡은 운명의 여인이고 아플락사스의 신이다. 작품의 끝은 1차 세계대전 중 데미안과 싱클레아는 참전하여 부상당한 후 데미안이 에바부인의 키스를 전해주면서 죽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싱클레아는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통하여 자시자신의 못브을 볼 수 있었으며 고통으로 해방되어 진정한 행복의 길로 들어선다. 그 인도자는 데미안이다.

이 작품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싱클레아에게 데미안처럼 자신을 인정해 주고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친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것이다. 친구란 자신의 단점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친구가 한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돈이 없고, 사는 것이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 하지만 이런 친구가 없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각박한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소중한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에바부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받쳐 사랑할 수 있는 연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랑이 지금은 이를 수 없고 고통인지 몰라도 훗날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짝사랑이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 - 사랑과 성공은 기다리지 않는다. ●

속초 민속의 계승과 발전은 계속된다.

최 용 문 (속초문화원장)

“속초 도문메나리 농요”가 출품(강원도·한국민속예술축제) 되면서 속초의 민속의 뒤늦은 조명,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고장 민속학자 장정룡 교수(강릉대), 이한길 강사(강릉대), 양언석 교수(관동대)의 활발한 연구 활동으로 “속초 민속예술의 계승과 발전”이란 주제로 첫 학술 발표회를 가졌다.

장정룡 교수의 「속초시 민요의 분포와 양상」에서는 ‘앞뜰엔 동해안, 뒤뜰엔 설악산’이라고 읊은 팔경처럼 바다와 산악을 끼고 수많은 설화가 잉태되었던 것같이 뱃소리, 농산농요가 어느 고장보다 풍부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현재까지 출품작 만도 “만천동 나룻배 싸움놀이”, “대포동 뱃소리”, “든대질 놀이”, “도리원농악”, “도문메나리 농요” 등으로 풍부한 민속이 산재, 발굴의 여지도 많으며 현재의 작품들도 보다 발전시켜 줄 것을 제안했다.

이한길 강사의 “도문 메나리 농요 전승과 특징”에서는 여타 농요와 비교해 가장 정적이며, 구성진 가락이 특징이고, 연출을 맡으

면서 이고장 민속발굴의 소재가 많음을 발견하게 되었으나 한편으로 주민들의 고령화로 전승이 서둘러져야겠다고 주문했다.

양언석 교수의 “매곡 오윤환 선생의 사상과 작품세계”에서는 유학자, 교육자, 독립운동가인 매곡의 선양사업이 거도적은 물론, 국가적 사업으로 펼쳐지기를 역설하였다.

토론에 나선 김선풍 교수(중앙대), 신찬균 교수(동국대), 김경남 교수(중앙대)는 속초는 산과 바다, 호수가 어울린 곳으로 민속의 소재가 풍부한 여건으로 실제로 많은 작품을 갖고 있으나 지형적, 역사적으로 특히 수복지구란 불리한 여건으로 지금까지 사장되었다고 지적, 학계에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본지에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발췌, 게재하고 이어서 속초시와 속초문화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그간 강원 및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품한 작품들을 다시 한 묶음 하여 ‘속초문화’에 게재, 속초의 민속을 재음미, 보다 발전하는 계기를 희망해 봄이다.●

(염음 : 최용문 속초문화원장)

2003년도 학술세미나

- 일시 : 2003년 8월 30일(토) 15:00
- 장소 : 속초문화원 강당

주최 : 속초문화원

주관 : 강원도 민속학회

후원 : 속초시

□ 제1부 학술발표

사회: 김 경 남

- ▷ 속초시민요의 분포와양상 / 장 정 룡(강릉대)
- ▷ 도문메나리 농요의 전승과특징 / 이 한 길(강릉대)
- ▷ 梅谷 吳潤煥 先生의 思想과 作品世界 / 양 언 석(관동대)

□ 제2부 종합토론

사회: 장 정 룡

- ▷ 지정토론
김 선 풍(중앙대), 신 찬 균(동국대), 김 경 남(중앙대)

속초시 민요의 분포와 양상

장 정 릉 (강릉대학교 국문과 교수)

1. 속초시 지역개관

속초시는 강원도 동북부 동해안에 있으며, 동쪽으로 동해 서쪽으로 인제군, 남쪽으로 양양군, 북쪽으로 고성군과 연결해 있다. 태백산맥의 능선인 해발 1708m의 설악산과 1327m의 마등령과 같은 높은 산이 서쪽 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한냉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고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기후가 나타난다. 하천은 雙川과 靑草川이 있는데, 연장 16km의 쌍천은 설악산에서 발원하여 동해로 흘러 도문평야를 이루고, 청초천은 연장 12km로 달마봉에서 발원하여 청초호에 이르는데, 좌우에 있는 소야평야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하천의 하구에는 후기빙하기 때 해수면의 상승으로 영랑호, 청초호 등 석호가 생겨났다.

속초 명칭에 대해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조선 영조 36년 1760년 편찬된 『輿地圖書』이다. “束草里는 管門으로부터 북쪽 35리 거리

에 있다. 호수는 86호이고 인구는 남자 90명 여자 182명이다.”라고 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양양도호부 所川面에 속했다. 도문면과 소천면은 靑岱山을 사이에 두고 이북이 소천면, 이남이 도문면으로 구분되었다. 당시 도문면은 상도문, 하도문, 물치, 대포, 웅진, 신흥사 등 6개 리, 소천면은 논산, 부월, 속진, 속초 등 4개 리를 두고 있었다. 1914년 3월 1일 府令 제111호로 지방제도 개혁으로 양양군 도문면과 소천면을 통합하여 도천면을 만든 후 면사무소는 대포리에 두었다.

東津里와 束草里가 합해졌고 論山里에서 蘆里(蘆洞里)가 분리되었고 上道門里와 下道門里 사이에 中道門里가 신설되었다. 또한 신흥사가 위치한 지역은 獐項里가 되었고, 甕津里와 勿湍里는 大浦를 중심으로 하여 안쪽에 있다고 하여 外甕峙里로 불렸다. 蘆里는 과거 습지대였던 곳이 개발됨에 따라 인구가 늘어 분리 독립하였고, 獐項里는 노루목고개에서 온 지명으로 노루목 고개 일대 즉, 현재 설악산 신단지 B지구 일대를 중심

으로 한 현재의 雪嶽洞에 해당한다.

속초는 묵을 東자, 풀草자라고 써서 이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영금정과 연관되어 지어진 이름으로, 영금정 옆에 솔산이 있을 때 바다에서 이 포구를 들여다보면 그 솔산이 소나무와 풀을 묶어서 세워 놓은 것 같은 형태라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한 풍수지리적으로 속초 지형이 臥牛형으로 소가 누워서 풀을 먹고 있는 형국이므로, 누워서는 맘대로 풀을 뜯지 못하므로, 풀을 묶어서 소가 먹도록 해야한다는 뜻으로 지었다고도 한다.

1967년 한글학회에서 발행한 『한국지명총람』 강원도 속초시 편에 보면, 속초를 “일명 속새 또는 속진(東津)이라고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속초는 많은 문화유적을 갖고 있다. 향성사지 3층 석탑은 국가지정 보물 443호로 신라 진덕여왕 6년 652년 자장율사는 향성사를 창건하였다. 조양동 선사유적지에서 움집터, 민무늬토기, 반달돌칼 등이 다수 발견되어 사적 376호로 지정되었다.

신흥사는 1912년경에는 건봉사의 末寺였으나 1971년 조계종 3교구 본사가 되었다. 사찰 내에 강원도 유형문화재 14호 신흥사 극락보전, 15호 신흥사 경관, 104호 신흥사 보제루가 있고, 신흥사는 문화재자료 7호, 신흥사 부도군은 115호로 지정되었다.

도문동 김중우 가옥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85호이고, 도문동 김근수 가옥은 문화재 자료 64호이다. 계조암은 신흥사 북방 2.3km 지점 천후산의 석굴안에 위치한 암자로 의상, 원효 두 조사가 수도하던 곳이라 하여 계조암이라 명명했다.

청초호는 쌍성호, 진성호라 부르기도 하였는데, 둘레가 약 5km나 되는 큰 호수로 그 모양이 술단지처럼 생겼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조선조 때 수군만호영을 두고 병선을 정박시켰고 쌍성호의 아름다움이 영랑호보다 훌륭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양양의 낙산사 대신 이 일대를 관동 8경의 하나로 들고 있다.

속초의 민속예술로 속초산대놀이가 1985년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상을 1991년에는 대포동의 용왕수살굿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북청사자놀음은 한남 북청군의 고유 민속놀이로 속초지방에서 행해져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15호로 지정 받았다.

2. 속초시 민요의 실제

속초는 ‘알뜰엔 동해안, 뒤뜰엔 설악산’이라고 읊는 팔경가처럼, 바다와 산악을 끼고 수많은 설화가 잉태되었고, 그 풍부한 이야기만큼 소리도 풍부하게 이어져왔다. 바닷가 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뱃소리가 연면히 이어져왔고, 도문뜰, 조양뜰을 중심으로 한 농촌 지역에서는 농사일을 풀이한 농산노동요가 전승되어 왔다. 특히 도문동에서 전승된 메나리 농요는 삼척이나 춘천권의 메나리와 달리 신흥사의 불교문화권 영향을 입어 염불이나 범패소리를 닮은 것이 특징이다.

소리의 닮은 형태는 양양메나리와 흡사한 것은 도문동과 양양 강현면이 인접한 농토를 가지고 있고, 과거에 행정구역상 양양군에 속초지역이 속했던 이유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속초는 또한 실항민의 고장이며 수산도시이므로 수산노동요도 해안권의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어로방식의 변화로 가창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다만 청호동 지역에는 함경도 피난민의 뱃소리가 남아 있는 것은 함경방언과 마찬가지로 소리권의 독자적인 섬으로 남은 독특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도문메나리 농요는 2003년 6월 16일 양구에서 개최된 제20회 강원도 민속예술축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소리의 원형과 전통성을 인정받았으며, 2004년 10월 14일 동해에서 개최되는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강원도를 대표하여 참가하게 되었다.

(1) 농산노동요

속초지방은 바다를 끼고 있어 뱃소리가 발달하였지만 설악산 산자락을 중심으로 한 도문평야와 조양평야에는 일찍부터 농사가 발달하였다. 봄을 맞이하여 산과 들이 화려하게 피어날 때 농촌에서는 집집마다 농기구를 손질하면서 농사일을 준비한다.

예전에는 농사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꾼들을 배불리 먹이며 질을 짜서 농사일을 시작하였다.

못자리를 심고 논을 가는데, 흔히 소 두 마리로 가는 경우 '한스레'라 하여 큰 스투를 소에 걸여 사용하고, 소 한 마리로 갈 때는 '쪽스레'라 하여 조금 작은 스투를 사용한다. 이때 부르는 소리가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는 논삶는 소리다.

도문메나리는 강원도 농산노동요로서 김매기 소리로 전승되는데 춘천, 삼척, 양양, 속

초 일대에 전승된다. 속초 도문동에 전승되는 도문메나리는 양양메나리조와 유사하고 삼척메나리와는 다르다. 농민들이 3~4명 짝을 지어 '질'을 짜서 김매기를 하면서 노동의 고달픔을 소리로 달래던 농요로서 고유한 가락과 멋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다. 아울러 소리의 유장함과 곡조 등으로 미루어 불교적 색채가 배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속초 메아리는 삼척이나 양양 메나리와 같은 계통이면서 전파적 영향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간불교문화적 영향하에서 신라불교의 본산지인 신흥사와 인접한 지역으로 염불이나 범패소리를 닮고 있음도 흥미로운 일이다.

농사의 진행상 가을 추수를 할 때에도 다른 농촌처럼 소리가 있다. 벼베는 소리다. 벼를 베어 놓은 후 벼단을 가지런히 세운다.

자 때려라/ 저- 호- 저- 호-
 자 넘어간다
 자- 소리 맞춰서 때려야지
 도리깨 싸움이 안 나갑니다.
 자- 자- / 아호-어- 허- 요- 호
 넘어가다 자 아래도리깨 있으면 잘 쳐요
 벼 나갑니다 벼 나가지 않게 잘 때려요.
 넘어간다 넘어간다 빗가리가 넘어간다
 에호에호에에이 에호
 넘어가네 넘어가네 빗사리가 넘어가네
 에호에호에에이 에호
 손 맞춰서 부쳐주오 잘못하며
 부채질쌘 나요
 에호에호에에이 에호

에호에호에에이에호
에호에호에에이에호

(2) 수산노동요

속초 민요의 특징으로 가장 대표적인 소리는 수산노동요인 뱃소리다. 이번 조사에서 뱃소리를 많이 채록하지 못하였으나 돛배(풍선배)라는 무동력선으로 조업을 할 때는 소리의 전승이 가능하였다. 이 경우에는 힘든 노동이 많이 가미되므로 다양한 뱃소리가 불려졌는데, 요즘은 잘 불려지지 않았다.

더구나 어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대부분이 젊은층으로 뱃소리를 부른 연령층이 아니다. 동명항에서 만난 김갑용 씨는 연세가 79살이었으나 뱃소리를 잘 알지 못하였다. 더구나 뱃소리를 잘하는 분들이 세상을 달리하여 채록이 더욱 힘들었다.

채록된 뱃소리는 놀배기소리(노젓는소리)로는 '으샤으샤'(대포동 김병국), '어야디여'(동명동 최재운, 영랑동 김갑용), '에라소가래라소'(장사동 김현배) 등이 있다. 1945년 이전에 일본 배들은 '어여차 디야'(김갑용 증언)라 하였다. 산대소리는 그물에 고기가 가득 들었으니 산대로 고기를 푸라는 소리다. '가래라소' 혹은 '에라소 가래로다' 등으로 부른다. 길게 할 적에는 사설을 집어넣어 가사를 만든다. 그물당기는 소리는 요즘은 '어샤어샤'를 많이 쓰나 과거엔 '당겨보자 어야디여'를 즐겨 썼다고 한다.

또 그물에 고기가 많이 걸리면 '푸름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많다'라는 말이나 '또' 등의 말들은 쓰지 않는다. '다리어 내자'는 함

경도에서 그물을 당기는 소리라고도 하나 속초지방에서도 많이 쓰였다고 한다. 아마도 소리가 서로 넘나들어 서로가 영향을 교류한 예가 아닌가 생각한다.

장사동에서는 고기그물 당길 때 '에이산자'라는 후렴도 사용을 한다. 든대질소리는 '자-자'하고 소리한다. 단순한 가사지만 힘을 써야 할 때를 잘 알려준다. '자'라고 소리할 때마다 힘을 불끈불끈 주어 배를 나아가게 한다. 든대질이란 '설망' 즉 진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배를 옮기는 과정에 부르는 소리다. 이 과정에 아래 예문 ⑥처럼 다양한 사설이 들어간다.

속초 지방의 뱃소리를 보면, 다양한 사설을 가진 여러 소리가 있는데 지어소리, 다리어소리, 그물 당기는 소리, 선대소리, 베끼소리 등이 채록되었다. 지어소리는 배가 항해할 때 노젓는 소리로 2/2박자의 경쾌하면서도 애조를 띠는데 허리도리가 선창을 하면 나머지 어부들이 후렴을 부른다. 다리어소리는 그물 당기는 소리로 4/4박자의 전형적인 뱃소리로 매우 빠른 가락이고 역시 선후창으로 부른다.

대포동 그물당기는 소리는 정치망 그물 당길 때 멀리서부터 차츰 그물을 돌우고 죄여 가면 그물 속에 들어와 있던 고기들이 떠오르는데 이를 배에 퍼 담아 올 때 부르는 소리다. 대포동 산대소리는 고기를 퍼 올리면서 처음에는 '어이어이'하면서 서로 숨을 맞춰가지고 '야이야이'로 들어간다.

노래는 제창으로 주요 구성음 라/솔/미/도이고 레는 미에서 도로 가는 도중의 경과음으로 쓰고 있는데 시는 장식음이다. 리듬은

규칙적인 4박자라고 한다. 그물에 걸린 고기를 베낄 때 부르는 소리는 가장 경쾌하고 사설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고, 어부들도 가장 신명이 나는 소리다. 교창 형식은 뒷소리가 끝나기 전에 앞소리가 들어가는 형식이다.

든대질소리는 속초의 뱃소리인 지어소리, 다리어소리, 베끼소리, 산대소리(가래소리)와 같이 몇 소절을 제외하고는 정형은 없고 사설이 여러 가지 삽입되고 있다.

속초지방에서는 배를 바다로 옮기는 재래식 이동방식으로 든대질을 하는데, 든대는 참나무나 소나무로 만들어 배를 들어올릴 수 있는 지렛대와 같은 긴 막대리를 말한다. 든대는 ‘드는데’라는 뜻으로 볼 수 있고 질은 행위를 뜻하는 짓과 같은 말이라고 하겠다. 든대는 받쳐주는 받침대를 ‘계’라 하는데 ‘고인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가사를 보면, 뱃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지문도 있고, 또 뱃사람이 아니어도 알 수 있는 지문도 있다. 아래 예문 ①~⑦은 뱃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예문들이다.

‘다리어’, ‘에라솔 가래라솔’, ‘베끼어라 보자’ 등의 후렴도 농촌지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특히 ⑥의 예문은 이 지역 뱃사람들의 행동반경을 알 수 있는데, 남쪽 삼척 앞 바다에서부터 강릉, 양양, 간성, 장전 앞 바다를 거쳐 위로는 함경도 원산 앞 바다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여러 바다 일과 관련된 정보와 소리들이 공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이 소리는 든대소리 뿐만 아니라 산대소리에도 응용되고 있음을 봐서는 다른 여러 소리에도 가창자 능력에 따라 응용되었을 것이다.

예문 ⑦도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원산내기 바람이 뱃사람이 두려워하는 바람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동명동 최재운 씨도 셋바람이라고 부르는 원산내기 바람이 가장 무섭고, 다음이 내바람 즉 하늬바람이라고 하면서 맞바람 즉 마파람은 상대적으로 대응하기가 용이한 바람이라고 한다.

예문 ⑤에서는 뱃사람이 고기를 잡은 후 어떤 순서로 고기를 나눠 갖는가를 미루어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대포동(외옹치)의 김병국 씨에 의하면 명태바리는 선장, 기관장, 낚시사공, 선원이 있어서 잡은 고기를 선장 집반, 기관장 집반, 낚시사공이 삼부, 선원들은 일부를 나눈다고 한다.

- ① 니가 내가 어찌하든 다리어
힘을 쓰고 용을 써라 다리어
〈다리어소리〉
- ② 앞발은 버티고 어야 뒤로 자빠져 어야
눌지말고 어야 부쩍부쩍 어야
당겨 주게 어야
어야어야어야어야
〈다리어소리〉
- ③ 우리먹고 살라고 에라솔 가래라솔
고기디리 밀어줬다 에라솔 가래라솔
〈가래소리〉
- ④ 저손질이 저리구 에라벗기고 보자
소년고생을 안하겠나에라 벗기고 보자
〈베끼소리〉

⑤ 이번산대는 용왕님 산대
 예라소 가래로구나
 이번산대는 선주님 산대요
 예라소 가래로구나
 이번산대는 망주님 산대요
 예라소 가래로구나
 다음산대는 사공님 산대요
 예라소 가래로구나 < 산대소리 >

⑥ 강릉앞바다를 떠나고 보니
 양양앞바다가 나서는구나
 양양하면 낙산사요
 양양바다를 떠나가보니
 간성앞바다가 나서는구나
 간성하면 청간정이요
 청간정을 지내고보니
 장전앞바다가 나서는구나
 < 든대소리 >

⑦ 이럴적에 기운을 내고 베끼어라 보자
 이럴적에 용기를 써라 베끼어라 보자
 원산내기 찬바람은 베끼어라 보자
 취한 술이 절로 깬다 베끼어라 보자
 설악산 내기 찬바람은 베끼어라 보자
 손발 시려서 못살겠네 베끼어라 보자
 < 베끼소리 >

이처럼 뱃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예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농촌, 산촌 등 일반적으로 널리 불려졌던 가사도 뱃소리에 녹아들었다. 아래의 예문 ⑧~⑫는 아라리, 미나리, 노랫가락, 지경다지기 등에서도 불려지는 가사다. 이런 보편적인 가사에 뱃소리 특유의 후렴을 붙여 부르면 뱃소리가 된다.

⑧ 세월아 네월아 가지를 말아라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알뜰한 청춘이 다 늙어간다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 지어소리 >

⑨ 삼수갑산 딱다구리는
 예라소 가래로다
 참나무 구멍을 뚫는데
 예라소 가래로다
 우리 저 멧팅구리는
 예라소 가래로다
 뚫린 지 구멍도 못 뚫는다
 예라소 가래로다
 < 산대소리 >

⑩ 명사십리 해당화야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꽃이진다 설워마라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래자
 명년 춘삼월 호시절에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래자
 앞이 피고 꽃이 핀다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래자
 < 지어소리 >

⑪ 간다간다 나는간다 다리어라내자
 임을두고 나는가네 다리어라내자
 내가가면 아주가나 다리어라내자
 아주간다고 잇을쏘냐 다리어라내자
 < 다리어소리 >

⑫ 아들을 나면 효자나고 베끼어라 보자
 딸이나면 열려나고 베끼어라 보자
 소가나면 특소나고 베끼어라 보자

닭이나면 봉황나고 베끼어라 보자
 개가나면 삽살개고 베끼어라 보자
 말이나면 옹마로다 베끼어라 보자
 <베끼소리>

(3) 유희요

아라리는 속초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속초에서도 아라리는 도처에서 불려진다.

속초지방에서는 아라리와 가사는 같아도 곡조는 어랑타령의 곡조로 불려지고, 뱃노래, 청춘가의 곡조로도 불려진다. 다음은 그 예이다.

- ① 산천초목이 불붙은건 소방서나 끄지요 /
 요내가슴 불붙은건 어느 대장부가 끄느냐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더허야니가
 내사령아 - 최월선(영랑동)
- ② 산이나 높아야 골이야 깊지요 /
 조꼬만 여자 속이야 뭐그리 깊을소냐
 어기야 디여차어이야 디야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 김순녀(도문동)
- ③ 울너머 담너머 끝베는 총각아 /
 눈치가 있거랑은 외 받아먹어라
 에야노 야노야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 김순녀(도문동)
- ④ 산이 높아야 골골이 짚지요 /
 죄꼬만(조그만) 여자속이 얼마나 깊느냐
 - 차종용(노학동)

①은 어랑타령 ②, ③은 뱃노래 ④는 청춘가이다. 그러나 그 가사는 아라리 곡조로 불려진다.

속초에서는 강원도 어느 산골과는 달리 아라리의 절절한 한이 많이 감소되어 있다.

그것은 그만큼 노래의 곡조가 어랑타령, 뱃노래처럼 흥겨운 곡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흥겨운 곡조는 필연적으로 놀이를 동반하고 또 유희적 상황에서 불려졌을 것이다. 가창자 대부분이 장구를 즐겨 치는 분들이다.

삼월 삼짱날 화전놀이를 가거나, 농사일을 끝내고 호미씻이를 하거나 그외 여러 행사 때 많이 불려져서 농촌에서 불려지는 아라리와 차이가 생겼으며, 가사는 슬픈데 흥겨움으로 끝난다. 다음은 그런 몇 가지 예이다.

- ⑤ 간다못간다 얼마나 울었던지 /
 정거정 대합실에 한강수 되었네
 에야노 야노야에야노 야노 거기나
 여차뱃놀이 가잔다 - 김영애(동명동)
- ⑥ 물거(물각)는 유주는 임자가 있건만 /
 요내몸은 엇지하여 임자가 없나
 어랑어랑 어허야 에헤야 등등 대한에
 독립이 왔구나 - 박계량(도문동)

이런 흥겨움은 아라리, 어랑타령, 뿐만 아니라 여러 동작유희요에서도 보여진다. 대표적인 유희요로 가장 많이 채록된 것이 다리뽕기이다. 다음은 그 몇 가지 예이다.

- ⑦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
천두 만두 두만두 / 짹 발레 회양주
- 전기춘(도문동)
- ⑧ 한알개 두알개 / 삼사너구리 /
똥개 망개 / 참낭그 지계통 /
고불통 내아들 - 남북우(장사동)
- ⑨ 재짱 개짱 / 쇠스레 녀장 / 콩죽 팔죽 /
얻어 먹었니 / 못얻어 먹었니 / 사마 /
지공 - 김정수(도문동)
- ⑩ 이똥 저똥 행기똥 / 지 할미 곱새 똥
- 김옥진(영랑동) 김영애(동명동)
김윤문(영랑동)
- ⑪ 이원 지원 / 가매 꼬지
- 박계량(도문동)
- ⑫ 이거리 저거리 갖고리 /
심지 망근 도망근 / 짹 바리 호양강 /
도루메 장치 장두개 / 모개 발에 작서리 /
동 지 선 달 / 대서리 - 이응숙(대포동)
- ⑬ 왕그리 땡그리 / 죄가 재촉 /
오리 고이기 / 먹으나 못먹으나 /
죄가 때꿈 - 차종용(노학동)
- ⑭ 왕그리 땡그리 / 삼사 똥개 망개 /
참나물 등거리 / 고등어 째지 / 죄가 때꿈
- 최종용(노학동)

리를 뺏어놓고 여럿이 다리를 서로 집어넣은 후 이 소리를 하면서 다리를 하나씩 친다.

한쪽 다리를 칠 때마다 한 소리씩 하면서 치다보면 필경 마지막 소리에 걸리는 다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다리를 구부려놓고 다시 남은 다리를 대상으로 하여 또 이 소리를 한다.

그런데 이 소리들은 여성 가창자에게 채록이 되었으나 ⑩의 예는 남성 가창자(대포동 김병국)에게서도 채록이 되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다리를 치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럿이 모여 있을 경우 방귀 냄새가 나면 이 소리를 하면서 한 사람씩 지명하여 마지막에 걸린 사람이 방귀핀 놈이라 하며 웃었다고 한다. 이러한 유희요로서 춘향이 놀이를 또 들수 있다.

여럿이 모여 한사람을 지목하여 손바닥을 마주치게 한 후 춘향이 소리를 하면 차츰 마주 대었던 손바닥이 차츰차츰 벌어지면, 그 후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신들린 듯 춤을 추게 된다고 한다. 다음은 도문동에서 채록한 춘향이 소리다.

- ⑮ (손바닥을 모으고)
양골양골 춘향이 아가씨 /
이도령님 만났을 때
종글종글 내리시오 /
생일은 사월 초파일날이요
슬슬 내리시오 슬슬 내리시오 /
양골양골 춘향이 아가씨
- 박선춘(도문동)

위에서 많은 예를 들었는데 그만큼 많은 이들이 즐겼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다

도문메나리 농요의 전승과 특징

이 한 길(강릉대 강사)

1. 들어가는 말
2. 도문메나리 농요의 전승과정
3. 도문메나리 농요의 전승내용
4. 도문메나리 농요의 특징
5. 끝내는 말

1. 들어가는 말

농요란 농촌에서 논밭 일을 하면서 부르는 소리다. 농사를 지으면서 노동의 힘겨움을 이겨내기 위해 다양한 소리를 하는데, 특히 김을 매면서 소리를 중부지방에서는 메나리라고 한다. 이 메나리는 미노리, 미나리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려진다. 메나리는 여러 선학들에 의해 연구되었는데, 최근에 장정룡, 강등학, 김영운 등이 영동지방의 메나리에 대해 다양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도문동의 메나리는 소리의 유장함과 곡조 등으로 미루어 불교적 색채가 배어있는 범패 소리와도 비슷한 유형이라고 여겨진다.

아시다시피 도문동은 설악산을 들어가는 관문으로, 이는 아마도 이 지역의 인근에 절이 많이 있어서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

사실 메나리의 가창자들은 도문동과 이웃한 양양 상복리에도 많이 있다. 이곳은 도문동과는 평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이웃하고 있다. 그래서 양양 상복리의 메나리를 보면 도문동의 메나리의 특색을 더욱 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 도문 메나리 농요의 전승 과정

도문동의 메나리 농요는 사실 그 근원은 오래되었다. 김남형 옹은(남·81세, 도문동 거주) 양양에서 태어나 도문동에서 장가들어 이곳에서 생업을 일켰다. 이분은 메나리를 이곳에 장가온 이후 처외숙 되는 故오세준,

故박남식 등에게서 배웠다. 당시 김남형은 19살이었고, 오세준은 50여 세가 넘었다고 한다. 사실 메나리 가사를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듣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더욱 배우기가 쉽지 않았는데, 박남식이란 분은 가사를 아주 또박또박하게 말을 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한다.

당시 양양 방면 논을 하서평이라고 불렀는데, - 이곳을 장재터라고도 부른다 - 이곳 도문뜰에서 메나리 소리를 하면 양양 쪽에서도 그 소리를 받아 듣고 메나리 소리로 화답을 했다고 한다. 서로가 소리가 들릴 만큼 메나리 소리가 우렁찼었고, 당시 유행했었던 소리임을 알 수 있다.

모가 아직 어릴때, 즉 아이짐(초벌 김)을 맬 때에는 메나리는 하지 않았다. 약한 벼가 무너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벌 김을 맬 때부터 메나리를 했다. 네벌 김을 할 때도 있었지만 보통은 세벌 김을 매니까 두번 정도 김을 맬 때마다 메나리를 불렀다고 할 수 있다.

메나리는 보통 여럿이 부르는데, 소리를 매기는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 소리를 매기면 나머지 일꾼들은 따라서 메나리를 부른다. 그런데 메나리라는 것이 보기와는 달리 상당히 어려운 소리여서 누구나 쉽게 따라하지는 못했다. 나름대로 음악성이 있어야만 따라 부를 수 있는 소리였다.

김 맬 때는 삼베적삼을 대체로 입었는데 머리에 수건은 같은 것은 매지 않은 것으로 김남형 옹은 증언한다. 삼베적삼을 입고 팔다리는 시원하게 걸고 김을 매었다.

그러나 기계화 영농으로 삶은 윤택해졌지

만 우리의 고유한 소리는 차츰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2000년대 들어와 『강원의 민요』를 편집하던 중 속초에서 이 메나리가 발굴되었다. 이후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문동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농요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논삶는 소리, 모찌는 소리, 모심는 소리, 메나리소리, 벼베는 소리, 도리깨질하는 소리, 벗가리지우는 소리 등 수많은 소리가 채록되면서 아직도 이 지역에 옛 소리의 전통이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속초문화원의 협조를 얻어 도문 메나리 농요의 발굴이 시작되었고, 2003년 제20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여 <도문 메나리농요>로 참가하여 종합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필자는 지도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기도 하였다.

3. 도문메나리 농요의 전승 내용

도문동 마을은 예전부터 농악이 있어서 정초가 되면 지신을 집집마다 찾아가 지신도 밭아주고 또 마을의 중요행사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마을의 단합을 꾀하였다. 지금도 마을의 그런 전통이 이어져 주민자치위원회를 여타 동리보다 더 알차게 운영하고 있다.

당시 농기에는 - 이 지역에서는 농상기라고도 불렀다. - 하얀 광목에 「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한자로 쓰고 붉은 수술(까치발)을 달았다. 위에는 수평의 깃털로 장식했는데 분량은 다른 마을보다도 풍성하게 보이려고 평 두 마리 분량을 사용했다. 이를 평장목이라고 불렀다.

1) 첫째 마당 : 서낭굿

첫째 마당은 서낭굿으로 시작한다. 한해의 풍년을 빌기 위해서 정초가 되면 마을 사람들은 성황당에 모여 제사를 올린다. 이때 성황당에 모여 성황님께 '서낭서낭 서낭님 동네 밖의 서낭님...'이라는 서낭굿을 치는데, 이를 작품화하여 신목과 서낭대를 농악대원들이 둥그렇게 원형을 그리며 감싼 후 절을 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마을 주민들이 정성껏 인사를 드리면 성황님은 마을주민들의 정성을 가루하게 받으시어 응감을 한다. 신목이 으스스 소리를 내며 떨리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 서낭굿이 끝나면 상쇠는 농악대를 이끌고 이동하여 다음 마당을 준비한다.

다음은 당시 사용한 서낭쇠 사설이다.

아하

모십시다 모십시다 성황님을 모십시다.
성황성황성황님 강원도라 속초시의
설악산의 정기가 내려뻗은 도문동의
성황님을 모셔놓고 금년농사 잘되기를
축원~~하옵니다.

물 없는 논에 물을 주시고
오곡을 가득 점지해주시고
마을에 만복이 가득하기를
성황님께 비웁니다. 성황님께 비웁니다.

2) 둘째 마당 : 논삶는 소리

봄이 오면 농촌은 농사 준비로 분주해진다. 논도 삶아야 하고 모도 준비해야 한다. 도문

동은 농사철에 부르는 농요가 풍부하게 전해진다. 이때부터 이 마을에서는 농사와 더불어 소리도 시작이 된다.

논삶는 소리는 흔히 소모는 소리로 알려져 있는데, 도문동에서는 주로 한스레로 농사를 지었다. 한스레는 소 두 마리가 끄는 스투인데, 보통은 일 잘 하는 소를 바른쪽에 세운다. 소 뒤에는 번지를 매달고 논을 간다.

혹소한 미리로, 즉 쪽스레로 논을 가는 경우도 있었다. 논을 갈 때 이 때 다양한 소리가 전해진다. 대체로 유장한 가락에 느긋한 심성이 표현된 이 소리는 소리를 다 몰고 끝이 날 때는 통칭 '~와'로 끝마무리를 한다. 논삶는 소리는 가장자에 따라 또 소를 모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소리가 나올 수 있다.

※ 소모는 소리

이러이러
 어디야 이~ 이~
 이 큰암소야 어정거리지말고야~ 이이
 제곶으로만 찾아들러라
 이러이러 헤이 이~
 어둬 어디야~ 이 오르내리지 말구야
 어디 얼릉 얼릉가자
 이러이러 이이
 화채봉에 해는야 올라섰는데 한눈팔지
 말고 가자
 이러이러 이이~ 어둬 어디야이이~
 점심참이야 늦어가니
 우리도 얼릉하고 말세
 이러이러 이이~ 어둬
 쇠머리에 모춤 올라앉겠구나 얼릉얼릉
 짹짹가자
 이러이러 어~ 어둬

일락서산에 해는 떨어지고 어서 가자
 이러이러 이~ 어둬
 와와

소가 제 길을 잘 찾아 제 골로 가다가도 어떤 때는 소가 성이 났는지 제 골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갈 때도 있다. 이럴 때 소모는 이가 - 소모는 이를 이 지역에서는 성군이라고 한다. - 고삐를 조정하며 소를 달래기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상황을 상징하여 작품화하였다.

가령 한스레이므로 두 마리 소가 서로 몸을 비비며 장난을 하거나, 또 잘 가던 소가 갑자기 가지를 앓고 성군을 골탕을 먹인다던가 등등 여러 가지 경우를 작품 속에 담아내었다.

논을 갈고 삶으면서 한편으로는 모를 찢는다. 이때 모를 찢 때 또한 소리를 한다. 흔히 한춤소리라 알려진 것인데, 도문동의 모찌는 소리는 다음과 같다.

※모찌는 소리

A : 얼른 하더라니 한 춤
 B : 아으 얼른 하더니 나도 또 한춤
 C : 너만 한춤이야 나도 또 나간다
 A : 얼른 하더니 또 한춤
 B : 나도 또 한춤 나간다.
 C : 얼른 하더니 나도 또 한춤
 A : 야 너 한춤이면 곱실곱실 하더니야 또 한춤

편의상 A, B, C 라고 구분을 했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 몇 명이 참가하는 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때 한춤이라는 것은 모를

묶어 놓은 것을 말한다. 한 사람이 '얼른 하더니 한춤'이라고 소리를 하면서 모를 집어 던지면 다른 사람이 받아서 또 소리를 하면서 모를 한 춤 집어던진다. 이때 흥겹고 신나게 부르는 소리가 바로 모찌는 소리다.

당시 마을에는 좌상이 있어서 농사가 시작되면 모든 것을 감독했다. 질을 - 이 마을에서는 질레라고 하기도 한다. - 짜면서 농사가 시작되면 혹 늦게 오거나 안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할 분량을 남겼었다가 그 사람이 하게 하는데, 혹 늦게 오거나 안 온 사람을 꽤 씩하게 여겨 더 많은 분량을 남겨놓을 때도 있었다.

대체로 좌상은 나이 드신분이 맡아서 하셨는데 일도 같이 하였다. 당시 농기를 든 패들은 남들보다 항상 먼저 나가 농토에다가 꽂아놓고 모를 찼다. 모를 다 찌고 들어올 때도 농기를 앞세우고 농악을 울리면서 들어왔다.

3) 셋째 마당 : 모심는 소리

논을 다 삶으면 곧바로 모를 심는다. 이때 '심어주게~'로 시작되는 모심는 소리를 흥겨운 가락에 맞춰 부르는데, 이 소리 외에도 아리랑, 어랑타령 등 다양한 소리가 모심을 때 들려졌다. 대체로 모심는 소리는 강릉, 양양, 평창 등지에서 들려지는 소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가락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신이 날 때에는 빠르게도 부르다가 또 오후 들어 힘이 들 때에는 천천히 부르기도 한다.

※모심는 소리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 주게
오종종 줄모를야 심어를 주게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 주게
바다같은 요논배미 심어를 주게

늦어가네 늦어가네 늦어를 가네
어느새 점심참이 늦어가네

늦어가네 늦어가네 늦어를 가네
정든님방 들시간이 늦어가네

4) 넷째 마당 : 김매는 소리

김매는 소리를 메나리라고 한다. 두벌김을 맬 때부터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이 힘에 부친다. 이때부터 메나리가 불려지는데, 소리를 잘하는 농부가 앞소절을 선창을 하면 나머지 농부들이 뒷소절을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메나리는 삼척권과는 달리 영북지방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소리로서 하루 중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가사가 변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 소리에 관한 자세한 고찰은 본고 4장 '도문메나리 농요의 특징'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5) 다섯째 마당 : 질 먹기

농촌에서는 세벌 김을 매고 나면 마을주민들이 하루 낱자를 정하여 잔치를 연다. 이것을 이 마을에서는 질을 먹는다라고 한다. 이 마당은 이를 표현한 것으로 주민들이 삼삼오오 앉아서 저마다 흥겹게 노는 마당이다. 여기저기 용기종기 모여 앉아 저마다 장기 자

량도 하고 여인들은 함지를 이고 술상을 들고 분주히 오고가는 쾌활한 농촌의 하루 풍경을 그려내었다.

6) 여섯째 마당 : 벼베는 소리

한해 농사가 풍년이다. 농부들이 논에 나가 벼를 베면서 소리를 한다. 이 소리를 달리 '한단소리' 라고도 하는데, 벼를 베어 넘기며 '~한단' 이란 구절이 들어가는데에서 그 이름이 유래한다.

※벼베는 소리

흙칭흙칭 하더니 하안단(한단)
너두 한단이면은 나도 또 하안단
얼른 흙쳐흙쳐 하더니
너만 한단이야나도 또 한단 나간다

벼를 베어 놓으면 한편에서는 벼단을 가지고 벼를 세운다. 여기서는 벼를 스무 단을 한 타래라고 하는데, 이때도 소리를 한다. 벼를 베고 한편에서는 벼단을 세운다.

이번에 출판한 작품은 여기까지 형상화했으나 이하 과정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보여주지 않았다.

※벼단세우는 소리

한단이로구나, 두단이로구나
석단하니 또 낙단이로구나
다섯여섯단하고 일곱
여덟단에 아홉단 열단이로구나
열한단 열둘 열석단 열낙단이로구나

열다섯단 열여섯단
열일곱단 열여덟단
열 아홉단에 스무단
한 타래 세웠습니다
한 타래 더 세울까요
더 세우려면 더 세웁니다
한단이로구나 두단이로구나
석단 낙단 다섯여섯단하니
일곱단이로구나
여덟단 아홉 열 열한단에 열둘
열석단에 열낙단이요
열다섯 열여섯단 열일곱단에
열여덟단 열아홉단 스무단
두 타래 세웠습니다

벼단을 세우면 농촌은 한 해를 마무리하기 시작한다. 벼를 털어 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마명이 한다고 한다. 태돌(태상이라고도 한다)에 쳐서 떨어진 벼 낱알을 다시 도리깨로 치면서 탈곡을 한다. 태돌이란 널찍한 돌맹이를 구해 놓고 사용을 했다.

도리깨는 보통 기능에 따라 상도리깨와 하도리깨로 구분하는데, 이때 상도리깨는 세로로 서서 먼저 치는 도리깨이고, 상도리깨가 치면 가로로 서 있는 여러 명의 하도리깨가 뒤를 받아친다. 이때도 물론 소리를 했다.

※상도리깨소리

자 때려라
저- 호- 저- 호-
저 넘어간다
자-
소리 맞춰서 때려야지 도리깨 사움이
안 나갑시다

자- 자-

아흐- 어- 허- 요- 호

넘어간다 자아랫도리께 있으면 잘 쳐요
베 나갑니다베 나가지 않게 잘 때려요.

탈곡을 하여 벧가리가 이 만큼 모아 있으면
한 편에 짚으로 동그랗게 또바리를 만들어
놓고 부채질을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하면서
벧가래를 지운다.

이때도 소리를 하는데 선창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후렴을 받아한다.

※벧가리지우는 소리

자 베를 지우러 시작합시다
술 한잔씩 먹었으니까
자 여기다 또바리 해 놓았어요
자 한번 넘어가
또 가듬에 이쪽으로 넘어가
십오는 넘겨야 하는데
부채질을 췌게 아이 하면은
세 번에도 또 잘 아니 됩니다
또 지워야 되요
부채질을 손 맞춰 잘해야 합니다.

넘어간다 넘어간다 벧가리가 넘어간다

후렴 :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넘어가네 넘어가네 벧가리가 넘어가네

후렴 :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손 맞춰서 부쳐주오 잘못하며

부채질쌘 나요

후렴 :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후렴 :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또바리가 나왔어요.

한번 넘어갔습니다.

또바리 일장 받아 또 넣으니까

한번 더 넘게야 되요

이번엔 잘 줌 부쳐줘요.

췌게 안부치면 또 부쳐야하니깐

괜히 여러 번 헛수고 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후렴 :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벧가리를 지운다는 것은 먼지를 날린다는
것이다. 온 종일 탈곡을 하여 모아 놓은 것을
다시 한번 더 까부면서 먼지를 털어 내는 작
업이다. 가래를 들고 퍼 올리면 키를 가지고
털어 내는 작업이다. 가래를 든 이나 키를 든
이나 서로 사인이 잘 맞아야 한다. 이렇게 털
어 낸 벧 낱알을 삼태기로 - 여기에서는 산대
미라 한다 - 퍼 곳간으로 보내는데, 여럿이
모여 작업을 할 때는 일렬로 서서 삼태기를
건네주면서 운반하기도 한다.

온종일 탈곡을 하고 나면 벧 꺼풀이 여기저
기 달라붙는다. 이를 꺼끄랭이라고 여기서는
부르는데, 이를 없애기 위해 황덕불을 해놓
고 불에다가 옷을 벗어 흔든다.

그러면 불에 빠꺼끄랭이가 타버리면서 옷
에서 잘 떨어진다.

7) 일곱째 마당 : 황덕굿

풍년이다.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우선
헛곡으로 조상에게 차례를 올리고 마을주민
들이 모여 흥겹게 노는 마당을 표현했다. 이
마당의 특징은 아무런 형태 없이 자유롭게
논다는 것이다. 차례를 올릴 때 축문은 다음

과 같고 제관은 좌상이 담당했다.

※ 祝文

維 歲次 癸未年 八月 보름 祭官 최선준
敢昭告于
江原道 東草市 上道門洞
雨順風調 時和年豐 五穀豐登 六畜繁盛
災殃消滅 祝願祈禱 酒果脯醢 明薦歆格
尙 饗

4. 도문메나리 농요의 특징

도문메나리 농요는 김을 맬 때 부르는 소리인데, 여타 농요와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정적이며 구성진 가락을 지니고 있다. 이 메나리 소리는 주로 오전에 부르는데 시조창법하고도 유사하지만, 그 그윽하면서도 우렁찬 맛은 여타 농요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 있다. 이는 아마도 인근 사찰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짐작한다.

사실을 김을 매는 하루의 일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한다. 처음에는 김매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가사이다. 이후 점심때가 되니 점심참을 먹자 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그 외 삶의 여러 모습들도 그 가사 속에 담아내고 있다. 예를 들어 녹수청산 흐르는 물에 배추 씻는 처녀가 등장하고 명사십리 해당화가 등장한다.

사실 메나리의 가사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다. 가창자가 자기 스스로 지어 불러도 무방하다. 다만 아래 인용한 가사는 농부들이 즐겨 애창했던 가사이기에 나름대로 농부의 애환을 잘 표현한 것으로 짐작하여 적어 본

것이다.

매어나- 주- 게- 매어나- 주- 게-
요논-- 배- 미- 매어아어주- 오
산들산들 부는 바람 모시적삼
입고아어지고
시원한 벽중에 적삼입고 일을 하세

동해동창 솟은 해가 반공중에
높이아어뻗다
아침해가 높이떠서 점심때가 되었다네

지어나가네 지어나가네 점심참이
지어아어가네
지여간다 말만말고 요논배미 매어아어주게
잘도나하네 잘도나하네 총각대방 잘도
아어하네
녹수청산 흐르는 물에 배추씻는 저처녀야
속에속잎 절여두고 속에속잎 나를 주게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진다고 설워마라
꽃이지면 아주나지나 명년삼월 다시피지

김매기 소리는 사실 미나리와 동강소리로 구성된다. 나른한 오후에는 좀더 호흡이 짧은 동강소리를 하게된다.

점심참에 충분한 휴식을취했으므로 김을 세게 매주기 위해 메나리보다는 빠르고 경쾌한 가락으로 소리를 한다.

이게 동강소리이다. 물론 창법은 메나리와 비슷하다고 하지만,

아쉽게도 도문동에 동강소리는 맥이 끊겼다. 오순석(남·64) 씨도 예전에 들어본 기억은 있는데, 확실히 가사와 곡조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전한다. 인근 양양 상북리에는

아직도 메나리와 동강소리가 전해온다.

다음은 양양 상복리의 현전하는 메나리와 동강소리이다.

※미나리소리

심심하고 암암한데 질꾸내기
 불러아어주게
 매여주게 매어나주게 손을 세워
 매여아어주게
 이- 히-

산들산들 부는 바람 모시적삼
 입고아어지고
 모시적삼 입던몸에 삼베적삼
 웬말아어이나
 이- 히-

질꾸질삼 잘하는 여자 울릉발이
 태워아어주게
 질꾸질삼 못하는 여자매나쿵쿵
 때려아어주게
 이- 히-

※동강소리

동해동천 솟는 해는 반공중에 떠서있네
 연줄가네 연줄가네 저산너머 연줄가네
 이- 히-

그게어찌 연줄이나 우리부모 명줄이지
 해가져서 그늘졌나 산이 높아서 그늘졌지
 이- 히-

질꾸질삼 잘하는 여자 울릉바리 실어주소
 질꾸질삼 못하는 여자 매어나아어
 떼어주소

이슬아침 낙랑동무 헤어질 곳 몇해일새
우겨라우겨

위 양양의 메나리를 보면 4/4조의 음수율이 가능한 한 지켜지면서 특히 동강소리는 거의 철저히 지켜지면서 불리진다.

이에 반해 도문동 메나리는 위 밑줄 친 가)에서 보다 시피 4음보의 음수율을 내재적으로 지키려고 하나 표면적으로 가사에서 약간의 일탈이 엿보인다. 또한 후렴도 비교된다.

도문 메나리 농요는 후렴이 없다. 이에 반해 양양 메나리는 '이- 히-'라는 후렴이 있고, 동강소리도 물론 후렴구와 더불어 소리를 끝맺을 때는 '우겨라 우겨'라는 추임새로 끝을 맺는다. 이때 '우겨라 우겨라'하는 것은 논김을 다 매자는 뜻이다. 여름철 한창 퇴약별 아래에서 일을 하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기자는 뜻으로 하는 추임새다.

김을 맬 때는 처음에는 일렬 형태로 김을 매다 마지막 논배미에서 김을 맬 때에는 양쪽 끝에서는 '우겨라'하며 오무리면서 원형 형태로 김을 매면서 소리를 한다. 이때 '우겨라'라고 추임새를 넣는다.

김을 맬때 강릉은 오독떼기를 부른다.

속초/양양의 메나리가 강릉이 오독떼기라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가창방법, 음역, 리듬, 형식, 선율형, 음조직, 종지형, 가사 등은 상당히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강릉 아래 삼척은 속초/양양처럼 미노리라는 말을 쓴다. 다음은 삼척 지방의 미노리이다.

※삼척미노리

동해동천 솟는해야일모서산을넘어간다

이- 후-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진다고 설워마라
명년삼월 봄이오면 그 꽃도
또 다시 핀나이다

이- 후-
닭이우네 닭이우네 모시밭골에 닭이우네
거기에누가 닭이드냐 명산군에 임닭이세

이- 후-
이농사를 이리지어 누구하고 먹자드냐
방실방실 웃는님은 다먹어보고서
해가지오

이- 후-
사해중생 농부들아 인간신고 싫어마오
산너머공장 생긴후에 귀중하기가
농사로다

이- 후-
소가우네 소가우네고 고운넌 앞뜰에
소가우우
이- 후-

삼척의 미노리는 가사나 부르는 창법이 속초보다는 양양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가능하면 지키려고 한 4음보나, 또 '이-후-'라는 후렴구를 붙이는 것 등은 양양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나 소리의 톤(tone)을 보면 유장함이 도문메나리와도 유사한 점이 있다. 강등학은 삼척의 메나리 주요 음이 '라'와 '도'로써 선율은 이 주요 음을 바탕으로 오르고 내리는 양상을 보인다고 말하면서 메나리의 4마디가 각각 2마디씩 묶여 '라'로 시작하여, '도'로 올라가서 '미'나 '솔'로 내리는 흐름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도문메나리도 동일하다.(별지 악보 참조)

가사를 비교해 보면 '동해 동창 솟는해'라든지 '명사십리 해당화'라든지 동일한 가사도 엿보이고 또한 농촌임을 짐작케 주는 가사들이 많이 있다. 이왕에 농사일을 하면서 불려진 소리이므로 이는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바닷가 영동지방에 위치한 지리적 특징을 고려해 볼진대 바닷가와 관련 있는 구절이 거의 없는 것은 특이할 만하다.

길쌈도 하고 닭도 키우고 소가 등장하고 이런 농촌의 풍경이 양양과 삼척의 메나리에는 잘 드러나 있는데 반하여, 속초 도문동의 메나리에는 이런 세밀한 지문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아마도 이것 또한 사찰이 많은 도문동의 지리적 특징과 관련이 있지는 않나 짐작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고찰은 후일로 미룬다.

가창방법을 보면 속초나 양양이나 비슷하다. 앞 소절은 선창자가 부르고, 나머지 3개의 소절은 모두 함께 부른다. '매어나주께'를 선창자가 부르면 나머지 3소절은 나머지 분들이 부르는 식이다. 농요가 집단요로서 공동체의식을 고양하기에 가장 좋은 이유가 이런 점에서도 발견이 된다. 함께 하는 노동요로서 주민들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상부상조하는 풍속을 키울 수가 있었던 것이다.

5. 끝내는 말

속초시 도문동은 설악산을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한 마을로서 현재는 반은 농사를 짓고 반은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마을이다. 주민들이 차츰 고령화되어 가고 있지만 옛날부터 뿌리내린 토착민이 많아 지금도 전통문화가 상당히 많이 보존되고 있다.

속초 도천메나리(논매는소리)

♩ = 38 실음은 9도아래 노래: 김남형, 채보: 김해정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eight staves of music in a single system. Each staff contains a melodic line with lyrics written below it. The lyrics are: 매 여 나, 주 게, 매 여나 으, 에 에, 주 게 해, 요 깎, 배 미, 매 여 아 으 주, 동 해.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treble clefs, notes, rests, and slurs. There are also triplets indicated by a '3' above the notes.

매 여 나
 주 게
 매 여나 으 에 에
 주 게 해
 요 깎
 배 미
 매 여 아 으 주
 동 해

둥 창
 솟 은 으
 해 가 이
 반 공
 중 에
 숲 이 이 아 어 3 몇 다

This musical score consists of six staves of music in treble clef.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the notes. The melody features various rhythmic patterns, including eighth and sixteenth notes, and rests. A triplet of eighth notes is marked with a '3' and a bracket. The piece concludes with a double bar line.

2002년 이곳에서 필자는 논삶는 소리, 모찌는 소리, 김매는 소리(메나리), 벼베는 소리, 벼단세우는 소리, 상도리깨질하는 소리, 벼가리지우는 소리 등 농요뿐만 아니라 아리랑, 어랑타령, 시집살이요, 등계소리, 주머니타령, 담바구타령, 다복녀, 지경다지는 소리, 비들기흥내내는 소리, 천자풀이 등 수많은 소리를 채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창자들의 고령화로 앞길을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다행히 제20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도문동 농요가 속초시 대표로 출전하는 기회를 얻었고, 필자 또한 지도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이에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도문메나리농요>라는 작품이 탄생했고, 오순석, 최도수 등 훌륭한 소리꾼들을 발굴할 수 있었다. 도문 메나리 농요는 주지하다시피 농요다.

농요 속에는 농민의 삶의 애환이 담겨 있다. 노동의 힘듦, 지루함을 이겨내기 위한 그들만의 방법이 그 속에 녹아 있다.

일종의 노동요인 셈인데, 일이 더디면 소리를 빠르게 함으로써 일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또 일이 지루하면 경쾌하고 소리를 함으로써 분위기를 밝게 전환하는 등 그들만의 노하우를 갖고 소리를 한다.

메나리 소리를 볼 것 같으면 대체로 오전에는 느리면서 차분하게 소리를 하나 오후에는 빠르고 쾌활하게 소리를 한다.

점심참을 먹고 나서 새로 시작하자면 무래도 오전만큼 싱싱하지가 않기에 기분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후에 즐겨 불렀던 동강소리를 미처 복원할 수 없었다.

메나리 소리는 중부지방 곳곳에서 발견이

되는데, 강원도 영동지방에서는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는 소리로서 중요한 문화유산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영동지방에서 전해오는 메나리 소리는 제각기 고유한 특징이 있다.

위에서 간단하게 살펴본 것처럼 삼척의 메나리는 가사나 부르는 창법이 속초보다는 양양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가능하면 지키려고 한 4음보다, 또 '이-후'라는 후렴구를 붙이는 것 등은 양양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나 소리의 톤(tone)을 보면 유장함이 오히려 도문메나리와 통하는 점이 있다. 양양의 메나리는 4·4조의 음수율을 가능한 한 지키려 노력하는데, 특히 동강소리는 거의 철저히 지켜진다.

또 '이-히'라는 후렴이 있고 '우겨라 우겨'라는 추임새로 끝을 맺는다.

이에 반해 속초의 도문동 메나리는 4음보의 음수율이 표면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곡조를 유심히 들어보면 내재적으로 4음보를 지키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소절이 끝날 때에 ~아어~란 여음이 들어가는데, 가창방법에서도 선창과 후창으로 구별되는 것도 두 지방에 비슷하다. 그러나 후렴이 없는 것이 양양이나 삼척과는 다른 속초만의 특징이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도문동 메나리 농요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나 미진한 점이 눈에 많이 띈다. 우선 삼척, 양양 등 여타 메나리와의 본격적인 대비고찰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도문동 메나리의 특징이 더 잘 드러날 것이다. 또한 도문메나리의 역사적 연원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더 필요하다.

이외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여러 미비한 점들은 추후에 보충하기로 한다. ●

梅谷 吳潤煥 先生の 思想과 作品世界

梁 彦 錫 (關東大)

1. 緒論
2. 思想的 系譜
3. 詩 考察
4. 선비정신
5. 梅谷先生과 鶴舞亭
6. 結論

1. 緒論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문화라고 한다. 자신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 그 사회는 새로운 생명력과 보다 발전된 미래사회로 나갈 수 있다.

속초는 전통적으로 아름다운 산과 바다, 그리고 호수가 함께 공존하는 연유로 다양한 문화와 勝景으로 많은 詩人墨客들이 찾았던 곳으로 문장가들의 뛰어난 작품과 자취가 전해져 오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이곳을 상징할 만한 인물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원래 속초는 襄陽에 속해 있었던 작은 고을이었다.

이 지역은 양양과 속초를 대표할만한 인물 중의 한 분이 梅谷先生이다. 梅谷 吳潤煥 선생은 1872년(高宗, 壬申年)에 도문리에서 태어나서 1946년(高宗, 丙戌年) 75세로 돌아가신 유학자이고, 교육자이며 독립운동을 하신 애국자이시다.

조선조는 유가의 사상과 이념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의 사상적 지주였던 사회에서 매곡 선생은 비록 宦路에 나가지 않았지만 처사로서 학식과 덕망을 두루 갖춘 인물이다.

梅谷先生은 이 지역에서 교육자로서 추앙 받던 인물이다. 자신의 집에 書堂을 두어 초학자들에게 한문과 경전을 가르치고, 유교경전을 교육과목의 근본으로 하고 풍속을 교화하고 교육 받은 선비들은 예법과 의리, 그리고 유교를 확립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효행을 실천하고 栗谷의 사상을 연구하면서 尊崇하여 후학의 교육에 앞장섰던 이 고장의 참 선비였다.

2. 思想的 系譜

조선조 대표적인 유학자로 嶺南士林의 중심인물이었던 李滉(1501-1570)과 畿湖士林의 巨頭 李珣(1536-1584)이다. 이 두 학자는 모두 朱子를 존경했으나 기본적인 관점을 달리하였다. 이 두 학자의 등장으로 성리학의 발전과 사회변화에 영향을 주었고, 사상적 계보를 형성하였지만 성리학의 정통을 계승한 退溪와 성리학을 무조건 수용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분석하고 발전시킨 栗谷의 두 학파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심각한 대립으로 후학들의 사상적 변화를 가져왔다.

儒家에서는 禮를 중시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역대 유학자의 계보를 <典故大方>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 李滉 - 鄭 述 - 許 穆
- 柳成龍 - 張興孝
- 金 誠

2) 栗谷 李珣 - 沙溪 金長生 - 愼獨齋 金集
- 尤庵 宋時烈 - 農岩 金昌協 - 金萬基

梅谷先生의 行狀과 遺稿를 고찰해 보면 분명한 사상적 系譜를 알 수 있다. 행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마음을 진정하여 깊이 생각하고 좋은 방법을 많이 연구한 후에 이에 감탄하여 말하기를 성인의 문하에 들어가 마땅히 우리나라의 울곡, 사계, 우암, 농암, 화서(李恒老), 성재(柳重教) 의암(柳麟錫), 錦溪의 모든 선생들의 글을 본받고 모든 성현들의 글을 구입하거나 혹은 배웠다. 더욱 울곡선생의 글을 존

경하고 숭모하여 수년동안 힘써 연구하여 문집 27권을 한자, 한획의 잘못도 없이 손수 베껴서 짤막한 한마디의 말이라도 익숙하도록 읽었다.

율곡, 사계, 우암, 농암, 이항노, 의암, 금계의 글과 특히 율곡을 존경하고 숭모하였다. 이것은 매곡선생이 철저하고 분명히 율곡학파의 상상과 계보를 이었다. 자신의 號도 율곡을 사모하여 梅谷이라 하였고, 그리고 호의 유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松竹과 蘭菊의 부류를 사랑하여 가꾸고 그것을 심고 말하기를 이 물건을 속세인이 취할 바가 아니고 옛날 군자들이 취할 바로 눈 속의 차가운 매화의 타고난 성질을 사랑하여 스스로 호를 梅谷이라하여 시를 지었는데 '깊은 계곡 찬 매화의 춘심을 막을 수 없고, 많은 꽃들이 아름다움을 자랑하지만 다투어 즐기지 않는구나' (幽谷寒春心自在羣芳誇美不肯爭態此二句正是) 이 二句가 그것이다. 이 말은 깊은 계곡에 추울 땐 핀 매화처럼 고고하게 꽃을 피우며 살고 싶은 선비의 자태와 강개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그 강개한 성격은 독립운동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매곡 선생의 사상은 매곡유고와 소장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소장본을 고찰 해 보면 經, 史, 子, 集中에서 문집은 소장자가 존경하거나 숭배하는 인물의 문집을 구입하거나 필사하여 본받았다. 그러므로 소장한 문집을 통하여 사상적 계보를 알 수 있다. 매곡의 소장본은 다음과 같다. <栗谷全書>, <學校模範>, <擊蒙要訣>, <宋子詩稿>, <農岩集>, <毅岩稿>, <淸城家傳>, <澤堂先生文集>등이다. 이 소장본의 저자들은 철저한 율곡학파의 중심인물들이다. 매곡이 이이를 존경하고 흠모한 것은 그의 사상과 철학 때문이다. 율곡은

이황과는 달리 기상과 성격이 통활하고 학문적으로는 章句의 분석보다는 근본원리를 자유롭고 종합적으로 통찰하는 특징이 있다.

해주에 관리로 있을 때, <海州鄉約>을 제작하여 선치를 베풀고 찾아오는 학생들을 위해 <學規>, <約束>, <擊蒙要訣> 등을 저술하여 그들을 교육하였고 <聖學輯要>, <學校模範>, <人心道心說> 등을 저술하였으며 한시대의 사회적 모순과 폐단을 개혁하는 것은 '올바른 곳으로 돌아가는 것' (反正, 歸正)이라는 인식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선비의 이상적인 모습을 율곡은 眞儒라 하여 나가면 한때에, 도를 향하여 백성에게 화락한 즐거움이 있게 하고 물러나면 만세에 교를 드리워 배우는 이로 하여금 큰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퇴계는 그 시대에 물러서기를 힘썼으며 반면에 율곡은 그 시대에 참여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율곡은 주자의 학설을 배우는 태도는 모두 옳다고 믿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것을 무조건 믿으려 하지 않았다. 매곡선생은 이러한 율곡의 사상과 철학을 존송하여 <율곡전서> 27권을 손수 필사하고 몇 년 동안 연구하여 본받고 존경하였다.

율곡의 문인으로 그 적통을 계승한 이는 沙溪 김장생(명종 3, 1548-인조 9, 1631)이고, 사계부자의 문하에서 배운 尤庵 宋時烈은 이황의 <物格說>을 비판하면서 퇴계의 설이 주자의 말에서 온 것이기는 하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주자의 뜻과 같지 않으니 주자의 진의를 체득하기로는 오직 율곡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였으며 <四端七情論>에 있어서도 이황의 설에 반대하고 이이의 <四端七情皆氣發而乘之妙>라는 설을 信條로 삼았으며 나아가서는 四端七情이 모두 情이며 또한

發而乘之하는 것인 즉, 四端도 七情도 같이 善惡이 있을 수 없다고 하며 이이의 설을 더욱 발전시켰다. 우암은 주자연구를 집대성한 <朱子大全>이 있고 이이를 師表로 하여 言行進退의 귀감으로 삼은 것은 매곡선생과 일치한다. 그리고 주자, 우암의 생애와 행적을 기록한 <淸城家傳>을 필사하여 읽었다.

그리고 소장본 중에 <農岩集>이 있다. 農岩 金昌協(효종 2년, 1651-숙종 34년, 1708)은 우암의 문하로서 이이학파의 중심인물로 그의 문집을 구하여 읽고 본받았고, 李植의 <澤堂先生文集>을 필사하여 읽었고, 택당은 이이와 같이 덕수인이다. 다음으로는 <毅菴稿>가 있다. 毅菴 柳麟錫(헌종 8년, 1842-1915년)은 독립운동을 하다 74세로 죽었다. 毅菴은 14세(1855)때 華西 李恒老의 문하에서 학문에 정진하였다. 華西가 私淑 받은 尤庵은 沙溪 金長生. 愼獨齋 金集 夫子의 嫡傳이고 沙溪. 愼獨齋는 栗谷의 嫡傳이다. 우암은 율곡에서 비롯된 기호학파의 적통이고 이로 미루어 보아 華西는 당연히 기호학파에 속하고 그의 제자인 의암도 당연히 율곡학파에 속한 인물로 梅谷이 구하여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의암이 만주에 八王洞에 聖廟를 건립하여 공자, 주자, 우암, 화서, 중암, 성재의 영정을 봉안했다. 그리고 학무정 시집서문에 의하면 유의암과 이금계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고 되어 있다.

<百禮祝輯>은 율곡, 사계, 우암의 문집에서 喪禮, 禮制, 祭禮 등의 家禮 방법과 절차를 기록한 책으로 철저하게 율곡학파의 상상과 예식을 따랐던 선비이다. 그리고 세상일을 근심하고 도를 구하려고 기호학파의 이름있는 학자들을 만나 학문을 토로하고 넓게 보고 들었으며 송설 배한환, 단운 민병승, 광암

이규현, 의현 김성기, 면설 심동진, 동의 이종영과 더불어 도의로서 사귀면서 학문을 연구하였다. 율곡이 교육방법론은 立志와 학문 연구 그리고 학문방법원리인 窮理와 行이 듯이 배곡 행장에 의하면 학문연구를 경건하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로 공리와 실천, 이 두가지를 공부의 중심이었다. 이처럼 교육도 철저하게 이이의 교육론을 본받아 이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교육하였다.

이처럼 소장본이나 행장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대학자인 이황이나 그 학파에 속한 학자들의 글은 전혀 읽지 않고 철저하게 율곡학파에 속한 학자들의 글을 읽고 본받았던 이 지방의 마지막 율곡학파의 인물이었다.

3. 詩 考察

孔子는 詩를 배우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하여 그의 아들 鯉(字, 伯魚)에게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다고하며 시를 통한 정서순화와 순수한 심성을 강조하여 <詩經>을 중시하였다. <詩經>의 大序에 '시는 뜻을 지향하는 것이니 마음에 있을 때, 志이고 말로 표현하면 시라고 하였다'. (詩者志之也 在心爲志 發言爲詩) 시는 곧 마음속에서 느끼고 잠재한 생각을 말로 표현한 것으로 유가에서 시는 그 사람의 인격과 학식과 모든 것을 평가하는 함축적인 세계이다.

율곡은 文 중에서도 가장 정치하고 사람과 귀신을 감동케 하는 詩는 쉽게 말 할 수 없다고 하며 詩가 비록 학자의 능사는 아니지만 역시 성정을 음미하여 맑고 화창함을 펼쳐 보존하고 살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니 어찌 그림을 꾸미고 수를 놓듯이 감정이나 읊기고

마음이나 방탕하게 하기 위하여 쓸것인가라고 하였다.

詩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뜻의 감흥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그 순수한 정신은 곧 유교의 이념과 일치하여 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음속의 감흥이 더욱 강렬하여 시로 표현하는데서 발전하면 음악이 되고 여기에서 더 발전하면 舞蹈가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시와 음악과 무도는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유교의 전신을 현실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퇴계의 <陶山十二曲>, 율곡의 <고산구곡가>는 모두 심성을 순화하고 풍속을 교화하기 위해서이다. 유교의 정신은 음악의 순화가 곧 풍속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하여 중시하였다.

詩는 성정을 근본으로 하는 것으로 속이고 꾸미는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음률은 자연에서 나오는 것이다. 삼백편의 시는 인정을 曲盡히 하고 결으로는 사물의 이치를 통달하여 부드럽고 유순하며 충직하고 도타움이 성정이 바른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시의 근원이다 율곡이나 매곡의 시는 모두 이러한 詩世界를 가지고 있다.

매곡선생의 문집은 乾, 坤 두 권으로 1980년에 출간하였다. 乾卷에는 매곡선생의 영정과 학무정 전경이 수록되어 있고 어학경의 서문과 梅谷의 七言律詩 409수, 七言絶句 20수, 五言律詩 19수, 五言絶句 2수 등 452수와 한시 200여 편이 수록되어 있고, 坤卷에는 제문, 묘갈명, 서신, 유금강실기, 선조행장 등이 수록되어 있다. 매곡선생의 詩世界는 평이한 시어로 담백하고 고고하고 순화된 뜻을 함축하고 있다.

自警이라는 제목의 시가 2수 있다. 이것은 학문에 정진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경계하는

시를 쓰고 있다.

그리고 율곡은 19세에 금강산에서 입산하여 내금강 摩河衍에서 수도생활을 하면서 금강산을 두루 유람하고 山寺와의 인연으로 많은 스님들과 교류하였다. 벼슬길에서도 자주 山寺를 찾아 선문답을 주고 받았으며 교류한 시가 많다.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山寺에서 참선하고 있는 스님을 보고 불도에 정진하는 모습이 마치 학과 같다고 하였다. 스님을 학에 비유한 것은 佛子에 대한 찬미이다.

金剛山 南草庵

蕭條南草庵 호젓한 남초암 쓸쓸하지만
居僧有仙姿 스님의 모습이 신선 같구나.

이처럼 유학자들은 불교나 老莊學 같은 것을 이단시 하지만 율곡은 주자학만 수용한 것이 아니라 불교와 老莊, 그리고 諸學說을 모두 窮究하였다. 율곡을 존숭하여 실제로 금강산을 유람하고 遊金剛實記를 저술하였다. 소장본의 특징은 영남학파의 문집과 雜記나 破閑類는 한권도 찾아 볼 수 없지만 스님과 절을 소재로 한 詩는 상당히 많고 불교서적인 <心經> 같은 서적을 찾아 볼 수 있다.

繼組庵

聞道閑僧此地樓

큰 스님 이곳에 산다는 말을 듣고
行尋一逕逕難齊
좁은 길 찾아가니 재계하기 어렵구나
老檜清陰人對酌
노송나무 맑은 그늘에서 술 마시며

高臺數仞石成梯

높은 대 헤어보니 돌계단이구나

洞深餘響經春在

깊은 골짜기 많은 꽃이 봄이 지나도

그대로 이고

山靜奇禽盡日啼

산은 고요한데 진기한 짐승이 해가

다하도록 우 짓는다.

莫言僻處無佳景

말하지 마오 날아가면 아름다운 경치 없으니

自是關東不下西

이로부터 서쪽으로 가지 않고 관동에 있구나.

遊神興寺

寺以神興興以遊

절이 신흥이라 흥이 일어 노니네

以今視昔幾名流

지금 옛날을 보니 名士가 몇몇인가

誰知此樂人間在

인간세상에서 이 즐거움을 누가 알겠는가

莫使斯心世外浮

이 마음 세상밖에 떠돌게 하지 마라

仙臺月古飛笙鶴

신선대 달빛에 학이 날아온 지 오래고

慈海雲茫泛石舟

사랑스런 바다에 구름 아득한데 배 띄운 듯

殘醪香茶飢可療

좋은 고기와 술과 향기 있는 차로 배고픔

달래만 하네

不妨桑下一宵留

뽕나무 아래 하루 밤 머무는데 방해 없구나

遊永郎湖

探勝何必上高樓

승경을 찾아 어찌 반드시 높은 대에 오르랴

近海游關興不收

바다 가까운 관문에서 노니 흥이 다하지 않네

八景應添興誌美

팔경은 응당 지도에 아름다움을 더하고

四仙已著道家流

사선은 이미 도가류 임이 널리 알려졌네

山光應紫烟其暮

산 빛이 저물녘에 자주 빛 안개 드리우고

湖色含清月亦秋

호수 빛은 맑음을 머금어 달 또한 가을이네

醉後禪房詩寫訖

취한 후 선방에서 시 쓰기를 마치고

要拖拖聞向芳洲

나막신 끌고 아름다운 곳으로 향해야 하리라.

매곡선생은 신흥사 8수, 계조암 2수, 오세암 1수, 봉정암 2수, 보광암 1수, 비선대 2수, 의상대 등의 시와 그밖에 〈移秋〉, 〈養蠶〉, 〈麥秋〉, 〈養魚〉, 〈養鷄〉, 〈飯牛〉 등 농사와 관련된 실학적인 시도 많이 썼다.

매곡선생 시의 특성은 행장에 잘 서술되어 있다. 시문을 지으면서 다른 사람의 시문을 발전시키지 않고 단지 평이하고 담백하며 성의있게 견고한 뜻을 취하였다.

사실 선인들의 詩가 현대인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학자들의 시와 문인들의 시가 다르기 때문이다. 학자들의 시는 도덕성을 강조하는 文以載道論적인 입장에서 道를 중시했다. 율곡도 도가 나타난 것이 문이라고 하며 옛 학자들은

반드시 도를 먼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어렸을 때, 읊조렸던 시문과 科文같은 것은 거의 문집에서 빼버렸다. 율곡은 道를 본으로 삼는 文이라 했다. 道文이 一致된 文을 중시하였다. 이 점은 매곡선생도 文은 道를 중시으로 하였다.

詩作法에 典故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시상은 무한하게 많지만 용어는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해 漢詩에서는 典故를 중시했다. 전고란 보다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 논거를 바탕으로 점화하였다. 점화란 시에서 남이 쓴 용어를 빌려다가 쓰는 것은 비록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모방이나 표절이라고 보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매곡선생은 달랐다. 행장에서 다른 사람의 시문을 발전시키지 않았다는 말은 점화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의 시는 평이하고 담백한 시어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독특한 詩世界를 갖고 있다. 그리고 詩語는 상당히 낭만적이고 평이하면서도 담백한 독자적인 詩 세계를 갖고 있다.

4. 선비 정신

儒家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은 君子이니 조선조 儒家에서 곧 선비이다. 이 선비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洪大容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과거로 출세하는 '才士'와 글재주로 이름은 얻은 '文士'와 경전에 밝고 행동을 점잖게 꾸미는 '經士'로 분류하며 仁義에 깊어 짓고 예법을 따르며 천하의 富로도 그 뜻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陋巷의 근심으로도 그 즐거움을 대신하지 못하고 천자도 감히 신하로 삼지 못하면 현달하면 은택이

四海에 미치고 물러나면 도를 천년토록 밝히는 '眞士'라 하였다. 이 분류에 의하면 매곡선생은 참선비였다.

尤庵은 紫雲書院(과주에 율곡을 모신 서원) 廟庭碑에서 율곡은 '不由師傅 默契道體 似濂溪'로 스승 없이 진리를 체득하였다고 하였다. 보편적으로 학자들은 초기의 학설과 만년의 학설이 달라지는 것이 보통이다. 주자와 퇴계가 그랬지만 <天道策>, <聖學輯要>, <人心道心說>에서 보듯이 율곡만은 일관하였다. 이점도 일치한다. 특별한 스승 없이 뛰어나게 총명하여 소학, 효경, 사서육경, 근사록과 정자와 주자의 글을 성스러운 스승으로 삼았다. 타락해 가는 세상을 보고 공리심을 부끄러워하며 말하기를 학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따히 수양하여 세상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55년 동안 일기를 썼다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가에서는 도덕성을 신뢰하기 위하여 修己를 중시했다. 그러므로 유가에서 修己를 이루거나 이루려고 노력한 사람을 군자라 하여 존중해 왔다.

유고의 교리는 항상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가장 중시하는 근본이념은 修己 治人이다. 유학에서 수기치인은 곧 內聖(최고의 인격완성) 外王(최고 통치술)의 도를 완성하는데 있고 특히 성리학은 성인이 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매곡선생은 경전을 통해 학문을 연마하고 덕성을 함양하고(修己), 나아가 비록 벼슬을 하지는 않았으나 제자양성과 독립운동을 몸소 실천한 선비로서(治人) 유학자로서의 도를 몸소 실천한 대학자이다.

修己는 마음의 문제와 관계된 것으로 安民과 平天下를 위한 存心揚名의 첫길이고 治人

은 사회제도와 구조에 관계된 문제로 시대상황에 따라 사회구조와 제도개혁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지만 결국 개혁의 주체인 인간이 먼저 변해야만 한다. 그래서 유가의 사상은 결국 인간중심 사상이다.

참 선비는 첫째 지식인이고, 둘째로 실천하는 사람이고 셋째는 인격과 덕을 갖춘 사람이다.

첫째 매곡선생은 지식인이다. 훌륭한 글을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소장본을 보면 사서사경과 소학, 시전, 공자실기, 주례, 예기, 주서, 고문진보, 심경, 사기, 등의 經典과 歷史書와 손수 필사한 을곡전서 이십칠권, 농암집, 모시, 문선, 송자시고, 의암집, 등의 문집류가 있다. 개인 소장본으로 250여권이라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게 많이 전해오고 있다. 이 책들은 매곡선생이 대부분 직접 필사하여 학문에 정진하였던 지식인이다.

둘째 실천적인 사람이다. 행동하지 않는 선비는 선비가 아니듯이 매곡선생은 몸소 실천했던 선비였다. 많은 선비들과 도의로서 사귀면서 서로 글로써 또는 만나서 학문을 연마하고 항상 경건하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로 하였다. 그리고 궁리와 실천, 두가지가 큰 중심이었다. 매일 새벽 반드시 얼굴을 씻고 머리를 바르게 하고 의관을 정제하고 箴規를 암송한 연후에 사당에 참배하고 살피었다.

셋째 인격과 덕을 갖춘 사람이다. 매곡선생은 세상이 비록 혼탁하더라도 마땅히 사람을 교제할 때 아첨하지 않고 정직과 관대함과 인자함으로 하였다. 그리고 후학을 가르침에 향리에서 책임을 맡고 감동시켜9 착하게 함을 가르치고 깨우쳐 주는 것을 가장 중시하였으

며 덕 있는 자를 모두 선비라고 칭하였다.

또한 유교는 도덕실천의 생활관이다. 유교의 생활관념은 崇祖, 愛子孫, 老者安之小者懷之로 하고 生事之禮, 喪葬之禮, 祭之禮를 중시하였다. 행장에 의하면 초하루와 보름이면 선조의 무덤을 살피고 비록 맛있는 음식이라도 반드시 윗사람의 명을 따랐다. 부모님의 상을 당해서도 禮制에 따랐고 여러 대에 걸쳐 산소에 墓碣을 세워 건고히 하고 祭田을 두어 관혼상제와 손님을 맞는 절차는 힘써 禮로 정성을 다했다.

5. 梅谷선생과 鶴舞亭

鶴舞亭은 梅谷遺稿와 鶴舞亭詩集에 의하면 曾王考 徹菴公(辰光)이 놀던 곳으로 경암공의 덕을 우리러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곡선생이 건립(甲戌年, 1934)하였다. 이곳은 작은 언덕 가에 들과 시냇가에 바위들이 아름답고 소나무로 둘러 쌓여 새들이 노닐던 곳으로 봄이면 화창한 달밤에 시인명사들과 술을 들며 시를 노래했던 곳이다.

이 정자 모양이 육각형으로 일명 육모정이 라고도 부른다. 정자에는 九曲東川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데 구곡은 울곡의 고산구곡의 구곡과 상통한다는 뜻이며 동천은 설악산에서 발원하여 동해안에 이르는 쌍천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인데 학무정은 그 두 번째인 제2곡에 해당된다.

이 정자의 동남쪽에는 鶴舞亭, 서쪽에는 永慕齋, 북쪽에는 敬義齋, 동쪽에는 仁智堂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그리고 정자 옆에는 매곡선생의 직계인 손자인 수현이 1971년에 조부의 업적을 기록하여 세운 학무정기념비

가 있다. 매곡선생이 쓴 학무정기에 의하면 道川위에는 구곡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2곡에는 물가에는 돌이 쌓여 있으며 양쪽으로 물이 흘러 마치 작은 배가 더 있는 것 같고 송림 위에 학들이 춤을 추고 놀았으므로 학무정이라고 지었다.

매곡선생이 1934년에 작성한 학무정건축일기(甲戌 2월15일, 한문필사본)에 의하면 이 해 2월 15일 별목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5월 26일 기와를 올리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모두 118명이 동원되었다. 이 일기에는 학무정준공기가 실려 있으며 모두 20쪽에 달한다.

鶴亭松風

可愛松壇五月風

오월바람에 소나무 드리운 대는 사랑할 만하고
峨洋琴操入心通

산과 바다같은 <금조가>소리가 마음에 와 닿
는구나

蕭灑精添詩盡裏

시를 읊는 가운데 깨끗한 정신이 더하고

淸虛氣在水山中

산수 가운데 청허한 기운이 있네.

同聲必應來儀鳳

소리가 같으면 반드시 의태를 갖춘 봉황이 날
아오리니

舉翼將期遇順鴻

날개를 날면 장차 순흥을 만날 것을 기약하네

北窓醉臥羲皇老

북창에 술에 취해 누으니 북의 때의 노인들

何似吾人樂不窮

어찌 우리같이 즐거움이 다하지 않으리

유유자적하며 아름다운 鶴舞亭에서 학문을 중구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시로 읊었다. 학무정은 매곡선생의 사상과 얼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이곳에는 아름다운 정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곡선생의 모든 것이 살아 존재하고 있다. 학무정은 이 지역 선비들의 만남의 장소였고, 학문하는 후생들에게 그리움의 대상으로 속초의 정신적인 배경이 되었다. 이곳에서 후생교육에 노력한 것은 매곡선생의 고귀한 행위이다. 학무정이 있기에 속초가 더욱 아름답게 기억되는 소중한 공간이다.

6. 結論

성리학은 人本을 중시하여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정신적인 세계에 중점을 둔 인간중심 사상으로 修己治人の 道를 몸소 실천했던 梅谷선생은 진정한 참 선비였다. 梅谷하면 눈속에 편 매화처럼 고고한 선비가 생각난다.

매곡선생이 태어나신 도문은 이 지역에서 선비의 마을이고 충효의 마을이다.

사실 풍속은 민중의 생활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지만 유교는 형식과 실천을 중시하여 풍속교정을 강조하여 민간신앙인 세시풍속과 고유전통이 유교와 결합하여 단순한 유희로 끝나지 않고 메나리 같은 형식을 취하면서 전승되어 왔다. 매곡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매곡오처사 행장에 의하면 士林會蔣으로 하였다.

이처럼 이 지역에 대표적인 율곡학파의 사상적 계보를 이어온 마지막 사림으로 몸소 실천하고 행하였던 교육자였다. 그분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분의 사상과 얼은 아직도 학무정과 이 지역에 살아 숨쉬고 있다. ●



만천동 나룻배 싸움놀이

제14회 강원도 민속 예술 경연대회

- 철원군 종합 운동장 '96. 9. 19 ~ 20' -

속 초문화원은 올해의 출품작으로 「만천동 나룻배 싸움놀이」를 선보였다.

주동진씨(갯마당)의 지도와 최용문씨(속초문화원장)의 고증으로 총 70명의 출연자가 경연하였으나 고증과 연습하는데 시간이 짧은 탓으로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으나, 우리 전래의 어촌 생활에서 가뭄과 흉어를 용제(龍祭)를 지내어 극복하는 삶의 부활에 상당한 뜻을 두었다는 심사평이었다.

내년을 기약하면서 작품의 유래와 내용, 구성 및 놀이과장을 소개한다.

1. 작품 유래

속초의 양대 호수인 청초호와 영랑호에는, 각각 솥용과 암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다.

청초호와 영랑호 사이에는 땅 속으로 용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있어 솥용과 암용은 내통하면서 살았다. 청초호변에 살던 어부의 실수로 청초호 일대의 송림이 불타면서 화염과 연기로 솥용이 죽었다.

암용이 크게 노해서 속초지방에 가뭄이 들게 만들었다.

더하여 흉어가 겹치게 되고, 만천동과 청대

리 사이의 소야천(청초천)을 왕래하던 나룻배도 자주 사고가 났다. 용을 달래야 이런 흉사가 없어질 것이라서 믿은 마을 사람들이 용제(龍祭)를 지내게 되었다.

용제 후에 두 마을 사람들이 나룻배 싸움을 하면서 힘을 겨루고,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기 시작하면서, 놀이로 정착하였다.

2. 작품 내용

음력 정월보름이 지나 날씨가 풀리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용제를 올릴 제일(祭日)을

택한다. 제주와 제관을 뽑고 마을에서 건장한 청년들을 뽑아 배에 태우고 용제를 올린다. 풍년과 풍어, 그리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제사를 올린 다음 나룻배를 타고 상대마을로 찾아가서 전체 주민들에게 음복을 권하며 인사를 올린다. 제사와 상대 마을을 방문, 인사가 끝나면 나룻배를 몰고 자기 마을로 돌아온다. 마을로 돌아온 나룻배에 신주(神主)와 메를 싣고 다시 호수로 나가 음식을 뿌리며 나룻배의 무사고를 기원한다.

이런 의식이 끝나면 양쪽 마을에서는 자기 마을이 우세하다고 시위를 벌인다. 마을에서

만든 음식과 술로 흥을 돋운다.

마을의 부자집에서는 술과 음식을 내온다. 흥을 돋우면서 마을끼리 힘을 겨루는 놀이가 시작된다. 양편 나룻배로 호수 한가운데로 나가 나룻배끼리 부딪쳐 밀고 나간다.

노를 젓든가 선정된 도구로 나룻배를 밀어 붙여 각기 상대 마을로 밀고 나간다. 상대 힘에 밀려 나룻배가 자기 마을에 닿게 되면 지고, 밀고 간 편이 승리하게 된다. 나룻배 싸움놀이가 끝나면 두 마을이 흥을 돋우는 놀이마당을 벌여, 서로 내년에 다시 힘을 겨루어 꼭 이길 것을 결의한다.

나룻배 싸움에 승리한 마을에서는 청년들에게 새경을 올려주고 도선료를 면제해주며 푸짐한 대우를 하게 된다. 나룻배싸움은 혼례 때 나룻배에서 만나도 행해지고, 특별히 물건을 운반할 때도 행해진다.

혼례 나룻배에서 싸워 이긴 신부는 첫 아들을 낳는다는 민간신앙이 전해진다.

고를 비는 의식을 행한다. 나룻터 행사가 끝나면 마을로 되돌아 와, 힘 겨루 준비를 한다.

□ 제4과정 : 뱃싸움

징이 울리면서 마을사람들의 환성이 울린다. 장정들은 나룻배를 서로 밀어 붙이며 일진일퇴를 거듭한다.

□ 제5과정 : 놀이마당

승패가 결정되면 이긴 쪽은 환호하고 패한 쪽은 한숨 짓는다. 이어 흥을 돋우는 놀이마당을 벌인다. ●

3. 구성 및 놀이과정

□ 제1과정 : 용제

두 마을의 제관과 마을청년들이 숫용과 암용을 위무하는 용제를 지낸다.

□ 제2과정 : 음복

상대 마을을 찾아가 음복을 권하며 인사를 나눈다. 이후 각기 차기 마을로 되돌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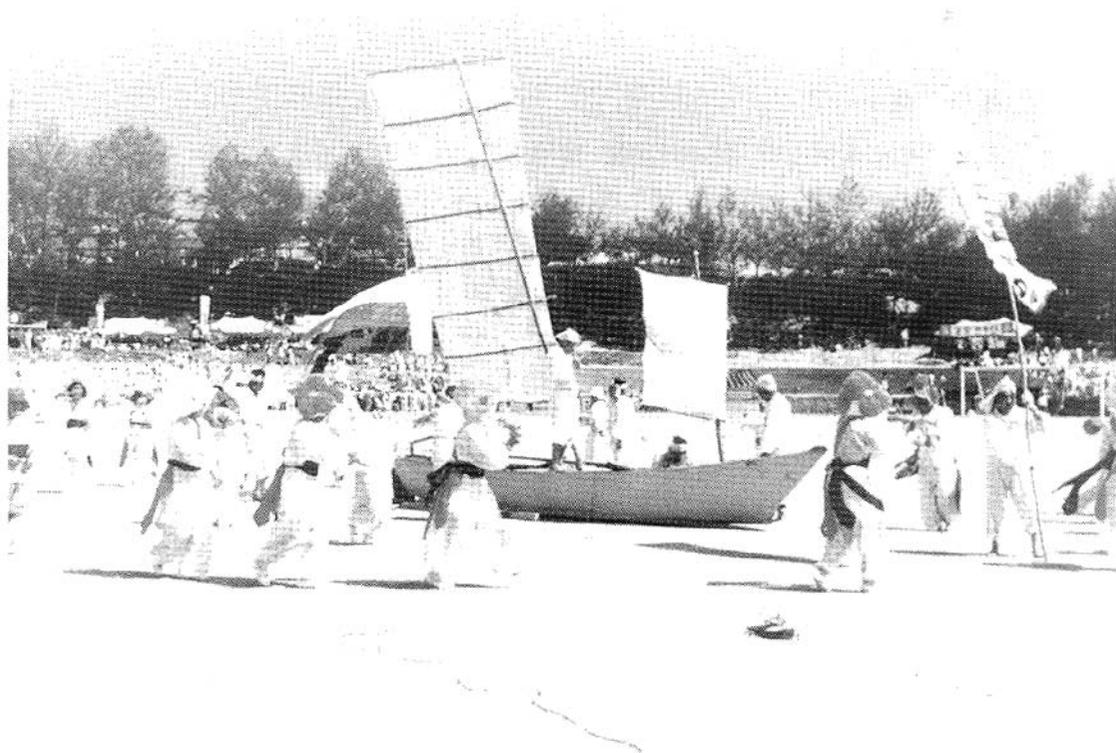
□ 제3과정 : 뱃놀이

장정을 뽑아 배에 태우고, 이들이 나룻터를 왕래하며 노래와 춤으로 나룻배의 무사

Small vertical text in the top right corner, likely a page number or reference code.

대포동 뱃소리

〈제15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속초시 출연작품〉



개요 및 작품소개

- 출연 부문 : 민요부문
- 출연 인원 : 46명
- 소요 시간 : 30분
- 지 도 자 : 주동진(영북민속문화연구회 기획단장)
- 고 증 자 : 최용문(속초문화원장)

○ 유 래

속초시는 해안선을 따라 발달한 어촌지역으로서 대표동은 자연부락 단위의 항구도시로 발달되었다. 이곳을 중심으로 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취락인 어촌이 형성되게 되었다. 어민들의 생활 터전이 바다이므로 자연스럽게 바다에 대한 신앙과 조업에 대한 풍속들이 깊게 뿌리박고 있는 것이다.

출어할 때 그물을 당기며 고기를 산대에 담을 때, 그물에 걸린 고기를 베끼면서 어민들의 애환이 담긴 뱃소리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나,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 특 색

뱃소리에는 지어소리, 다리어소리, 베끼소리, 산대소리(가래소리)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지방마다 뱃소리는 서로 다르지만, 동해안에는 크게 강원도식과 함경도식으로 분류된다. 강원도식 뱃소리는 짜임새가 단순하면서도 소박한 것이 특징이고, 함경도식의 뱃소리는 잡담(사설)이 풍부하고 강직한 것이 특징이다. 속초지방은 강원도 지역이면서도 함경도의 특색들이 교차되는 지역으로 나름대로의 뱃소리를 구성하고 있는 특이한 곳이라 하겠다.

뱃소리의 구성은 몇소절을 제외하고는 전형적인 뱃소리는 없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시조, 고사(故事), 판소리, 패설 등을 사설로 삽입된 것이며, 정형(整型)없이 늘 부르던 사설을 그때 그때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것이 판소리나 기타 농요와 다른 특징이며 사설내용은 어부들의 희비애락(喜悲哀樂)을 노래한 것이 거의 전부다.

작품 출연 내용

속초 「산대소리」는 민요부문에 출연하므로 뱃소리에 중점을 두었다. 소리에 부적합한 행위는 무리가 없는 한 연회하지 않기로 했고, 소품은 정확한 고증에 의하여 약 100년전의 출어모습과 소리를 재연했다.

○ 구성 및 놀이 과장

□ 제1과장 : 출어 (출어고사는 생략)

- 노젓는 소리를 하며 「비아다리」배가 바다(경연장)로 나감.

□ 제2과장 : 조업

- 사공의 지시에 따라 쳐진 그물을 일제히 당기며 「다리어」소리를 함.

□ 제3과장 : 산대질

- 사공의 선창에 맞춰 가래(산대)로 고기를 퍼담으며 「산대소리」를 함.

□ 제4과장 : 선상 작업

- 끌어올린 그물안에 고기를 베껴내는 작업을 하는 「베껴소리」를 하며 만선임을 확인하고 만선기를 올림

□ 제5과장 : 귀항

- 만선기를 달고 돌아오면서 흥겨운 「지어소리」를 하면서 돛을 내림.

① 니가내가 어찌 하든 다리어
힘을쓰고 응을써라 다리어 <다리어소리>

② 앞발은 버티고 어야 뒤로 자빠져 어야
눅지말고 어야 부쩍 부쩍 어야 당겨주게 어야
어야어야 어야어야 <다리어소리>

③ 우리먹고 살라고 에라솔 가래 라솔
고기디리 밀어줬다 에라솔 가래 라솔
<가래 소리>

④ 저손질이 저리구 에라 벗기고 보자
소년고생을 안하겠나 에라 벗기고 보자
<산대 소리>

⑤ 이번산대는 용왕님 산대
에라소 가래 로구나
이번산대는 선주님 산대요
에라소 가래 로구나
이번산대는 망주님 산대요
에라소 가래 로구나
다음산대는 사공님 산대요
에라소 가래 로구나 <산대 소리>

⑥ 강릉앞바다를 떠나고보니
양양앞바다가 나서는가
양양하면 낙산사요
양양바다를 떠나가보니
간성앞바다가 나서는가
간성하면 청간정이요
청간정을 지내고보니
장전앞바다가 나서는가 <든대 소리>

⑦ 이럴적에 기운을 내고 베끼어라 보자
이럴적에 용기를 써라 베끼어라 보자
원산내기 찬바람은 베끼어라 보자
취한 술이 절로 깬다 베끼어라 보자

설악산 내기 찬바람은 베끼어라 보자
손발 시려서 못살겠네 베끼어라 보자
<베끼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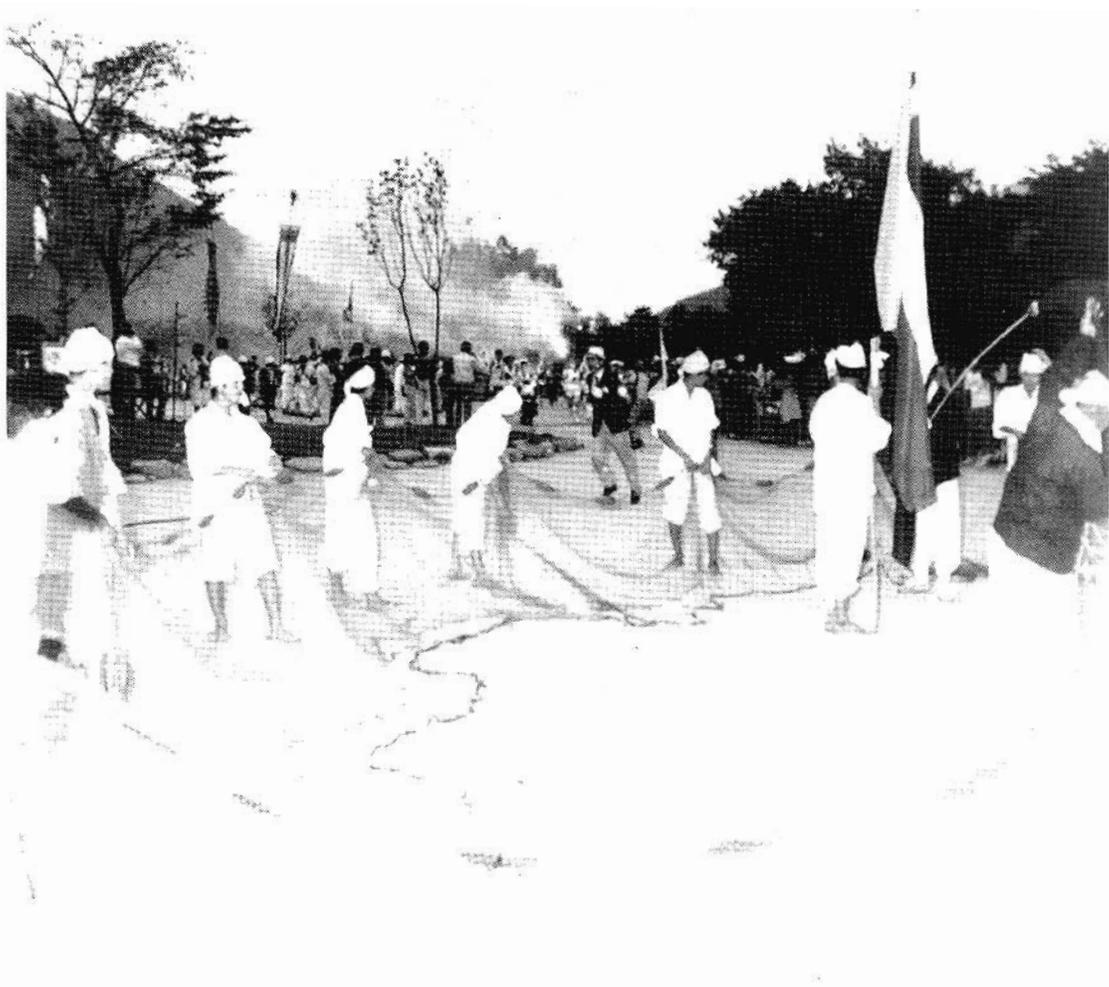
⑧ 세월아 세월아 가지를 말아라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알뜰한 청춘이 다 늙어간다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지어 소리>

⑨ 삼수갑산 딱다구리는 에라소 가래 로다
참나무 구멍을 뚫는데 에라소 가래 로다
우리 저 멧덩구리는 에라소 가래 로다
뚫린 지 구멍도 못 뚫는다 에라소 가래 로다
<산대 소리>

⑩ 명사십리 해당화야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꽃이진다 설워마라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명년 춘삼월 호시절에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앞이 피고 꽃이 핀다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지어 소리>

⑪ 간다간다 나는간다 다리어라 내자
임을두고 나는가네 다리어라 내자
내가가면 아주가나 다리어라 내자
아주간다고 잊을쏘냐 다리어라 내자
<다리어소리>

⑫ 아들을나면 효자나고 베끼어라 보자
딸이나면 열녀나고 베끼어라 보자
소가나면 특소나고 베끼어라 보자
닭이나면 봉황나고 베끼어라 보자
개가나면 삽살개고 베끼어라 보자
말이나면 옹마로다 베끼어라 보자
<베끼 소리>



작품지도



최용문, 주동진, 최종현, 박치영, 천성필, 김동연, 최택수

속초농악

제16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속초시 출연작품

- 일 시 : '98. 9. 26 ~ 9. 27
- 장 소 : 인제군 종합운동장



속 초 시

개요 및 작품소개

- 출연부문 : 농악부문
- 출연인원 : 56명
- 소요시간 : 30분
- 고 증 : 최용문(속초문화원 원장)
 정철기(사단법인 한국농악 보존협회)
 엄상원(78) 속초시 노악동 도리원리
 양형석(52)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리
 최철수(50)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리
- 연출구성 : 정철기(사단법인 한국농악 보존협회)
- 조 연 출 : 박치영(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 상쇠)

유 례

속초도리원농악은 강릉, 평창, 삼척, 양양 등 강릉문화권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었다. 도리원은 속초의 가장 많은 전답을 보유하고 있는 동네이다. 때문에 전형적인 농촌민속문화가 잘 보존된 곳이다. 지금도 한해를 시작하는 정월 대보름을 기점으로 당산 이러한 가운데 농악은 주로 농사놀이 형태의 두레농악이 성행했으며, 결립농악으로 발전해 나갔다. 또한 속초농악은 1936년 영동지방을 강타한 병자포락(丙子捕落)으로 초도화된 농민들의 실의를 달래 재기하는 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속초 농업의 중심적인 노학동 도리원에 농악이 더욱 발전하여 지금도 연희 되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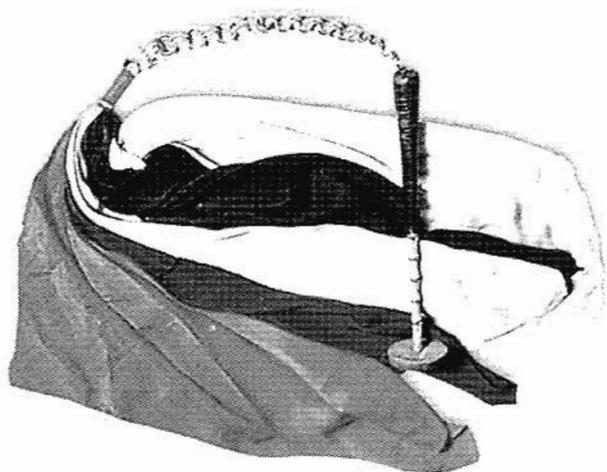
특 색

속초농악은 강릉문화권의 영향을 받아 농사놀이 형태의 진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복장이 타 지방과 다른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농사풀이는 소고수와 무동들의 연희적 과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여자들의 농악판의 역할이 크게 자리매김 되어 있고 사물(쇠, 징, 장구, 북)과 소고, 무동의 수가 각각 동수로 구성되어 있다. 복장은 상모와 무동의 복색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상모는 짚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쇠와 소고수는 일반적인 물채와 다르게 그 끝이 두가닥의 종이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머지 치매들은 고정된 방망이(떡) 상모를 쓴다. 구성 및 놀이과장 가락의 진행은 경쾌하며 일채, 이채, 삼채, 굿거리(길굿가락), 칠채를 주로 친다. 선보일 순서는 (1) 인사굿, (2) 명석말이, (3) 칠채, (4) 十子결이, (5) 가세치기, (6) 오방진, (7) 길굿 (굿거리), (8) 농사풀이(가래질→논갈기→벼씨뿌리기→모심기→탈곡) (9) 무동놀이, (10) 열두말상놀이, (11) 명석말이, (12) 인사굿 등으로 진행된다.

출 연 자



주동진, 김동연, 박치영, 서문신철, 최택수, 전성호, 김태희, 김대윤, 김태수, 최종현
양형석, 최철수, 양춘석, 전상원, 유영순, 신한이, 강복희, 김소희, 이현주, 홍연숙, 남희영
박은진, 함기식, 박종원, 김태열, 황미희, 김봉규, 신상빈, 원영수, 오주홍, 이승훈, 권용삼
김상일, 김기덕, 전형영, 박서희, 최봉하, 남주용, 김혜은, 이은실, 김미희, 김화숙, 김수옥
김남인, 전기숙, 김창현, 김재규, 감금옥, 홍길찬, 박봉수, 윤영옥, 최승진, 최영미, 함수정



든대질놀이

제17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속초시 출연작품

- 일 시 : '99. 10. 9 ~ 10. 10
- 장 소 : 속초시 종합운동장



개요 및 작품소개

- 출연부문 : 민속놀이
- 출연인원 : 35명
- 소요시간 : 30분
- 고 증 : 최용문(속초문화원장)
정종천(속초시 문화공부실 지방별정6급)
- 지 도 : 김봉준(속초시 장사동)
주동진(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 기획단장)
- 연출구성 : 주동진(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 기획단장)



유 레

속초지방에서 유일한 날바리(모래)땅인 사진리(장사동)에서는 든대질로 배를 진수하고 끌어올리는데 날바리9모래)땅에는 폭풍이 불거나 해일이 일게되면 급히 배를 끌어올려야 한다. 그렇지 않은 배가 파도에 휩쓸려 파손되기 때문에 빠른 동작으로 든대질을 해야한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여유있게 허리도리(선소리꾼)의 유창한 소리에 맞춰 흥겹게 뒷소리를 하면서 든대질을 한다.

특 색

든대질 소리는 속초의 뱃소리인 지오소리, 다리어소리 등과 같이 몇 소절을 제외하고는 정형적인 내용은 없고 시대화 상황이 변함에 따라 사설이 여러가지 삽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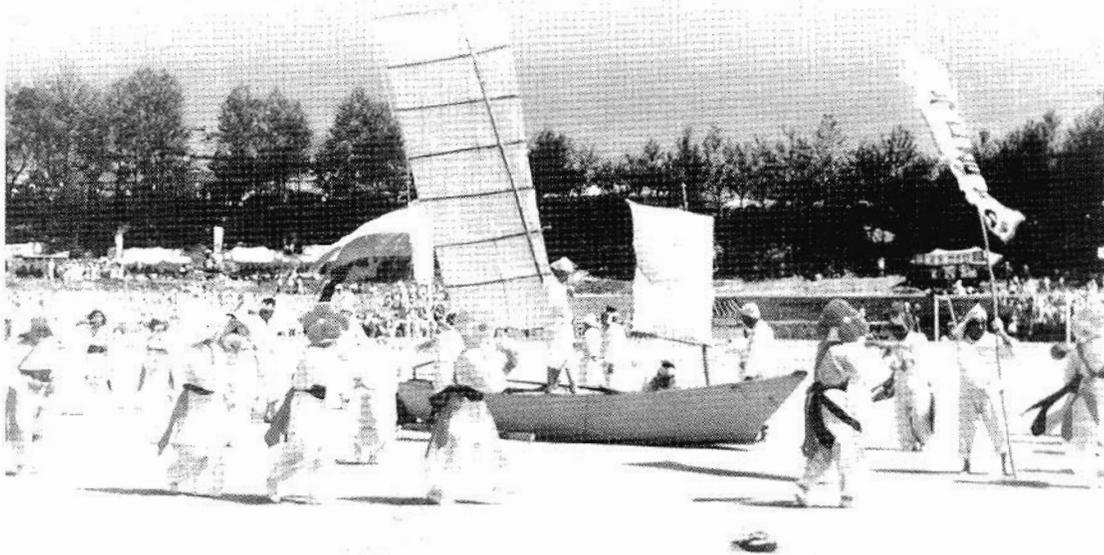
배를 처음 만들어 進水시에 사람들은 “배 내린다”고 하고 무사고를 비는 기원제를 올린다. 기원제는 배에 술가지를 끝에 꽂은 대나무에 오색만선기(9성주기)를 달고 뱃머리에 제물을 차린다.

첫 출어를 하게되면 선주가 풍어와 무사고를 비는 고사를 지내는데 동해안에서는 첫출어를 “설망”이라고 한다. 설망날은 택일을 하여 좋은 날을 고르고 고사를 지낸 후 배성주신을 모실 돈을 선주에게 받는다. ‘배성주’는 배를 지키는 신령으로 그 표상은 한지를 변이 10cm쯤 되도록 모나게 여러겹으로 접어서 왕동 한 푼과 청·홍실을 그 속에 넣어 어부들이 잠자는 ‘방장’이나 ‘큰대멍’ (고기를 잡은 것을 담아두는 곳 중에서 가장 큰 곳)에 모신다.

배성주를 모실 때 제물로는 어물을 쓰기도 하고 육류를 쓰기도 하나 병용하지는 않는다. 선주가 제주가 되며 도시공은 제관이 된다. 성주기를 꽂고 고사가 끝나면 모든 선원은 도시공의 선소리에 맞추어 든대질을 하여 배가 물에 닿으면 선원이 노를 저어 떠나게 된다.

속초 든대질 놀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성주기(만선기) :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 주거나 직접 만드는데 깃대에는 소나무 가지를 묶으며 짚으로 만든 삼재막이를 달고 배성주를 모신다.
- 고 사 : 제관은 선주가 되며 도사공과 선소리꾼인 허리도리도 같이 고사를 드린다. 이유는 배가 오래가고 무사고를 비는 뜻이라고 한다. 제물은 술, 초, 향, 시루떡, 포 등으로 간단히 한다.
- 액막이 : 액막이는 짚으로 만든 포막대에 불을 붙여 배의 앞뒤를 다니며 소금을 뿌리고 부정을 씻는 것을 말한다. 불은 나쁜 것을 씻는 발양력을 지녔다고 보아 주술적 행위를 하는 것이다.
- 비나리 : 고사가 끝나면 무녀가 소복을 입고 징을 치며 기도를 드린다. 이 때 꽤자는 입지 않는다.
- 든대질 : 기원과 액막이가 끝나면 허리도리는 젊은이들과 괴꾼, 든대꾼이 선소리와 뒷소리를 부르며 배를 내린다.
- 설 망 : 배가 처음 물에 들어가면 성주기를 바닷물에 세 번 적신 후에 배에 달고 노를 저어 나가며 돛을 올려 바다를 한바퀴 돈다. 마을 사람들과 어부들은 선주가 장만한 음식을 먹고 풍어와 무사고를 빈다.
- 농 악 : 농촌과 달리 농악대는 따로 없고 농기도 없다. 도가에 악기를 보관하며 놀이에만 사용한다. 배 건립시에 무녀와 함께 풍악을 울리며 배의 만선과 무사조업을 빈다.



• • • •
든대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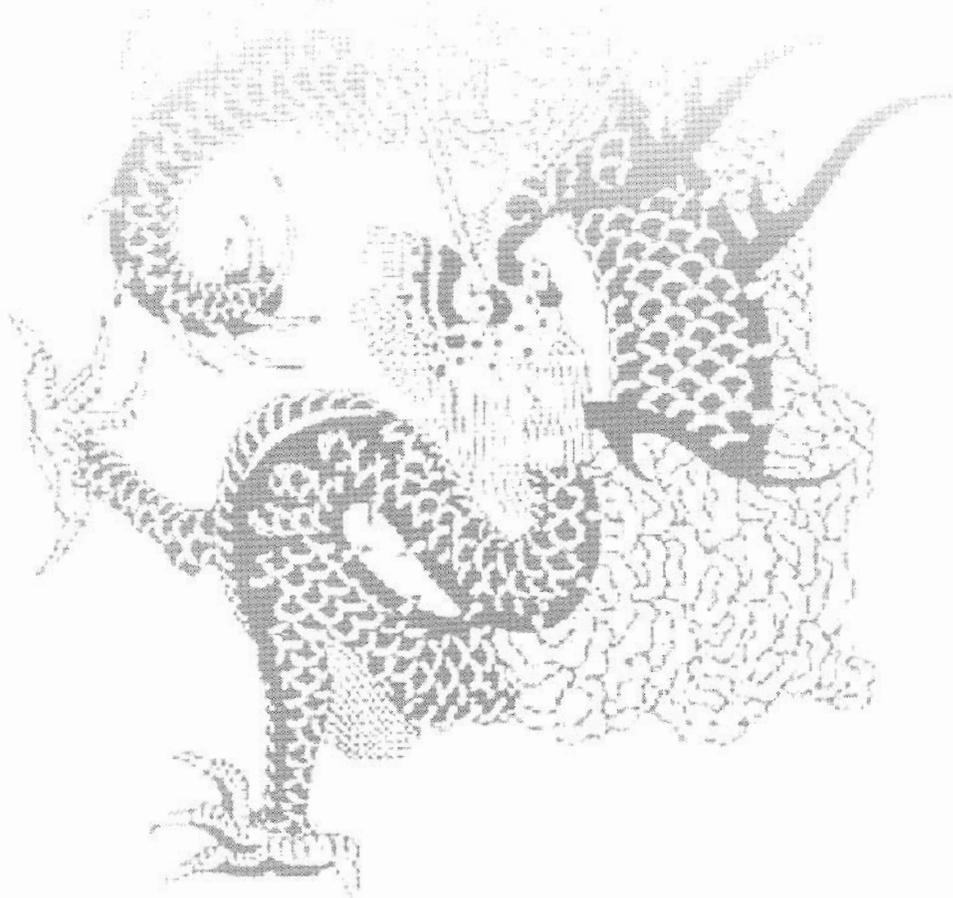
자- 자- 자- 자- 이럴적에 기운을 내고
아럴적에 용기를 써라
自地하니 활금출이요 開門향이 만복래라
우리 배를 내리라 보니
모진 강풍이 불어온다 이리저리 하다보니
이내 손발이 다얼었구나
사공님은 배를 내려 정라진 앞바다에 당도되니
여보 사공님 가까운 곳으로
어서 빨리 들어갑시다. 그것이 좋은 말이다
정라진 들어가니 막걸리 장사가
지나치며 나를 보고 손을 치네 손을 치는데는
밤에 나가구 동네 술집은
낮에 나가자 자- 자- 이왕지사 왔던 걸음에
죽서루나 구경가자 삼척하면
죽서루요 삼척바다를 떠나보니 강릉 앞바다가 나서는구나
강릉하면 경포대요
강릉앞바다를 떠나가 보니 양양 앞바다가 나서는구나
양양하면 낙산사요
양양 바다를 떠나가 보니 간성 앞바다가 나서는구나
간성하면 청간정이요
청간정을 지내고 보니 장전 앞바다가 나서는구나
장전 바다에 들어가 보니
금강산 구경이나 가보세 금강산이 좋을시고
동해끼고 솟은 산이 일만이천 봉우리를
구름같이 물렸으니 천하명산 그 아니냐 장안사를
구경하고 만경대를 올라가니
마의태자 어디갔나 장전바다를 떠나보니 원산바다가 나서는구나
원산 앞바다에 이리저러 탕기다보니 명사십리 나서는구나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 진다고 설워
명령 춘삼월 호시절에 잎이 피고 꽃이 핀다
보고 보고 암만봐도 보배인들 배이자-

물치 용왕굿

용 댁 놀이

제18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속초시 출연작품

- 일 시 : 2000. 9. 29 ~ 9. 30
- 장 소 : 횡성군 종합운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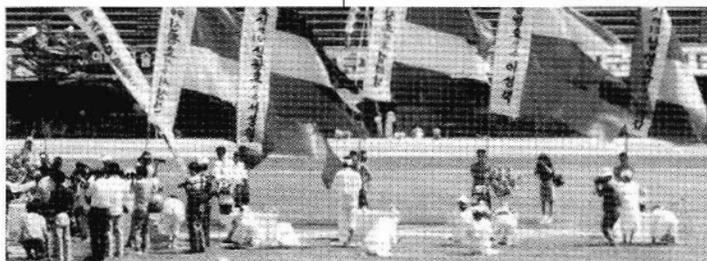
속초시 출품작 개요

- 출연부문 : 놀 이
- 작 품 명 : 물치 용왕굿 용떡놀이
- 출연인원 : 55명(남20, 여35)
- 소요시간 : 30분
- 고 증 : 최용문(속초문화원장)
- 지 도 자 : 빈순애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 인간문화재)
- 연 출 : 주 동 진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

출품작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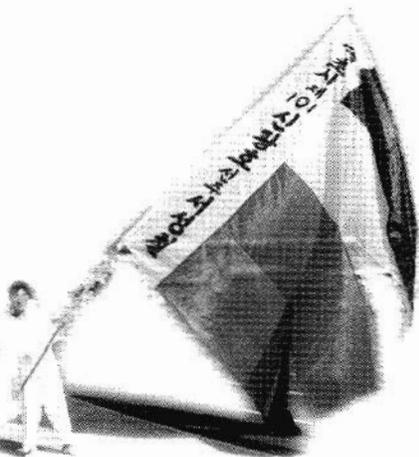
○ 작품유래

물치는 행정구역상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마을로서 예전에는 속초의 중심지역이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주로 어업을 주요 생업으로 삼았으며, 이곳 물치에서 행해지는 풍어제는 축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풍어제는 3년에 한번씩 올려지며, 3일동안 12마당 굿을 펼치며 벌어진다. 용떡놀이는 용왕굿의 한 과정으로서 배를 소유하고 있는 선주들이 각기 젓상을 하나씩 용신에게 바친다. 이 젓상마다 풍어를 기원하는 용떡과 오방기가 필수적으로 쓰이게 되는데, 무녀들과 주민들은 이를 중심으로 한바탕 놀이를 펼치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 특 색

속초의 어촌에서는 3년 또는 5년마다 용왕굿을 지내는데 매년 연례적으로 열리는 마을제와는 달리 별신제로서 풍어굿의 형식이라 할 수 있다. 대포동 물치 용왕굿은 3년마다 어촌계와 어민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하며, 음력 9월 9일 제사가 끝난 당일 오후부터 시작되는데 예전에는 사흘 밤낮 굿을 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고 한다. 용왕굿은 부정굿, 성황굿 등 12거리가 행해지는데 마지막 거리인 뱃놀이 굿이 끝나면 축항에 나가 물굿(용왕굿)을 지내게 되는데, 이때에는 선주들도 각자 작은 제사상을 준비 하여 축항에 놓고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치성을 드리고, 용왕신에게 바쳐진 용떡을 머리에 이고 춤을 추며 놀던 축제로 이런 일련의 풍어제와 용왕굿 놀이는, 속초 지방 해안 부락들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민속놀이며, 우리의 전통신앙을 축제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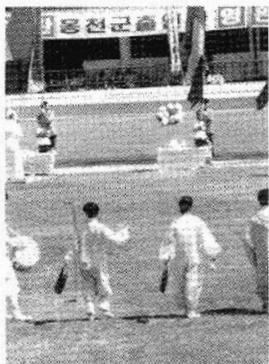


작품내용(구성 및 놀이과정)

물치 용왕굿 용떡놀이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 ① 제례 : 제관과 선주들이 각자 준비한 작은 제사상에 주과포와 용떡, 향과 초등을 간단하게 상을 차려놓고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치성을 드린다.
- ② 용왕굿 : 동해안 별신굿 중의 하나인 용왕굿을 부녀들과 주민 모두함께 펼친다.
- ③ 액막이 : 무녀들이 각성반이 소원풀이를 하며, 마을의 안녕과 무사조업을 기원하며, 주민전체의 안녕을 빈다.
- ④ 용떡놀이 : 용왕신에게 바쳐진 용떡시루를 머리에 이고 무녀들과 주민들이 춤을 추며 놀고, 신에게 바쳐진 후 주민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
- ⑤ 오방기놀이 : 만산을 기원하는 오방기를 중심으로 현란한 기놀이를 펼친다.
- ⑥ 뒷풀이 : 성황신과 용왕신을 달래며, 마을 주민 모두가 한바탕 흥겹게 논다.

용왕굿 사설



용도 용도 용신님네
당신은 무얼 불귀했나
심을 망자도 불귀주고
그를 망자도 불귀주지
이리가도 미나파
저리가도 미나파
밤밤밤 대추야

어서옵서 옵서 대주
서해안바다 용왕님네
당신은 무얼 불귀했나
동해안 바다고기 물러졌지
울고간다 우래 고기 불귀주고



해망화 소망화 불귀했지
명대 소명대 불귀했지
이리가도 미나파
저리가도 미나파
밤밤 대추야



어서옵서 대주
서해안 바다 용왕님네
당신은 무얼 불귀했지
외옹치 대동안에
각성반이 고기잡이를 불귀했지
외옹치 대동안에
각성반이 고기잡이를 불귀했지
외옹치 대동안에
각성반이 고기잡이를 불귀했지
동지선달 널광어
오동통통 복쟁이
대문어도 소문어도 불귀주고
대йка 소이까도 불귀했지
이리가도 미나파
저리가도 미나파
밤밤밤 대추야

어서옵서 옵서 대주
북해안바다 용신님네야
당신은 무얼 불귀했소
청어붕어 남녘노소
온갖 자손들 고기잡이 마련하고
어깨 이끼도 불귀주고
우물배도 불귀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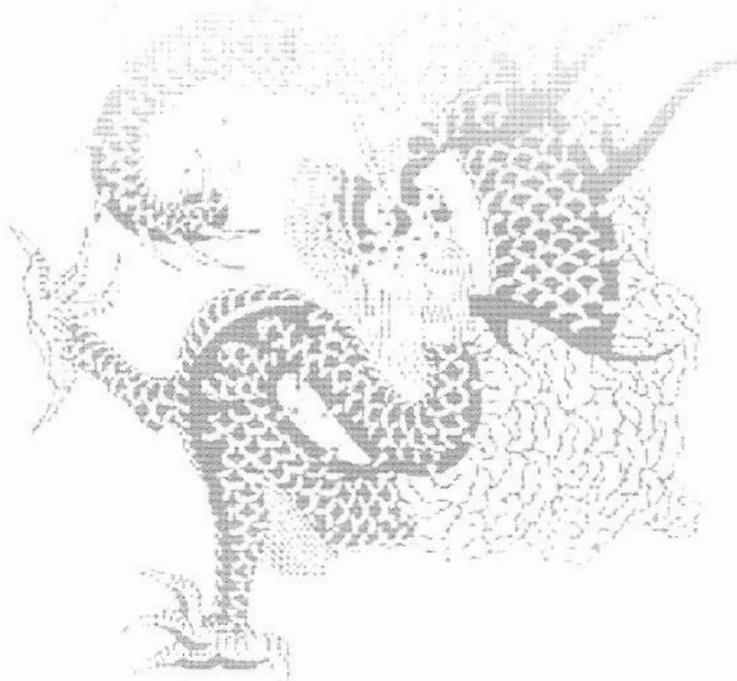
잠수배도 불귀주고
큰배 작은배도 불귀했지
어장배 붕어배도 불귀주고
이까산 산마일도 불귀했지
이리가도 미나파
저리가도 미나파
밤밤밤 대추야

어서옵서 옵서 대주
외옹치 대동안에
각성 육성반이 자손들
명다 값고 축원공덕 올습니다.

출 연 자



주동진, 박치영, 김태희, 김동연, 김주영, 최택수, 김향자, 이정옥, 유영순, 이영희, 이강숙
강금옥, 강복희, 이미성, 박순임, 임옥량, 김화자, 윤정옥, 김영숙, 김맹인, 이명숙, 최금순
김순자, 박숙녀, 최금이, 박경자, 강순월, 최창순, 김정자, 김화복, 서정자, 우산옥, 윤옥희
최명자, 이정희, 김설자, 이매자, 양순이, 이정옥, 박덕순, 이명옥, 정몽자, 조명자, 조성순
김태훈, 이정선, 최태영, 김승훈, 김대호, 오재현, 김동환, 함지탁, 남성우, 김성호, 최익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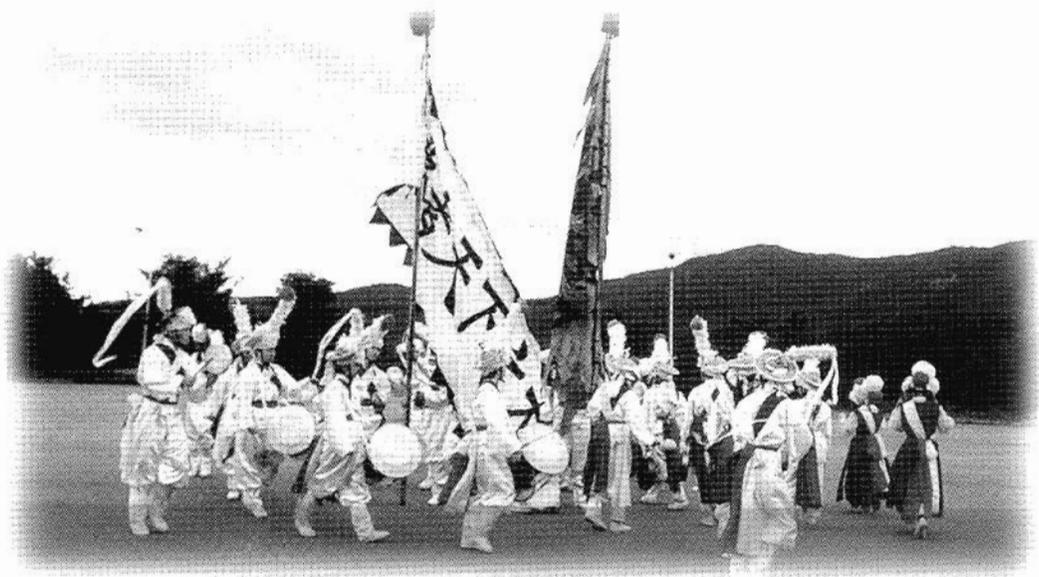


속초 도리원 농악

제19회 강원도 민속예술축제 속초시 출연작품

● 일 시 : 2001. 9. 20 ~ 9. 21

● 장 소 : 화천종합운동장



속초 도리원농악 재현 및 구성개요

- 출연부문 : 농악부문
- 출연인원 : 47명
- 고 증
 - 엄상원 (82세, 속초시 노학동 - 도리원농악 상쇠)
 - 양언석 (관동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
 - 최용문 (속초문화원장)
- 연 출
 - 엄상원 (도리원농악 상쇠)
 - 주동진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 기획단장)

○ 속초 도리원농악의 유래

도리원은 설악산 산자락 끝에 넓은 들을 끼고 형성된 마을이다. 행정구역상 노학동에 소재한 이 마을은 예로부터 농업(벼농사)을 주업으로 하고있으며 농악이 성행했었다.

주로 정월대보름을 기점으로 성황굿과 마을 집돌이를 하고 이로부터 두달여에 걸쳐 걸립을 디녔다고 한다. 일정시기에는 마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걸립을 위한 전문걸립패를 조직할 정도로 농악놀이가 왕성했으며 마을 젊은이들을 상대로한 농악전수와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현재 도리원농악은 엄상원 (82세, 도리원 거주)상쇠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으며 그는 도리원 출생으로 상벽구이던 아버지를 따라 무동을 농악을 시즈가 했으며 당시 상쇠였던 이서기와 최정수로부터 농악을 배우고 20세때 상쇠가 되었다.

-도리원 농악 엄상원 상쇠의 구술을 바탕으로 정리

○ 도리원농악의 특색

속초 도리원농악은 강릉, 평창, 삼척, 양양등 영동농악(강릉문화권)에 딸린 곳이지만 판제구성과 진행에 있어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사굿, 돌뱅이를기, 십자진, 황덕굿, 농사풀이로 판굿 진행은 비슷하지만 황덕굿 전에 “쇠꼭지”라는 개인놀음이 있어 한 명씩 재주를 펼쳐 보이는 독특한 구성이 있고 십자진풀이는 전개방법과 진풀이가 독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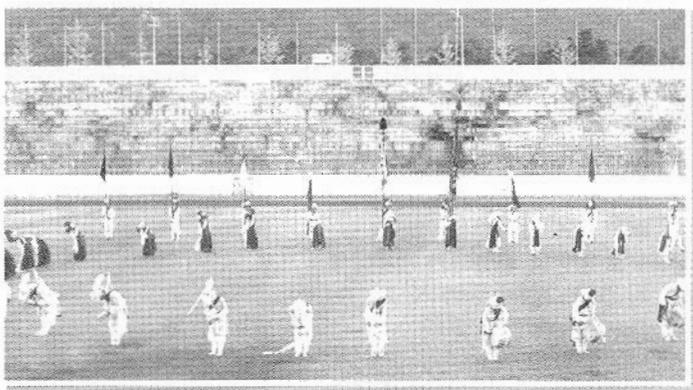
주로 걸립굿 중심의 농악으로 발달되어 오랫동안 밖으로 나와 있던 탓에 무동은 15~18세의 남자들로 구성했으며 해방 뒤에는 신파극놀이 등이 가미되어 잡색놀음도 연희되었다고 한다.



놀이 과장 및 풀이

1. 인사굿

일체, 질꾸내기 가락을 치며 입장하여 삼채, 사채까지 가락을 내고 인사굿을 친다.



2. 골뱅이진

삼채 장단의 빠른걸음으로 골뱅이처럼 원을 말았다가다시 뒤로 돌아서 반복한다.



농악대의 편성

- 악기편성 - 쇠(4), 징(4), 장구(6), 북(6), 소고(8)
- 무 동 - 8명(15~18세의 남자로 구성)
- 잡 색 - 양반(1), 할미(1), 대포수(1)
- 깃 발 - 용기(1), 농기(1), 마을기(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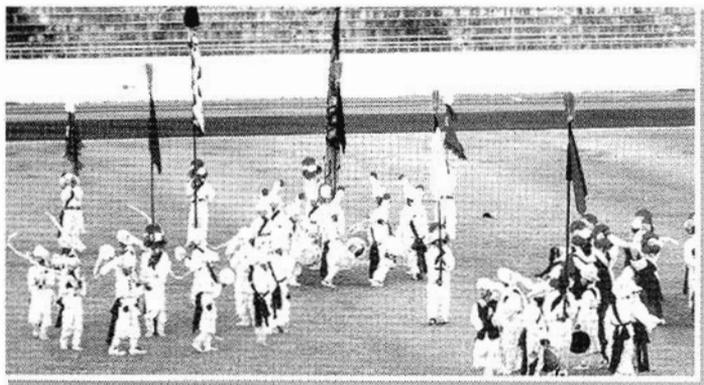
3. 십자진

상쇠와 부쇠줄로 나누어 서로 마주보고 있다가 서로 엇갈리게 빠져나와 십자진을 만든다. 좌우로 방향을 바꿨다가 가운데부터 원을 그리며 돌아온다.



4. 오방진

원진을 만들어 돌다가 상쇠가 가운데 서고 쇠와 징, 장구와 북, 소고, 무동이 각자 네 귀퉁이에서 원을 만들어 오방진이 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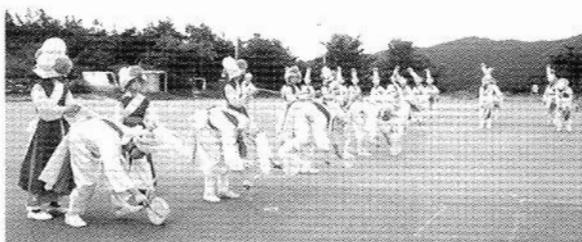


농시풀이(농사짓는 모의 동작을 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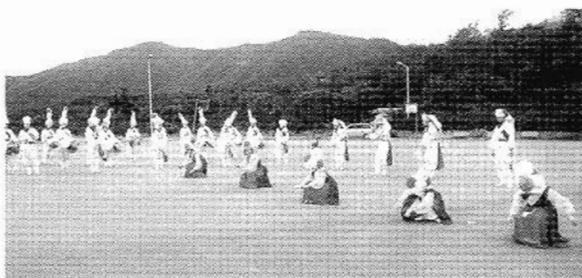
1. 가래질

쇠, 징, 장구, 무동들은 제자리에서 연주하고 소고춤 한 사람은 가래를 쥐고 두 사람은 끈을 당기는 동작을 연출하며 앞으로 나간다.



2. 논갈기

쇠, 징, 장구, 무동들은 제자리에서 연주하고 소고가 일렬로 서서 논갈기를 한다.



3. 모찌기

쇠, 징, 장구, 무동들은 제자리에서 연주하고 소고들이 일렬로 앉아 모찌기를 하며 무동이 모를 나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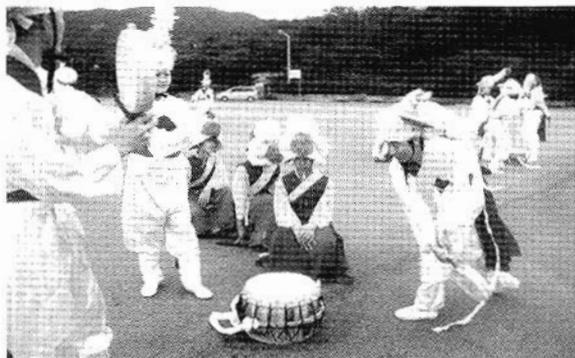
4. 모내기

소고는 모를 심는 동작을 하고 무동은 모를 나르는 흥내를 낸다.



5. 낫갈기

소고가 한줄로 앉아서 소고를 발 사이에 끼고 소고채로 낫을 가는 흥내를 낸다. 장단에 맞추어 이리저리 낫을 바꾸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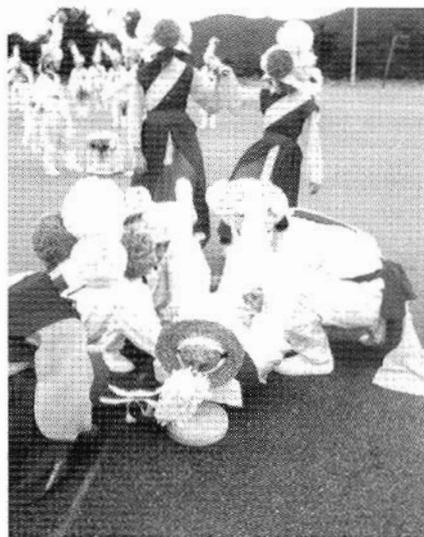
7. 태치기

무동들이 나와서 도리깨질을 하고 소고는 북을 사이에 얹혀놓고 태치기를 한다.



6. 벼베기

소고가 벼를 베어서 수확하는 동작을 한다. 상모를 돌리며 벼를 베다가 단을 묶어 던지는 동작을 연출한다.



8. 방아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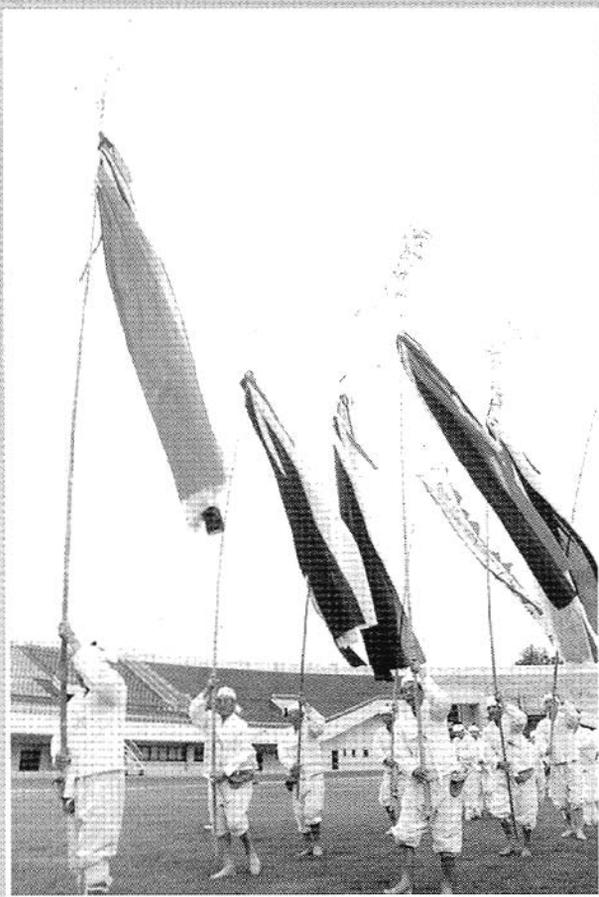
소고중 한 사람은 방아가 되고 두 사람은 방아의 중심대가 되며 무동은 방아찝기와 키질을 한다.



속초 도리원 농악

출 연 진

- 가수 : 권중빈, 오재현, 남성우
- 쇠 : 엄상원, 박치영, 주동진, 박현기
- 징 : 김성현, 김영균, 최익준, 함지탁
- 장구 : 전성호, 유영순, 김향자, 이향하, 심진영, 김용선
- 북 : 최수미, 장윤정, 김은정, 김미경, 최태영, 이세진
- 소고 : 김동연, 김태희, 김주영, 이정선, 김태훈, 임효건,
김국중, 신우근, 전형준, 신승태
- 무동 : 이재선, 이준표, 정호열, 조성현, 김태경, 이남광,
이장원, 장호빈, 김동주, 김승률
- 잡색 : 성준옥, 이영희, 최택수
- 새납 : 강영구



특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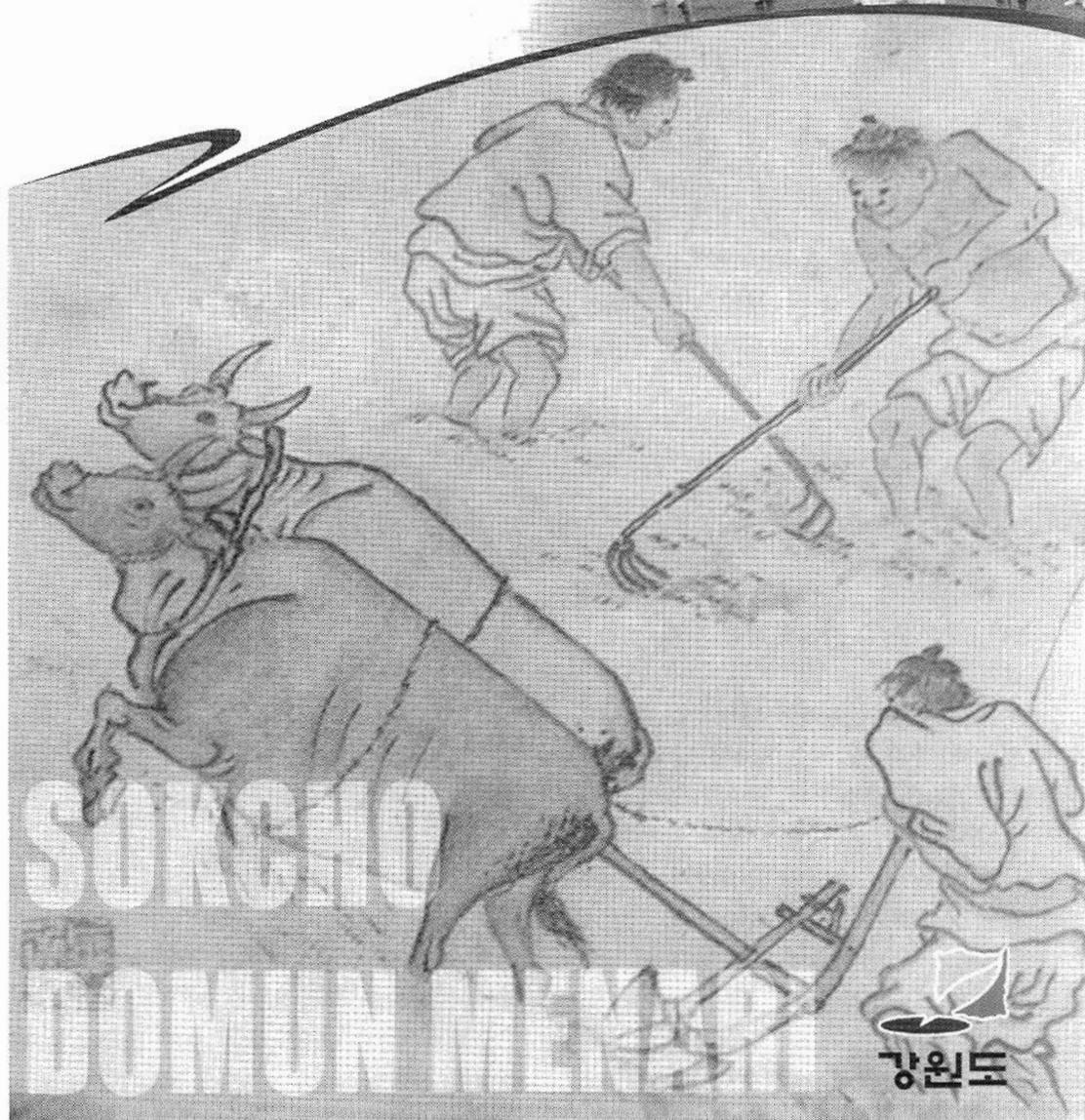
- 제44회 한국 민속예술축제 금상 수상
- 제20회 강원도 민속예술축제 최우수상 수상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금상수상)

속초시 도문메나리 농요

기간: 2003년 10월 15일~16일

장소: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주행사장



제44회 전국 민속예술축제 금상 수상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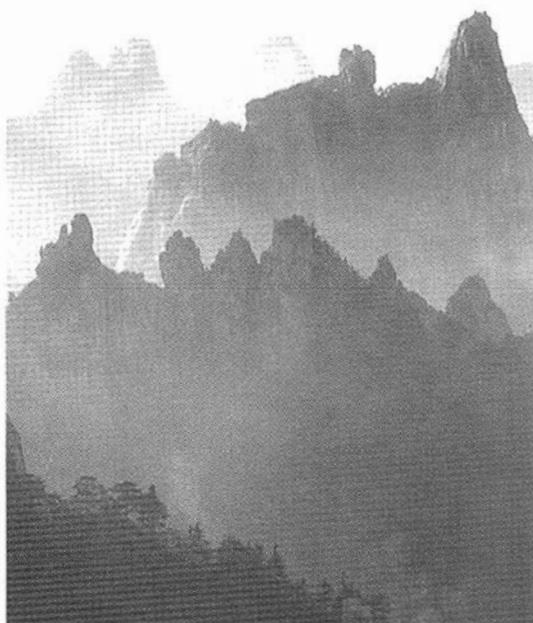
제20회 강원도 민속예술축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제44회 전국 민속예술축제 강원도 대표로 참가하여 금상을 수상한 속초시 대표 민속예술 작품이다. 도문동 전통 농가의 씨 뿌리기에서 가을걷이까지를 담은 농요를 재현한 작품으로 높이 평가받은 '도문동 메나리 농요'를 전제한다.

속초시 도문동의 문화적 배경

속초시는 강원도 동북부 동해안에 있으며, 동쪽으로 동해 서쪽으로 인제군, 남쪽으로 양양군, 북쪽으로 고성군과 연결해 있다.

도문메나리의 발생지인 도문동은 조선시대에 불려진 명칭으로 그 관할이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대포리, 웅진리가 있었다. 1914년 3월 1일 도문면과 소천면이 합쳐져 도천면이 되었으며 1966년 동제를 실시할 때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를 합해 도문동이 되었다.

도문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신라 때 의상대사와 원효대사가 강현면 강선리에서 신선의 안내를 받아 설악산 쪽으로 가는데, 이곳에 이르러 갑자기 숲속에서 맑고 우아한 소리가 들려 마치 무상무아의 불법을 아뢰는 듯하여 법장을 멈추고 서 있다가 홀연히 크게 깨달아 도통의 문이 열렸으므로 이곳을 도통의 문이 열린 곳이라는 뜻으로 道門이라 했다고 한다. 또한 강현면 강선리에서 내려온 신선이 이곳에서 설악산으로



가는 길을 물어 와선대에서 누워 놀다가 비선대에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곳에서 길을 물었으므로 道問이라고 하던 것이 道門으로 변했다는 설이며, 다른 하나는 수도객들이 도를

의상대사와 원효대사가 강현면 강선리에서 신선의 안내를 받아 설악산 쪽으로 가는데, 이곳에 이르러 갑자기 숲 속에서 맑고 우아한 소리가 들려 마치 무상무아의 불법을 아뢰는 듯하여 법장을 멈추고 서 있다가 홀연히 크게 깨달아 도통의 문이 열렸으므로 이곳을 도통의 문이 열린 곳이라는 뜻으로 道門이라 했다고 한다.

답기 위해 설악산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라는 뜻이라고도 한다.

도문동의 김종우 가옥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85호, 도문동 김근수 가옥은 문화재 자료 64호로 지정되었으며, 메나리 전승지인 상도문1리에는 학무정(일명 육모정)이 있는데 속초팔경의 하나로서 선비이며 교육자인 배곡 오윤환(1872~1946) 선생이 1934년에 건립하였다. 또한 조선 후기 박지의 효자는 1824년 부친이 위독하자 단지수혈을 했으며 부친상을 당하자 3년간 시묘살이를 했다. 박효자는 51세 때 현종이 승하하자 쌍천에 제단을 쌓고 3년간 상복을 입고 망곡을 하였으며 1838년에 효자비각을 망곡터 옆에 세웠다.

속초의 민속예술로 속초산대놀이가 1985년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상, 1991년에는 대포동의 용왕수살굿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북청사자놀음은 함남 북청군의 고유 민속놀이로 속초지방에서 행해져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15호로 지정 받았다. 향토 축제인 설악제는 산악인들의 제례에서 출발하였는데, 1966년 제1회 설악제는 설악산악회가 주축이 되어 산신제와 등반행사로 시작하

였고, 1996년부터는 설악문화제로 개명하여 순수 문화축제로 변화를 시도하였다.

속초시는 1999년에 청초호 변에서 국제관광엑스포를 개최하였고, 2000년 4월 바닷길로 중국을 거쳐 백두산에 이르는 항로가 개설되었으며 금강산 관광선도 출항을 하고 있어 속초 설악산과 금강산, 백두산을 연결한 환동해권 중추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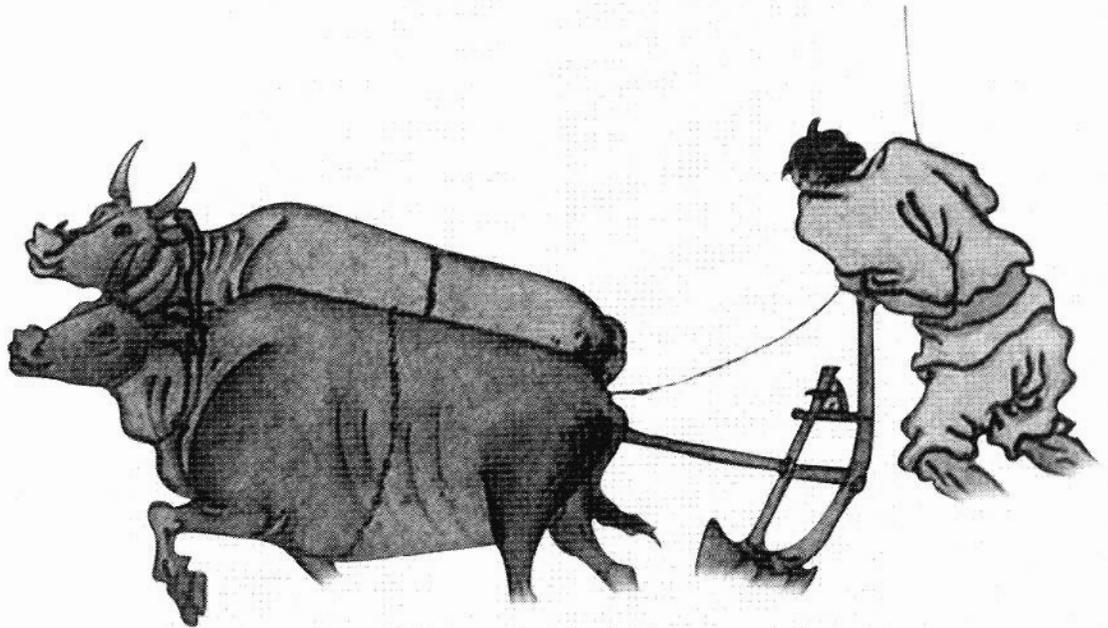
속초시 도문메나리 농요의 내용

‘앞뜰엔 동해안. 뒤뜰엔 설악산’이라고 읊는 속초팔경가처럼, 속초의 자연환경은 바다와 산악을 기고 형성되었으며 이에 따른 수많은 설화가 잉태되었고, 그 풍부한 이야기만큼 소리도 풍부하게 이어져왔다. 바닷가 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뱃소리가 연면히 이어져왔고, 도문뜰과 조양뜰을 중심으로 한 농촌지역에서는 농사일을 풀이한 농산노동요가 전승되어 왔다.

특히 도문동에서 전승된 메나리농요는 삼척이나 춘천권의 메나리와 달리 신흥사의 불교문화권 영향을 입어 염불이나 범패소리를 담은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소리의 원형과 전통성을 인정받았으며, 2003년 10월 15일 동해에서 개최되는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강원도 대표로 참가하게 되었다.

도문메나리는 강원도 농산노동요로서 깃매기 소리로 전승되는데 춘천, 삼척, 양양, 속초 일대에 전승된다. 속초 도문동에 전승되는 도문메나리는 양양메나리조와 유사하고 삼척메나리와는 다르다. 농민들이 3~4명 짝을 지어 ‘질’을 짜서 김매기를 하면서 노동의 고달픔을 소리로 달래던 농요로서 고유한 가락과 멋스러



것이 특징이다. 소리의 담은 형태는 양양메나리와 흡사한 것은 도문동과 양양 강현면이 인접한 농토를 가지고 있고, 과거에 행정구역상 양양군에 속초지역이 속했던 이유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문메나리 농요는 2003년 6월 16일 양구에서 개최된 제20회 강원도 민속예술축제에서

음을 간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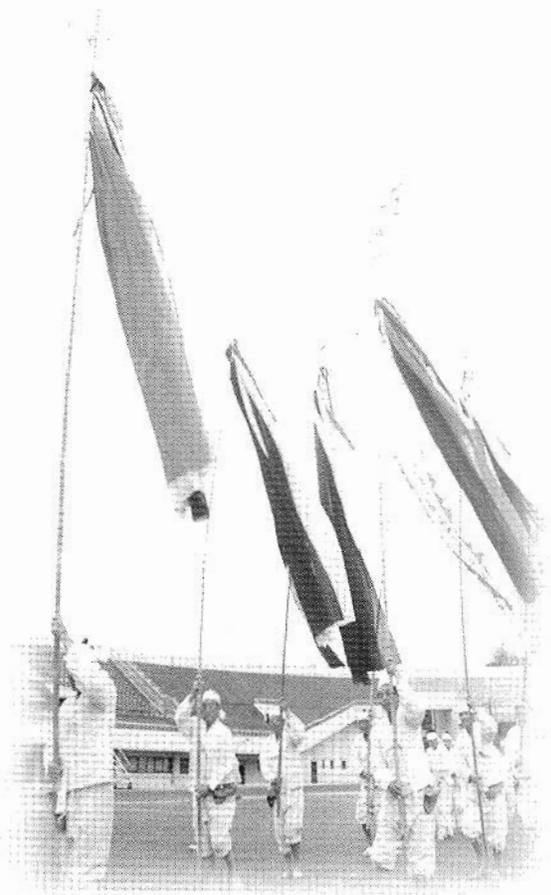
‘메나리’라는 용어의 유사범주 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미나리’가 있으며 이밖에 여러 명칭으로 ‘되노리’ · ‘메노리’ · ‘민아리’ · ‘미누리’ · ‘먼아리’ · ‘네나리’ · ‘니나리’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또한 현재 국악계에서 ‘메나리조’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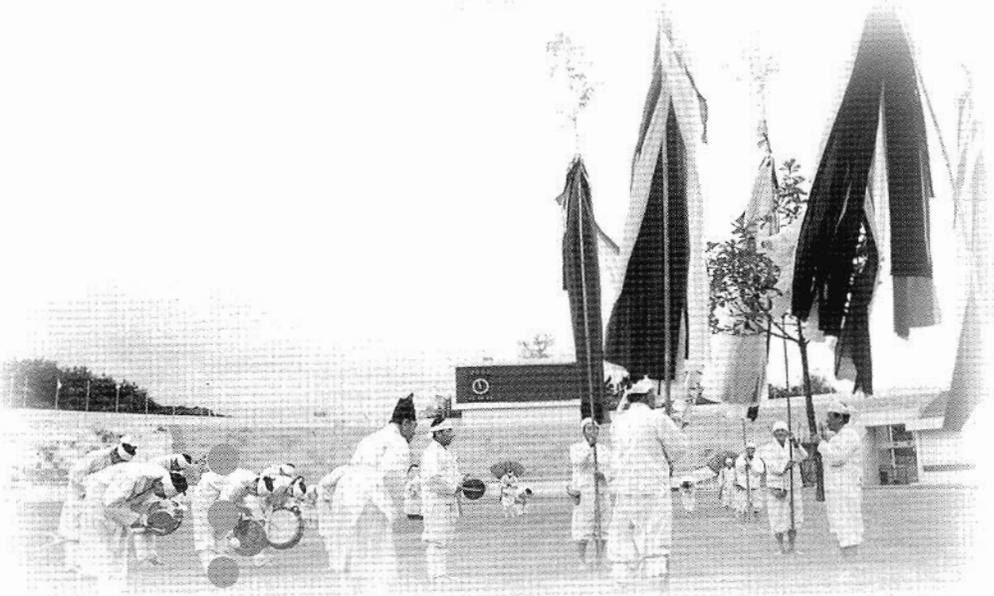
로 어느 정도 보편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용어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는 異論이 있는 형편이다. 메나리의 어원에 대한 정의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메나리는 강원도와 경상도, 그리고 충청도 일부지방에 전승되는 민요의 하나, 일명 <이나리>라고도 한다. 농부들이 김매며 부르는 노동요의 하나이다. 풍악쟁이들도 불렀으며 통소나 전대 혹은 풀지리로 불 때는 <메나리 가락>이나 <이나리 가락>으로 불리기도 한다. '국명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으나 <山有花>를 들어서 '외놀이'라 한 것이 메나리로 되었다는 설과 옛말로 이나리꽃은 한 철 이라 하는 데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다.

속초 도문메나리는 삼척이나 양양 메나리와 같은 계통이면서 전파적 영향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라불교의 본산지인 신흥사와 인접한 지역으로 불교영향권에 소리가 속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속초시 도문동에서 전래되는 농사과정을 김매는 소리인 메나리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연출한 내용은 다음장에서 소개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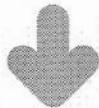


도문에나리 농요의 구성



첫째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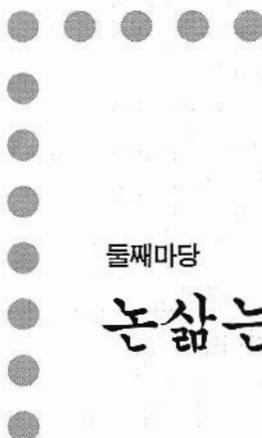
서낭굿



정초가 되면 한해의 풍년을 빌기 위해서 도문마을 사람들은 성황당에 모여 제사를 올린다. 이때 풍물패가 성황당에 모여서 서낭굿을 친다. 신목과 서낭대를 농악대원들이 둥그렇게 원형을 그리며 감싼 후 주민들이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고 상회가 쇠를 치면서 고사반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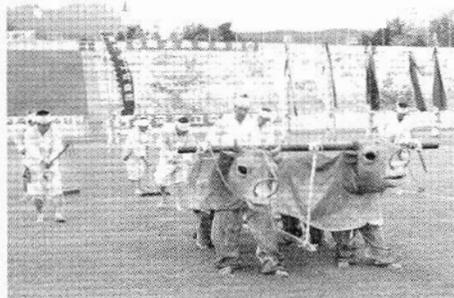


모십니다 모십니다 서낭님을 모십니다
서낭서낭 서낭님 강원도라 속초시에
설악산의 정기받은 도문동에 모십니다
서낭님모셔놓고 금년농사 잘되라고 비읍니다
물 없는 눈에 물을 주시고 오곡 가득 점지해주시고
마을에 만복이 가득하기를 서낭님께 비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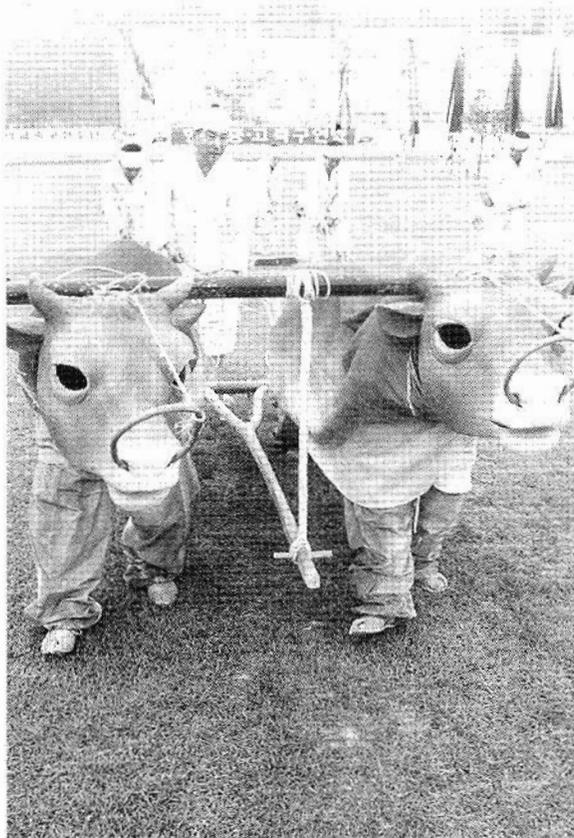


둘째마당

논삶는 소리



논삶는 소리는 '소모는소리'로 도문동에서는 주로 한스레 즉 거리소로 농사를 짓는다. 한스레는 소 두 마리가 끄는 스레로서 보통은 일 잘하는 소를 바른쪽에 세운다. 소 뒤에는 번지를 매달고 논을 가는데 소를 모는 성군은 소 한 마리 즉 호리소인 쪽스레로 논을 갈기도 한다. 논을 갈 때 유장한 가락에 느긋한 심성을 표출하는 이 소리는 소를 다 물고 끝이 날 때는 통칭 '~와'로 끝마무리를 한다. 논삶는 소리는 가창자나 소를 모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이러이러 어디야 이~이~

이 큰암소야 어정거리지말고야~ 어이
재곶으로만 찾아들어라 이러이러 헤이 이~

어뒤 어디야~ 이 오르내리지말구야

어디 얼릉 얼릉가자 이러이러 이이

설악산 화재봉에

해는야 올라섰는데 한눈팔지 말고 가자

이러이러 이이~ 어뒤 어디야 이이~

점심참아야 늦어가니 우리도 얼릉하고 말세

이러이러 이이~ 어뒤

쇠머리에 모춤 올라앉겠구나

얼릉얼릉 짹짜게 가자

이러이러 어~ 어뒤

해는 일락서산에 지는데

언제 갈고 집에 갈라느냐

이러이러 이~ 어뒤 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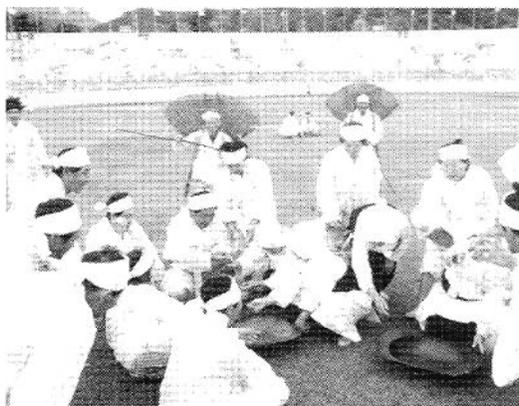


넷째마당

김매는 소리

도문동 농요의 대표적인 소리인 메나리는 '김매는소리'이다. 보통 두벌김을 맬 때부터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이 힘에 부치게 되므로 메나리가 불려지는데, 소리를 잘하는 농부가 앞 소절을 선창을 하면 나머지 농부들이 뒷 소절을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농부가 소리를 못하면 일꾼이 아니라 꿀꾼이라는 말처럼 메나리소리는 참일꾼만이 부른다고 한다. 이 메나리는 삼근권과는 달리 영북지방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소리로서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가사가 변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농촌에서는 세벌 김을 맬고 나면 마을주민들이 하루 날짜를 정하여 잔치를 연다. 이것을 이 마을에서는 '질을 먹는다'라고 한다. ●

매어나주게 매어나주게 요논배피 매어아어주오
 동해동창 솟은해가 빈공중에 높이아이뻘다
 지어나가네 지어나가네 점심참이 지어아어가네
 잘도나하네 잘도나하네 총각대방 잘도아어하네
 지어나가네 지어나가네 점심참이 지어아어가네
 산들산들 부는 바람 모시적삼 입고아어지고
 시원한 벽중에 적삼입고 일을하세
 지어나가네 지어나가네 점심참이 지어아어가네
 지어간다 말만말고 요논배피 매어아어주게
 잘도나하네 잘도나하네 총각대방 잘도아어하네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진다고 설워마라
 꽃이지면 아주나지나 명년삼월 다시피지





다섯째마당

벼베기와 한단소리

곡식이 익어 황금들녘을 이루면 참새들이 와서 벼씨 나락을 파먹는다. 이럴 때 허수아비를 만들어 세우고, 동네 청년들은 파대를 만들어 치면서 소리로 새를 쫓는다. 또한 농민들은 참새들이 벼씨를 파먹으므로 '위이위이' 하면서 소리를 지른다. 도문동 마을에서는 정월대보름날 들녘으로 나가 바가지를 두드리면서 새를 쫓는 풍속이 전하는데 이렇게 하면 가을철에 조류의 피해를 감할 수 있다고 한다. 파대는 새끼줄을 2m 정도로 꼬아서 만든 새 쫓는 도구로서 이것을 휘감아서 논바닥을 때리면 '딱' 하는 큰 소리를 내게 되므로 새들이 소리에 놀라 날아간다.

농부들이 논에 나가 벼를 베고 나서 '한단소리'를 부른다. 이것은 벼를 베어 넘기며 '~한단'이란 구절이 들어가는 것에서 그 이름이 유래한다. 실제로 낫으로 벼를 베 때 는 위험하다고 소리를 하지 않고 베 놓은 벼단을 묶을 때 한단소리를 한다.●



일런하더니 한단 나간다

너두 한단이면은 나두 또 한단 나간다

그 소리 끝나기전에 나도 또한단 나간다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일론 흙청흙청 하더니 나도 또한단 나간다

초승달 뜨기전에 너도 한단이야 나도 또한단 나간다

한단 한단 하지말고 부지런히 하게나

일론 하더니 나도 또 한단 나간다

너만 한단이야 나두 또 한단 나간다

여섯째마당

마랭이와 벗가리지우는소리

벗단을 세우면 농촌은 한 해를 마무리하기 시작한다. 벼를 털어 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마랭이'라고 한다. 태돌(태상)에 쳐서 떨어진 벼 낱알을 다시 도리깨로 치면서 탈곡을 하는데 태돌이란 널찍한 들맹이를 구해 놓고 사용을 했다. 도리깨는 보통 기능에 따라 상도리깨와 하도리깨로 구분하는데, 이때 상도리깨는 세로로 서서 먼저 치는 도리깨이고, 상도리깨가 치면 가로로 서 있는 여러 명의 하도리깨가 뒤를 받아친다. 상도리깨는 다음과 같다.

에호 에호 타작 한번 해보소

에호 에호 에헤이 에호

여기쳐라 저기쳐라 상도리깨가 나간다

에호 에호 에헤이 에호

사람들은 많다만은 도리깨소리는 적구나

에호 에호 에헤이 에호

찬석이오 만석이오 금년농사가 대풍이오

에호 에호 에헤이 에호

그럭저럭 하다보니 금년타작이 다끝났네

에호 에호 에헤이 에호

탈곡을 하여 벗가리가 모이면 한 편에 짚으로 동그랗게 또바리를 만들어 놓고 부채질을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하면서 벗가래를 지운다. 이때도 '벗가리지우는소리'를 하는데 선창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후렴을 받는다. 벗가리를 지운다는 것은 먼지를 날린다는 것이다. 온 종일 탈곡을 하여 모아 놓은 것을 다시 한번 더 까물면서 먼지를 털어 내는 작업이다. 가래를 들고 퍼 올리면 키를 가지고 털어 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털어 낸 벼 낱알을 삼태기로 퍼서 곳간으로 보내는데, 여럿이 모여 작업을 할 때는 일렬로 서서 삼태기를 건네주면서 운반하기도 한다. 온종일 탈곡을 하고 나면 벼 꺼풀이 여기저기 달라붙는다. 이를 '꺼끄러이'라고 하는데, 이를 없애기 위해 황덕불을 해놓고 불에다가 옷을 벗어 흔든다. ●



속초시 도문메나리 농요의 특징

도통의 길로 들어선다는 도문동의 메나리 농요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문메나리 농요는 마을의 역사를 살필 때 생성시기를 상당히 거슬러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 고찰인 신흥사의 권역에 속한 이 마을주민들은 일찍이 불교문화를 기반으로 신앙생활을 하였고 사찰소유의 부지에 형성된 농촌마을이다. 배경을 살펴보면 자연적으로 염불이나 범패소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1466년 윤 3월 14일 조선시대 세조 임금이 오대산 상원사로 가는 도중 강릉 연곡리에 머무르면서 농민으로 농가를 잘 부르는 사람을 모아서 장막 안에서 노래하게 했는데 양양의 관노인 동구리가 최고상을 받았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과거 양양도호부에 속했던 도문동 지역의 소리가 그 전통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도문메나리 농요는 두레농경을 하면서 불려졌는데, 속초 도문동에는 과거에 '질레'가

네 개나 있었다고 한다. 서로 '공론한다'며 모심기 차례를 정하면 15~10여명의 질레꾼들이 돌아가면서 모를 심고 김을 매준다.

이 마을에서 "질팔아먹는다"고 하면 모심기에 못나가게 될 경우 품앗을 대신하는 것이고, "질걸어 먹는다"는 말은 각자가 술이나 고기, 쌀, 돈 등을 낸 것으로 잔치를 벌이며 쓰레술도 먹는 것을 말한다.

메나리 농요는 아이짐 즉 초벌 김매기에는 벼포기가 약하므로 손상을 입힐까 두려워 소리를 하지 않고, 두벌 세벌 맬 때 주로 불린다. 김을 맬 때 부르는 소리로서 다소 정적이며 유장하며 구성진 가락을 지니고 있으며 시조창법하고도 유사하지만, 다른 농요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셋째, 도문메나리 사설은 김을 매는 하루의 일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특징을 지닌다. 처음 소리는 김매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이후 점심때가 되니 점심참을 먹자 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그 외 삶의 여러 모습들도 그 가사





속에 담는다. 김매기 소리는 메나리와 동강소리로 구성된다. 나른한 오후에는 좀더 호흡이 짧은 동강소리를 하게된다. 점심참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므로 김을 세게 매주기 위해 메나리보다는 빠르고 경쾌한 가락으로 동강소리를 부른다. 창법과 가사는 메나리와 비슷하지만 소리를 끝맺을 때는 '우겨라 우겨'라는 추임새로 끝을 맺는다. 이때 '우겨라 우겨라' 하는 것은 논김을 다 매자는 뜻이다.

넷째, 도문메나리는 4음보의 음수율을 지키고 있으며 후렴이 없으나 '아어'라는 여음이 들어가는 특징이 있다. 양양 메나리는 '이-히-'라는 후렴이 있고, 삼척 메나리는 '이후후'라는 후렴소리가 있는데, 속초 도문메나리는 삼척 메나리와 가사나 부르는 창법이 다소 다르다. 삼척과 양양은 4음보를 고수하는 것이나, 후렴구를 붙이는 것 등은 비슷하지만 소리의 톤(tone)을 보면 유장함에서는 도문메나리와 통하는 점이 있다.

김을 땔 때 강릉에서는 오독떼기를 부르고 속초와 양양, 삼척에서는 메나리를 부르는데 가

창방법, 음역, 리듬, 형식, 선율형, 음조식, 종지형, 가사 등은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가사를 비교해보면 '동해동창 솟는 해'라든지 '명사십리 해당화'라든지 동일한 가사도 엿보이고 또한 농촌관련 기사들이 많이 있고, 가창방법은 속초나 양양이나 비슷하다. 앞 소절은 선창자가 부르고, 나머지 3개의 소절은 모두 함께 부른다.

다섯째, 도문 메나리 농요는 농촌 삶의 애환이 담겨 있다. 노동의 힘듦, 지루함을 이겨내기 위한 그들만의 방법으로 일이 더디면 소리를 빠르게 힘으로써 일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또 일이 지루하면 경쾌하게 소리를 함으로서 분위기를 밝게 전환한다. 메나리 소리는 대체로 오전에는 느리면서 차분하게 소리를 하나 오후에는 빠르고 쾌활하게 소리를 한다. 점심참을 먹고 나서 새로 시작하자면 기분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밤에는 반찬이 날개요, 일에는 소리가 날개'라고 하듯이 소리꾼의 역할이 강조되고, 메나리의 전통은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



도문에나리 농요의 출품 의의

한국민속예술축제를 통해 잊혀졌던 도문에나리가 삶의 소리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은 민속학적 의의가 크다 하겠으며, 농사 전과정에서 불려지는 농산노동요를 순차적으로 구성하여 연출함으로써 그 교육적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또한 크게는 영북지역의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도문에나리가 속초시민의 생명의 소리로 다시 태어남으로써 문화적 긍지를 살리는 무형문화 유산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고, 작게는 도문동 상도문리 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노력함으로써 마을의 화합을 이루었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도문동 농요 회원 명단

단 장 : 최용문(속초문화원장)

고 증 : 김남형(남·81)

학술연구 : 강원도민속학회(장정룡 강릉대학교 교수)

지도연출 : 한정규(속초문화원 사무국장), 양언석(관동대 겸임교수)

신 목 : 오준석

서 낭 대 : 이상호, 김정길, 오기현, 박용범, 김훈기

농 기 : 박충일

단 기 : 오세진

좌 상 : 최선준

마 림 : 박원규

소 리 꾀 : 오순석, 오두현, 최도수, 이상옥, 김환기, 장진영, 주동진(호적), 오명현(쇠)

농 악(징) : 오진석, 신승태, 정호열

농 악(북) : 김동유, 김용학, 김태희, 정현애, 조성현

농 악(장구) : 박인옥, 김명진, 전성호, 최수미, 주미애

농 악(쟁가리) : 김동연, 박치영, 최웅식, 윤기준

지 게 꾀 : 김진표, 유복만, 구학림, 박의균

함 지 박 : 허금희, 권금자, 김정희, 윤복수

농부1조 : 오준택, 박용필, 박상균, 최준집, 오호택, 김진택, 이상녀, 안숙희, 홍성욱, 온설자, 박선춘

농부2조 : 진석환, 손복수, 박용성, 오임석, 오갑석, 신한용, 이한표, 김영애, 윤정숙, 박리선, 김순덕, 박옥련

농부3조 : 윤태환, 오세나, 김기영, 오춘석, 전제수, 손백수, 김옥수, 김순덕, 박순이, 마금주

농부4조 : 윤부웅, 이사선, 김용수, 김광수, 김정기, 이옥순, 김향필, 민경순, 최정숙, 오영자

지원(스텝) : 최택수, 이용운, 김성준, 정종천



속초시 영랑호 화랑체험장이 연내에 완공, 명년 봄 개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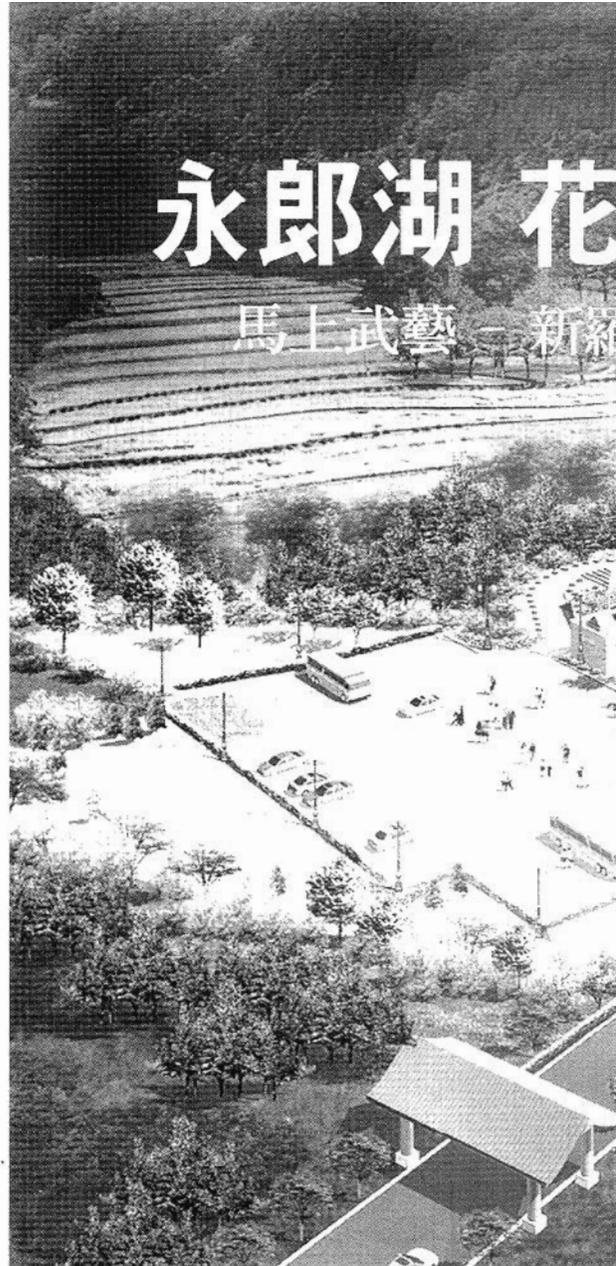
영랑호변(장사동415) 15,576㎡의 부지에 마사동(432㎡), 관리동(315㎡), 화장실(54㎡), 탈의 및 샤워실(32㎡), 판매점(18㎡)을 완공한다.

공연장=승마장(4,030㎡), 보조 승마장(504㎡), 제 1주차장(1,318㎡-대형 4대, 소형 37대), 제 2주차장(325㎡-소형 10대), 관람석(522㎡-8단, 60m)도 갖춘다.

속초시는-신라화랑·열말의 정기가 서려 있는 삼국시대 이후 처음으로 재현한 화랑체험장의 전통문화를 통해 -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전통 마상무예 및 승마체험을 활용, 청소년과 시민들의 심신수련의 장을 마련하고 내·외국 관광객들에게 우리문화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를 재조명 하는 등 현장체험을 통한 문화관광 상품화를 꾀하는 뜻을 가진 것이다.

화랑체험장의 구체적 활용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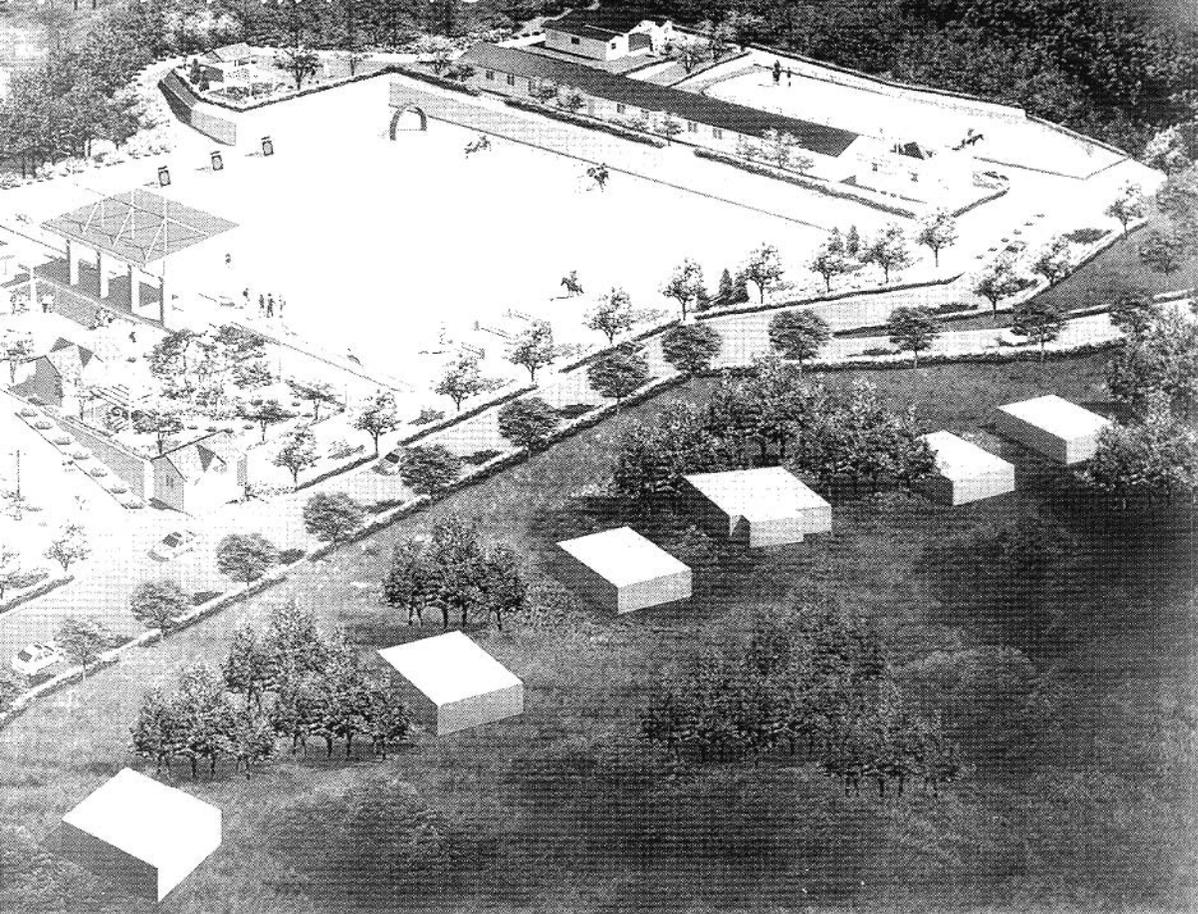
- 공연장 - 공연장의 전통무예시연: 1일 3~4회. - 관람객을 위한 전통의상(신라시대복식) 착용 후 관람. - 공연시 전통歌(가), 舞(무), 樂(락)으로 분위기 조성
- 화랑체험장 - 신라시대의 왕과 경대부의 장막(군막)병영 배치. - 신라시대의 성벽, 병영체험. - 관람객 체험시 비디오나 사진을 찍어 기념품 제공과 기념 수료증 배부.
- 체험합숙훈련 - 청소년반, 직장인반, 외국인반. - 수련기간 : 2박 3일(4~10월)



- 생활관 : 체험장내 야외천막활용
- 기별인원 : 30명 내외.
- 기초 승마 및 무예회원 운영 - 시민, 학생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
- 영랑기쟁탈 전국기사(騎射)대회를 연중 1회 유치, 실시할 계획이다.

3 体験場 건립

郎 · 永郎 精氣 계승



문화란 말을 간단히 말하면 사람의 사람된 생활,
즉 가치 생활의 총양상(總樣相)을 문화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문화는 창조 · 발명 · 자유 · 행복을
기본으로 충실한 생활의 모든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속초 학사평 순두부축제 육성해야

장 세 호 (속초시 노학회장)

속초시 노학동 학사평마을(통장:정희섭)은 107가구 15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순두부상가가 형성돼 관광객들이 머물러가는 복합 농촌마을로 새 농촌건설운동을 통해 잘 사는 마을로 거듭나고 있다. 학사평 마을은 지난 11월 6일 강원도로부터 새 농촌건설운동 추진계획을 인정받아 5억원 상사업비와 속초시의 최우수마을로 선정 돼 5천만의 상금을 받아 마을 발전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주민들은 농가와 상가의 유기적인 협조를 구축해 마을을 농림관광마을로 발전시켜 소득을 높이고 자연친화적인 관광마을로 가꾸어 나간다는 계획 아래 팔을 걷고 나서고 있다.

□ 새 농촌 건설 추진

마을을 홍보하고 주민의 의지를 모으기 위해 지난 11월 17~19일 3일간에 개최된 제1회 학사평 순두부 축제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예산을 마련해 치른 순수한 민간행사로 전국에 마을을 알리는 기대이상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19일 폐막

됐다. 3일간에 걸쳐 순두부축제행사에 참여한 관광객 연인원 15,000여명이 몰렸으며 이 중 대부분이 순수 관광객이란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속초시는 행사를 보다 짜임새있게 진행하고 지역축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일정부분 예산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대식 두부생산공장을 건설해 명품화 함으로써 순두부 상가의

위상을 높이고 직접 마을에서 생산한 콩을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농민과 상가 모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순두부촌 상가번영회와 계약을 체결 10ha의 논콩을 재배하고 학사평과 자활마을에 친환경 쌀재배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농가부업을 확대하고 향토민박촌을 조성해 관광객들이 머무르면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을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 환경 분야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거 및 주변환경을 개선하는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마을주변 우리 꽃으로 단장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8월 한화 4거리~시 경계 3km구간 미시로변에 우리꽃 8만그루를 심어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꽃을 접하고 인식시키도록 했다.

집안마당에 유실수를 심고 식당마다 우리꽃 화단 5평 갖기운동을 전개하고 매주 1회 앞마당 대청초를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 1,000톤의 퇴비생산과 5개소의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비롯해 농약 폐 비닐류 공병수거 등 환경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정신 개조사업

주민들은 새 농촌마을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의식을 발상과 참여 분위기 조성, 정보화 교육 동참에 나서고 있다. 주민 모두가 지난 9월 지역전산학원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 사용요령 등 PC활용 교육을 받았으며, 농협대학 강사진을 초청해 농업과 농촌마을이 나아갈 길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다.

내년 3월 중 시내 1가정과 자매결연을 추진 농지 및 과수를 1년간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고 체험활동을 높이기로 했다.

□ 도로 환경 개선 관리

주민들은 미시령 관통도로가 20-06년 완공예정인 가운데 교차로 위치에 따른 고가도로가 마을을 관통할 것이라며 불안해 하고 있다.

□ 지역 주민이 경쟁력 가져야

지방정부는 행정적 차원에서 도와줄 뿐 그 주역은 지역주민이다. 그리고 주민이 평소 갖고 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품화시키는 과정에서 지방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참여정부가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주축이 지방대학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지방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발상에 기한다. 지역주민과 지역상인은 아이디어를, 지방대학은 상품화를, 지방단체는 행정지원을 하는 삼각협력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요즘 전국적으로 지역 축제가 한창이다. 강원도도 이제는 각 시군마다 한가지 이상의 지역축제를 치루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며 조직화 되어 있는 상인들의 행위는 축제의 분위기를 복돋아주는 듯 하지만 사실상 축제의 모습을 획일화시키고 있다. 깨어있는 지역주민과 대학들이 주축이 되어 개발한 독특한 관광상품들은 더 많은 관광객들의 유입과 함께 소비를 증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금번 처음으로 시도한 노학동 제1회 학사평순두부축제가 기대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관광지 경제의 견인차는 숙박업체와 요시업체 그리고 지역소상인들이다. 지역의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의존하는 시대에서 지역의 주민이 핵심이 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시대를 만들어 가야한다. ●

국제문화탐방 - 베트남, 캄보디아

전국문화원연합회 강원도지회

전쟁傷痕의 廢墟를 딛고 開放, 高速成長의 물결

전국문화원연합회 강원도지회(지회장,李大根 춘천문화원장)가 매년 갖는 국제문화교류사업으로 올해는 관내 문화원장 15명이 9월 1일부터 5박 16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다녀왔다.

우리 문화원장들은 국군이 64년부터 73년까지 8년 8개월간 연인원 312,853명이 참전하여 사망 5,077명(전사 4,597명, 순직 277명) 전상자 10,962명이란 베트남전의 그 흔적들을 피상적이거나 돌아봄이 제일의 뜻이었다.

첫날 10시 50분 인천 영종도 공항을 출발하여 호치민(사이공) 탄소누트 공항에 내린 후 바로 다시 비행기로 캄보디아 씨엔립(인구 160만)에 오후 7시 30분(현지시간, 시차 2시간)에 도착하여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캄보디아부터 보고 베트남으로 돌아오는 일정인 셈이다.

호텔은 우리나라의 2급 수준은 족히 되는 시설이었다. 다음날 전용버스(현대 30인승용)로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라는 앙코르와트(angkor wat) 유적지 관광을 시작하였다. 앙코르둠, 코끼리 테라스, 타프놈사원, 바문사원 등을 관람하는데에 하루 해를 보냈다.



◇ 동양 최대의 톤레삽 호수 수상촌락



◇ 베트남 유일의 호치민 동상



□ 앙코르와트(와트=사원)는 세계 최대의 사찰로 7백 50m의 1층 회랑(回廊)벽에는 힌두교 신화와 앙코르제국의 승전에 관한 기록이 뿔뿔이 새겨져 있었다. 크메르 왕조의 전성기인 12세기에 수리야 바르만 2세(1113-1150)에 의해 암으로 만들어진 이 매미드 사원은 골조에만 7톤짜리 돌기둥 1천8백여개가 입됐다 한다. 인도와 인도차이나 지역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는 이 사원은 4면을 동시에 건립하기 시작하여 무려 40년만에 완공에 이른다 한다.

앙코르와트의 세계 최대의 웅대함에 이어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동양지역 대부분의 사찰이나 신사의 출입은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을 향해 있기 마련인데 이 사원은 주출입구가 저쪽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죽은 사람을 위함이니 왕의 사후를 예비한 영묘라는 것이다.



서 (강원문화원장들)

□ 앙코르 톰 - 앙코르 와트로부터 1.5km에 위치한 '위대한 돛' 라는 뜻을 지닌 앙코르 왕국의 도성이었다 한다.

□ 코끼리 테라스 - 불교 스타일로 길이 300m, 높이 3m로 5개의 계단을 해서 올라간다. 이 장소는 각종 행사의 공공장소로 이용된 것이라 한다. 이 테라스에 코끼리와 가루다의 부조가 새겨져있다.

□ 파프놈 사원 - 자야바르만 7세가 1186년에 폐워된 모친의 기거지로 지어 헌납했다는 사원으로 마치 앙코르 톰의 축소판과도 같다 한다.

□ 바이온 사원 - 자야바르만 7세가 12세기 말에 건립한 톰의 중심사원으로 50개의 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탑에 조각된 4면체의 보살상이 유명, 보살상 얼굴의 수는 무려 216개나 되는데 건축자인 자야바르만 7세의 얼굴이란 설이다.

캄보디아를 통치한(790-1432) 절대 군주들이 생전에 거대한 신전, 사원을 건립하여 죽은 후에는 산과 합체한다는 신앙으로 만들어진 이 앙코르 사원과 톰이 태국 아유타야 왕조의 세력을 지금의 수도 프놈펜 지방으로 옮겨져 15세기 후반 쇠퇴, 이 앙코르 왕국의 유적이 밀림속에서 잊혀져 있다가 400여년이 지난 1860년 프랑스의 탐험가 앙리무오에 의해 재발견 되었다 한다.

오늘에는 일본인들에 의해 붕괴된 사원의 복원 작업이 한창이었다. 우리는 이 역사의 파노라마에 심취, 입을 다물 줄 몰라 했다.

사흘째 되는 날(9월 3일)- 씨엔립의 호 텔을 출발하여 동양 최대의 호수 톤 레삽 호수 및 수상촌을 찾았다. 캄보디아 면



◇ 거리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 행렬이 승용차를 밀결치는 모습

적의 15%를 차지한다는 이 호수는 우기의 만수때에는 호수 면적이 무려 25,000km²에 이른다 한다. 다양한 식물 및 어류는 캄보디아인에게 60% 이상의 단백질을 제공한다니 실로 보고였다. 호수의 뚝을 양측으로 하여 판자촌과 수상촌이 인상적이기에 앞서 빈민 생활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순간들이었다.

이 수상가옥에서 돼지와 개 그리고 양어장(한평 정도의 나무막대기로 망을 만듬), 잡화 가게가 눈에 띄었다. 물론 수송수단은 동력, 무동력의 전마선류도 비참하기 그지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베트남 난민도 끼어 있었다. 우리는 호수의 빈민가를 뒤로 하고 크메루즈의 학정으로 150만 살상의 유해(유골)이루가 안치되어 있다는 왓트마이 사원을 둘러 보았다. 사원내 유리관탐 속에 가득 쌓인 유골을 보면서 '킬링필드' 영화를 떠올리게 했다. 우리의 캄보디아의 일정은 여기서 끝



문제라고 - (호치민시 거리에서)

나면서 가는 곳마다에서 맨발의 어린이들의 밀짚모자 등 기념품팔이 세례에 발을 옮기기에 힘든 씨엔립을 뒤로 하고 비행기로 1시간 30분 거리의 호치민시로 이동, 오후 2시 30분에 도착하였다.

재래시장 등 간단한 시내구경을 하고 호텔에 투숙하였다. 호치민시는 서울의 약 3배에 달하는 2,056km²의 넓이에 해발 10m 내외의 낮은 평양 지구이다. 인구 약 750만에 1인당 GNP 2천여달러(베트남 국민 천체 평균 1인당 GNP 500달러)로 베트남의 경제 중심 도시로 거리의 풍경만으로도 대단히 활기차 보였다. (물론 전날 캄보디아 씨엔립을 비교하면서 더욱)

나 홀짜 되는 날 아침 호텔내 양식 뷔페 후 10시 30분에 출발, 통일궁과 유니콘 섬 구경을 하였다. 통일궁에서의 대통

령의 화려한 생활상과 전쟁 총지휘소였다는 지하벙커 시설과 대통령이 항복하고 망명을 위해 타고 갔다는 같은 형의 헬리콥터가 옥상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 월남패전 역사의 현장을 웅변하고 있었다.

일행은 이어 미토로 이동(메콩델타), 쯡롱 생선 요리로 점심을 먹고는 메콩강을 따라 정부에서 시범으로 만들었다는 전통 생활상과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농장이 있는 유니콘섬(호치민시에서 75km거리)으로 옮겼다. 여기에서 정글 속의 가옥구조 등 생활상과 각종 열대과일 농장을 구경하고는 섬내의 좁은 도랑을 짱크선(4인승)으로 메콩강 본류로 빠져 나와 기선을 타고 육지에 상륙, 빈트랑 사원을 둘러보고는 호치민시 호텔로 돌아왔다.

닷 새째 날이다. 오늘은 베트남 전쟁의 현장 보기이다. 전쟁박물관과 율맹군 지하 사령부였던 구찌터널 답사이다.

전쟁박물관에는 우리 국군의 각종 전투 모습과 베트남들의 살상용 무기들(특히 작두, 창등)이 우리의 가슴을 오싹 조이게 하였다.

이어 찾은 구지터널의 구조는 우리의 상식을 넘은 정말 훌륭한(?)작품이라고나 할까.

지질적으로 석회석 지역이란 특징이 우선 터널로서는 적지로 보여졌다.

깊이 80m 아래까지 거미줄 같은 장장 250km의 터널에 무기제작공까지 차렸다 하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1만 5천명이 2년간 버틸 수 있다는 완벽한 지하도시를 거미줄처럼 구축해 놓은 것이었다.

우 리는 10m의 굴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만 숨이 콕콕 막혔다.



◇ 재래시장 좌판대의 아낙들 - 활기찬 삶의 현장 이었다(호치민시)

내려갔다 올라갔다 요리조리 꼬불꼬불한 터널은 귀신굴 이면 이만 더할가 싶었다.

안의 연기를 삼단으로 침전시켜 가랑잎 등으로 덮어 위장한 구멍 굴뚝으로 내어 보내며 또한 출입구를 개미집으로 위장한 그 기술은 실로 경탄이었다. 숲 속 곳곳에 만들어진 함정 등의 각종 덫과 창살류는 다시 볼까 봐 겁이 났다.

'전투에는 이기고 전쟁에는 졌다'는 가이드의 설명이 이해가 되었다.

구찌터널을 나와 고무나무 농장을 구경하고 소치민 시내에 들어와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 졌다는 구시가지의 노트담성당, 시청, 중앙우체국 관람에 이어 베트남내의 유일하다는 호치민 동상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였다. 이제 오후 5시(우리시간 오후 7시)가 되었다. 교포가 운영한다는 토산품 센터에서 쇼핑을 한 다음 메콩강의 유람선을 타고 선상 만찬을 끝으로 하고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이번의 국제 문화탐방은 사상이념의 갈등으로 빚어낸 인류의 참상이 이땅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함이 절실한 현장이었다.

메콩강 델타의 그 넓고 넓은 평야의 삼모작이 가능한 옥토, 바다와 호수의

풍부한 수산물과 유전, 북쪽산간의 무진장한 광산물 그리고 이러한 자연 생활 환경속에서 양코르와트 같은 역사적 유적을 안은 살기 좋은 나라 그러나 전쟁으로 오늘의 폐허가 되었음은 우리의 서글픔을 더해주었다.

혈땀은 국민들 참상은 우리에게 6·25를 상기시켜 더욱 감회가 새로웠다.

그러나 중국과 1,000년, 프랑스와 100년, 미국과 10년 싸움에서 승리한 베트남인들의 가공할 국민적 결집력은 지난 87년부터 시작한 개방으로 자본주의화의 물결을 타고 발전에 가속을 더해가는 모습은 우리를 경탄케 했다. '토지의 50년간 사용권'이며, 사기업의 인정(부분적이지만), 적극적인 외자도입 정책 등은 경제를 크게 부흥, 삶의 역동성을 한층 고조시켜 오고 있다 한다.

미국에 3년 앞서 92년도에 수교한 우리나라는 기업징출이 활발, 현대·삼성등 선전간판이 후치민 시내에 널리 보이고 현대·대우등 우리차 들이 길에 줄을 서 우리 대기업이 줄잡아 40개가 진출해 있다는 말에 가슴 뿌듯한 하루였다.

"저 물결치는 오토바이들이 소나타 승용차로 바뀔 날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 10년 경력의 가이드(교포)의 말이 점치는 헛소리만은 아닐 것 같았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개방의 물결을 안고 힘차게 살아가는 베트남인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낸다. ●

〈 최 용 문 속초문화원장 기행 〉

일본 가이나 마쓰리제(祭)

(속초시 자매 米子市)

속초문화원 주부
풍물단 두드리패 - 기행



유 영 순

· 속초문화학교 두드리패 단원
· 사회복지회관 노인 사물놀이강사

일본 '요나고시'에서의 첫날

속초시와 자매 결연을 맺은 일본의 '돗토리현 요나고시'의 축제 행사에 속초 문화원 사물고급반이 참석하게 되었다.

부단한 연습을 하고 떠나는날 새벽 4시 30분경, 아파트 현관앞 경비아저씨도 잠들어 조용한 새벽길을 달려서 시청에 도착하니 몇몇 사람이 나와서 짐을 싣고 있었고 잠시후, 문화원장님의 이른 새벽 환송을 받으며 우리는 인천 공항을 향해 출발길에 올랐다.

밤길을 조심하라는등, 화장실을 가더라도 간다고 꼭 보고 하여 행선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등의 몇 가지의 주의 사항과 일본서 근무할 때 재미난 에피소드를 국제 협력과에 근무하시는 김두령씨의 이야기를 재미나게 들으며 지루하지 않게 인천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여유로운 출국 수속을 마치고 다소 들뜬 마음으로 비행기에 오르자 얼마 안있어 약식의 점심이 나왔다.

웬지 맛이 없다. 아직도 원주와 강릉 상공

을 지나고 있다는 말에 갑자기 강원도의 산하에 애정이 실어진다.

창가 옆에 앉은터라 밖을 내려다 보니 날씨가 상당히 좋은갑다. 비행기를 타면서 이렇게 깨끗한 구름은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커피 한잔에 맘을 달래는데 바다 한가운데 정말 그야 말로 외로운 섬 하나 일본이 보인다.

요나고시(米子市)쌀이 유명한 지방이라 '미자시' 라고도 불리운다고 한다.

오후 1시 45분 도착. 인천 공항서 1시간 25분이 소요된 거리다. 짧은 요동을 일으키면서 비행기는 착륙이 되었고 우리는 또다시 입국 수속을 밟은 후 짐도 찾았다.

일본 현지인들이 우릴 환영한다. 속초서 두어번 만난적 있었던 메구미짱이 환송 나온다 하더니 정말 멀리서 그녀의 모습이 보인다. 여전히 해맑은 모습이다.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아직도 서툴긴해도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우리



郷土の発展を願う ワールドカップグループ



▲ 가이나 축제에서 열연하고 있는 두드리패

말고 나를 안아주며 반가와한다.

미리 냉방으로 시원한 버스에 오르니 “요나고시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라는 한글 자막이 우릴 반겨주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요나고시 역전 바로 앞에 워싱턴 호텔로 들어섰다. 4박 5일동안 우리가 머무를 숙소이다. 1인 1실의 방을 배정 받고 호텔 체크인을 끝낸다음 시청에 들러 시장님을 먼저 만나기까진 아직 시간이 있어 요나고시가 자랑하는 문화 센타를 한곳 관광하기로 되어있었다.

날은 무척 뜨겁고 도로엔 지열이 오른다.
요나고시(米子市)컨벤션센타 정경

- 공사기간 : 1995년 8월~1998년 1월
- 개 관 : 1998년 4월 29일
- 부지면적 : 1,7661 평방미터
- 건축면적 : 7,923 평방미터
(지하1층~지상6층)
- 주요시설 : 다목적 홀(객석 2004석) 소홀(객석 300석) 리허설실, 국제회의실, 정보 플라자 등.
- 이용시간 : 오전 9시 오후 10시
- 휴 관 일 : 연말 연시

人の

丸

전시회나 견본 시장, 국제회의 등을 대응한 국제 교류 거점을 위한 시설로서 2000석의 좌석이 보유된 중앙 무대설은 거의 좌석의 3분의 1은 비상시 바닥 전체가 무대 밑으로 이동된다고 한다. 그림이 잘 안그려지는 이야기다.

무대에 한번 올라가보라는 권유를 받고 올라서니 몇장의 사진을 찍는다.

의자에 앉으니 옆으로 딸린 작은 책상이 챙겨지니 감탄이 이어졌다.

1995년 8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1998년 1월까지가 공사 기간이란다.

지진과 바람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모든 건물에 그 공법이 이용된다는데 이해가 갔다.

깨끗하고 질서 있고 지나치도록 친절 한 그들의 모습을 대한다.

그들의 생활 문화인 것인가?

오후 4시 30분. 버스에 올라 단 시간에 달려간 곳이 요나고시 시청이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해오신 시장님이시라 모든 일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는 우에다 실장님의 안내를 받으며 시청에 들어서니 우리네와 사뭇 다른 분위기의 시청 업무 환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모든 사무실이 오픈 되어있고 작은 공간속에 어느 한자리고 담당자들이 자털 비운 모습이없이 빼곡이 앉아서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다 우리가 들어서니 눈 인사를 건네 주었다. 가운데를 복도로 두고 양쪽은 창구식으로 옆으로 지나가기가 미안할정도로 오픈된 사무실이다.

그들은 정통 한복을 차려입은 우리의 등장에 짐짓 놀란 표정들이었으나 자리에 일어나 보려는 눈치는 아니었다.

바로 시청 제 2응접실로 안내되었고 시장님 이하 아홉분의 수행원들이 벌써 우릴 기다리고 있었다. 일일이 악수를 받고 각자의 명패가 놓인 자리에 우리는 조심스레 안내를 받고 앉았다. 우리측 공연단 감독으로 함께한 최봉하 문화원 사료관장님께서 우리들을 일일이 안내하셨다. 간단한 소개와 환영식을 마치고 우리는 시장님께서 마련해주신 만찬 장소로 바로 이동하였다.

요나고시에서 9명 우리측 11명 총 20여명 뿐이다. 건배제가 요나고시 부시장님이 하기로 되어있었다는데 참석을 못하셨단다.

음식이 너무 이쁘게 나왔다. 그네들은 식사하기전에 먼저 술을 마시는 풍습이 있다.

소주를 각자 한잔씩 따라 주긴 했지만 속초에서 마시던 우리의 소주와 달리 별로 맛이 없었다. 쓰고 부드럽지 못했다.

시장님께 한잔 드리고 싶는데 언제쯤 드리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일본인들은 잔에 술이 남아 있어도 권하고 싶을 때 아무때나 따라주어도 무방하다 한다. 맥주로 건배 제의가 끝나고 잠시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라는 인사말과 함께 시장님께 맥주한잔을 건넸다. 시장님도 답례로 한 잔 따라 주셨다. 다소 긴장된 시간이 지나자 각자 서로의 명함을 주고 받았고 우리는 준비한 작은 선물도 함께 드렸다. 작은 선물이었지만 좋아하는 모습에 준비해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뷔페식으로 나오는 음식은 너무 이뻐다. 음식 때문에 이번 여행이 더 행복했었던것 같다. 각 테이블 마다 통역해줄 일본 현지인들이 하나씩 배치 되었는데, 우리는 많은 질문을 했다.

식사를 끝내고 2차를 갔다. 쉽게 우리네 노래방 같은곳인데 술도 함께 파는 곳이었다.

다소 왜소하고 접대인 듯한 여자분 두서너명이 있었고 좀 초라해 보이기까지했다.

주문을 받거나 술을 내올땐 바닥에 무릎을 꿇는 것이 이색적이었다.

일본 여성의 비애가 엿보이는 순간이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택시 문화를 접하게 해주는 그네들의 세심한 배려로 호텔까지 택시를 이용해 왔다. 운전석이 우리와 반대였고 그로 인해 손님석에 탈 때 자꾸 운전석 뒷문을 이용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문은 자동이어서 기사님이 자리에 앉아서 닫기전까진 우리가 닫게끔 아니 되어 있었다. 아주 친절한 기사분의 인상이 지금도 그려진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풀었다. 요나고시에서의 첫날밤이 깊어가는 시간이다.

요나고시에서의 이틀째

아침에 여지없이 5시에 눈을 떴다. 일본에서 맞는 첫 아침이라서인지 모닝콜이 울렸어도 옆방 형님이 각방의 문을 한 번씩 두들겨 주고 지나간다.

아침식사는 7시 30분부터 10시까지다.

9층에 자리한 식당으로 올라갔다. 일본식과 서양식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 해야했다.

다른 형님들은 전부 일본식을 시켰지만 된장국과 바닷나물 무침 김 젓갈류 등등 우리네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빵을 좋아하므로 난 빵으로 아침을 시켰다. 커피도 한결 순해서 즐기지 않던 커피를 마시는데 그리 부담스럽지 않게 마실 수 있었다. 어떤 형님은 손가락이 없을까봐 손가락까지 챙겨왔다는 말에 우리는 한바탕 즐거운



▲ 거리 행진에 맨 앞장서 판긱을 펼쳐 보이고 있다

웃음을 웃을수 있었다.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준비하고 호텔 1층 로비에 내려가니 이미 일본측 사람들이 다 와 있었다.

벌써 부터 꽤나 아침햇살이 뜨겁다. 큰 키에 수려한 모습의 이즈미 과장님의 허리굽힌 아침 인사가 정겹다.

달리는 버스안에서 거리에 그려진 풍경들은 우리네와 다를바 없었지만 농촌 마을이 단아하고 깨끗함이 인상에 남았다.

마당도 좁은데 집집마다 조경이 잘 되어있는 이유를 물었더니 바람이 심해서 바람막이 효과를 보기위해 나무를 많이 심는단다.

10시경 출발해서 30분정도 버스로 달려간 곳은 신들이 모여있는 큰 절이다.

이즈모 타이샤 (出雲大社)

지붕 모양이 아주 이색적이다.

지붕엔 이끼가 서식하도록 환경을 갖춰준 것이 이색적이었고 복의신, 즉 인연을 맺어주는 신이 있는 곳.

일본 국내에서도 유명한 신사(神社). 본 전은 일본에서도 가장 오래된 다이샤 건축이며 고대에서는 궁중 신전이였을지도 모른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뜨거운 태양아래서도 더운줄도 모르고 하

나라도 농칠세라 열심히 구경하고 셔터를 눌러댔다. 역시 지붕 기와에 이끼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 보였다.

일본의 신들이 죄다 모여서 제를 지내는 모습을 조각한 모습이 눈에 띄었고 그 앞에서 한컷했다.

나무마다 하얀 꽃처럼 매달린 것이 눈에 띄길래 무엇인가 가까이 가보니 우리네 보름달 달집 태우기 행사에서 소원이나 바람을 적은종이를 달집에

매달아 태우듯 일본인들은 점괘가 적힌 종이를 사서 읽어본 후 그 종이를 나무에 매달아 놓는다. 손이 닿을만한 곳엔 다 달아 놔서 나는 할 수 없이 나무둥지 껍질에 정성스레 걸었다.

신악전 앞에 걸려있는 시메나와(금줄)은 일본에서 가장 큰 크기의 금줄에 매달린 벌집 모양의 짙숙으로 동전을 위로 올려 던져 동전이 그안에 꽂혀 떨어지지 않으면 좋은 일이 있다하여 나도 열심히 던져 보았다.

“웃샤~!” 성공! (은근히 좋은 일을 만나지려나 기대도 해본다.)

11시 30분경 신전을 빠져나와 우리는 이즈모 소바로 점심으로 먹으러 갔다.

여전히 밝은 뜨겁고 무덥다.

국수가 동그란 층층 찬함으로 나오는데 다섯가지의 국수가 나온다. 양은 그리 많지 않으나 다섯그릇을 다먹고나니 배가 불렀다. 소스는 어디를 가나 우리가 흔히 부르는 왜간장 냄새가 짙은 간장소스였고 국수마다 고명이 달라 맛도 달랐다.

점심을 먹고 가까운 히노미사키란 등대를 시찰 하였다.

서부의 명승지로 기암 절벽 위에 동양최대

의 높이를 자랑하며 등대는 전망대로 되어있어 말그대로 웅대한 전망이 좋았다.

등대안으로 들어서니 신발을 벗고 오픈되어있는 신발장의 키를 갖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층계의 폭도 너무 좁은데다가 경사가 어찌나 심한지 올라가면서도 내심 내려올일이 걱정이 되었다. (오르고 내리는 일이 너무 불편하게 되어있어서 아쉬웠다.)

등대에 올라 바다를 보니 망망대해가 한눈에 들어오고 등대 높이가 높다 보니 시야가 멀리까지 시원하다. 개관 시간은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10월에서 3월까지라 한다. 입장료는 엔화로 150엔.

4시가 넘어서자 와인을 제조 하는 곳을 시찰 하러갔다.

와이나리 전경

예전에 진로 소주 공장을 견학 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금방 만들어진 맥주와 또 각나라의 양주와 소주를 마셔본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향도 좋았고 술맛이 좋았다는 기분이 지금도 변함없이 있었기에 시마네 와이나리를 방문한다기에 은근히 기대가 되었다. 기대를 안고 들어선 지역의 특산물이라는 와인, 맘껏 시식을 할 수 있었으나 어느 하나도 내 입맛에 맞는게 없었다.

그래서 별로 특별히 남는 인상이 없다.

부지면적이 48,406 평방미터이며 건물 면적이 7,463평방미터 주차장 버스 25대, 자가용 350대를 수용.

개장시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나 6월부터 9월까지 오후 6시간까지 1시간 더 연장한다.

곧바로 숙소에도 들릴 시간없이 기획부장

환영 만찬회에 참석하러 갔다.

요나고시 뉴아망 호텔에 도착한 것은 오후 5시 30분. 마쓰모토 후미아키 기획실장님은 이국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모습이었다.

정갈한 모습에 광대뼈가 유달리 시선을 끌었던 것 같다.

우에다 실장님은 소문대로 필리핀 사람처럼 생기셨으나 정말 부지런하고 친절했다. 오늘도 그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셨다.

내가 소주를 한잔 권하자 단숨에 마시고 잔을 머리위로 털어 보이신다.

정말 재미있는 분이시다. 메뉴엔 김치가 나왔는데 사스 출현이후 김치가 더 인기가 좋다는 말을 전해 듣고 자긍심을 가져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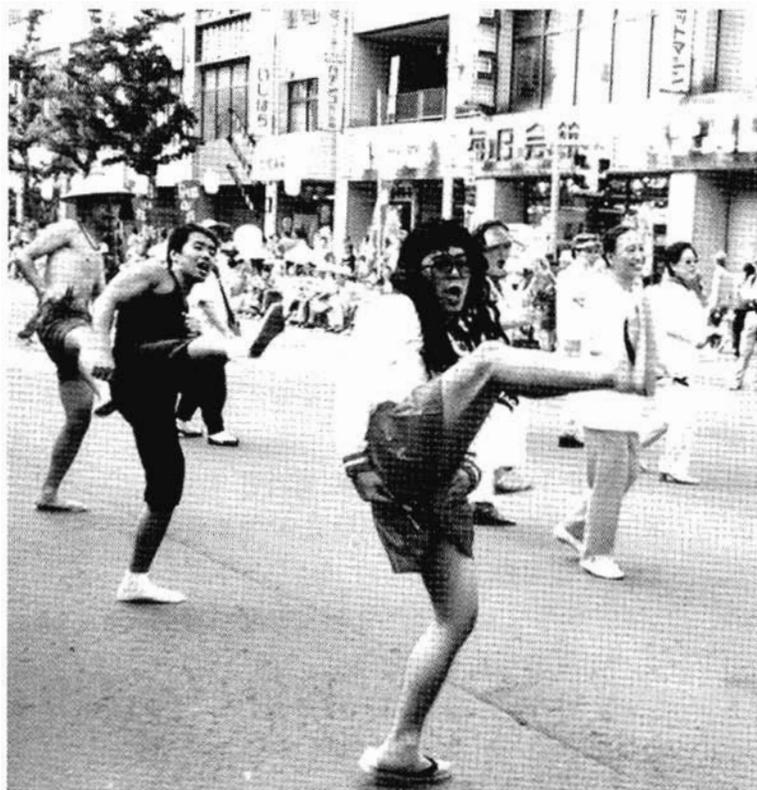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우리는 작은소리로 우리의 가곡을 부르며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왔다.

밤 10시시경, 대부분의 집의 불들은 꺼져있었고 지대가 거반 평지이다보니 높고 낮음도 없고 마당도 없이 담을 친듯 나무만 무성하니 얼마나 더울까 싶다.

호텔에 도착하여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없이 각자 룸으로 돌아가 씻고 널 퍼레이드에서 쓸 고깔 꽃과 픽상모에 달 꽃들을 손질했다. 그렇게 요나고시에서의 이틀째 밤을 보냈다.

일본 요나고시에서의 상일째

눈을 뜨니 5시다. 각 방의 문들을 한번씩 두들겨 준 다음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젖혀 여니 밤새 도로엔 무대가 만들어져 있었다.



▲ 시민들과 신나는 한판이다

어제 호텔에 들어설때까지만해도 그냥 차가 다니는 도로였는데 언제 딱딱 거리며 무대를 만들어 놨는지 참으로 신기했다.

TV를 켜서 뉴스 채널에 맞추고 또 알아 듣지 못하는 뉴스를 시청했다.

옹거니 오늘부터 '가이나 축제'가 열린다고 잠깐 소개된다.

일본의 축제는 각 지방마다 이쯤에서 축제가 열린다고 한다.

축제 내용이 가까운 이웃 지방이라도 전혀 다른 내용으로 열어서 다양한 각 지방의 모양을 볼 수 있다고 나중에 메구미씨한테 전해들었다.

전국 어디를가도 축제 행사 내용이 거의 흡사한 우리네와는 달리 일본은 간단하면서도 지방의 특성을 한껏 살린 축제를 한다고 한다.

아침을 들고 시간이 있어 역전 주변을 돌아보기로 하였다.

행단보도를 건너는데 장애인들은 자기가 건너고 싶으면 신호등을 수동으로 작동하여 건너는 것을 보고 장애인 시설에 신경이 쓰인게 엿보였다.

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고 차도 우리나라의 티코 크기만한 소형차들이 대부분이었다. 차가 그리 많지 않은건지 아니면 내가 차가 많은 나라에서 살다와서인지 도로가 한산해 보였고 경적소리또한 들을 수 없었다.

9시 30분경 1층 로비로 도착했다.

우선 오늘 목적지는 명품 판매점을 시찰한다.

2시간정도 시원한 버스 안에서 차창 밖으로 내다 보이는 바닷가의 일본 해송은 이쁘지 않았다.

나무도 거칠게 보이고 우리네 해송처럼 멋도 없었다. 산죽이 꽤 눈에 뜨인다.

매장에 도착하여 우에다 실장님의 유의 사항과 안내 사항을 제주도 출신은 현숙경씨가 통역을 했다(현 시청 통역사로 근무하고 있다.) 꼭 필요하신 것만 사고 오십분만 소요해달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물건 사는데 통역사들이 한사람씩 붙어 다니니 삼삼오오 짝을 지어 다니고 화장실을 가더라도 꼭 누군가에게 알리고 가란다. 옹은 말씀이다.

상냥한 메구미짱을 불러 함께 동행하여 쇼핑을 마치고 모이는 장소로 갔더니 우에다 실장님이 양손을 높이 들고 우리를 향해 흔들어 보인다.

일행이 모두 모였다.

시간관념이 투철한 일본인들에게 '코리안

타임'이라는 낙인을 남기지 않으려고 우리는 시간약속에 신경을 썼다.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아마도 기뻐할곳이 라나? '야키니쿠 가조크데이'란 곳이다

들어서는 입구부터가 일본인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전통옷을 입고 게다를 신은 여자분이 두손 공손히 모우고 우릴 맞는다.

마당엔 이미 지열이 피어오른지 한참되었는지 물을 한껏 뿌려놓은 가운데도 하얀 연기는 눈치없이 피어오른다.

하나 하나를 음미하면서 우리는 연발 맛 있다고 노랠해냈다(정말 음식 때문에 행복했다)

점심을 먹고 우리는 숙소로 향했다.

오늘 전야제 거리 퍼레이드가 오후 3시경에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행사 참여하는 단체가 많아서 오후 3시부터 해서 밤 10시에 끝난다 한다.

호텔에서 잠깐 휴식을 갖고 우리는 드디어 공연할 준비를 갖추고 각자의 악기를 메고 호텔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청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시청서 걸어서 이곳 무대까지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시청에서 전야제를 알리는 행사가 있는데 단체 직장 인사들이 특유의 옷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게다에다 그들의 버선과 하얀 반 바지 모양의 전통옷을 입고 머리엔 띠를 두르고.....(솔직히 내가 보기엔 체신 머리없는 모습이었지만 그들은 그 모습에 매우 만족해 하고 행복해했다) 전통적인 행사가 하나 있는데 시작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술통에 술을 하나가득 채운뒤 그 위에 덮은 뚜껑에 원형의 구멍

을 내서 망치고 뚜껑을 내리치면 술이 구멍으로 튀어 오르는 것을 입으로 받아먹으면 행사가 길하다는 의미를 둔다하는데 그날은 술통에 술대신 캔 맥주가 들어있어 뚜껑을 내리치니 나무뚜껑이 갈라지면서 캔 맥주가 모습을 드러내니 모두들 그 맥주를 꺼내 마시고 상대에게 흘뿌리며 축제의 즐거운 시작을 알렸다.

우리도 이에 맞춰 흥을 돋구는 가락으로 많이 쓰이는 "휘모리" 가락을 한 바창 취 보임으로써 많은 박수를 받았다.

퍼레이드가 시작되었다. 도로를 이용해 서 보여주는 모습들은 무대에서 보내주는 간단한 리듬에 맞춰 비슷한 몸동작으로 무용을 하면서 기관과 단체를 상징하는 복장과 도구 이용으로(즉 주걱, 봉, 우산 등)자신이 속한 기관과 단체를 홍보하고 축제를 즐기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다.

행사 내용은 단조로왔다.

우리는 시청팀에 합류하여 시청팀 앞에서 행진하였다.

열심이 뛰어나 가로지르며 굽신을 주고 퍼레이드 행사를 하였다.

몸은 큰 비를 맞은 듯 땀에 젖어 버렸으나 숙소가 바로 무대 옆이라 쉽게 행사를 마친 후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었다.

화장을 고치고 아침에 받은 "가이나"라고 쓰인 하얀 티로 갈아입고 나와 이곳 저곳을 구경하다 한국 사람이 경영한다는 고기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다.

모시옷으로 전통 한복을 입은 청년(식당 주인의 아들임)이 우리에게 주문을 받는다.

우리가 온다하여 모시 옷을 입었다 한다.(늘 입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긴 시

간을 하례해서 식사 시간을 즐겁게 보냈다.
다시 나와서 거리 축제를 관람하다가 속소로 돌아와 우리끼리의 담소 시간으로 또 하루를 보냈다.

일본 요나고시에서의 사일재

“가이나=‘크다’ 라는 뜻”
매년 8월 첫째주 토요일부터
다음날인 일요일 까지가 행사 날이다.

오늘 아침도 여지없이 맑아 좀체 뜨거운 햇살이 수그러들 기세가 아니 보인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10시 20분에 리허설에 들어갔다. 음향시설 맞추고 자리 배치 맞추고 간단하게 공연을 하고 내려왔다.

한 작품 선보이고 다음 작품 선보일 때 무대뒤에서 옷을 갈아 입기로 했지만 너무 더워서 땀에 젖다보면 옷 갈아 입는게 쉽지 않을거 같아서 그만두기로 한다.

도로 한 가운데 대형 풀장이 만들어져 어린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시민들을 축제의 장으로 끌어내기위한 한 수단으로 풀장을 만들지 않았나 싶다.

인도와 도로 사이엔 다양한 장삿꾼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일단 밤 10시만 되면 그 자리를 철수한다. 깨끗하게.... 그리고 다음날 다시 질서있게 자리를 차지하여 장사를 한다.

우리도 잠시 길거리에 앉아볼 심사로 박스를 구해봤지만 어디서나 박스나 신문지 따위를 구할 수 없었다.

잠시 구경을 하고 호텔로 점심을 먹으러 갔다. 우리가 공연할 시간은 오후 3시경이다.

저심을 먹고 호텔에서 잠시 눈을 붙히고 2시경 슬슬 공연 준비를 했다.

드디어 우리의 공연이 시작되었고 좌반(앉아서 연주하는 것)을 먼저했다.

시작부터가 호흡이 흔들리긴 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면서 열심히 호흡맞춰 연주했고 흥을 돋궈야 하므로 추임새를 평소보다 많이 넣고 몸동작도 크게 크게 넣었다. 선반(서서하는 연주)을 하면서 우리는 뜨거워도 모른채 신나게 한바탕 춤을 춰 댔다.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두달 가까이 서로 호흡맞추느라 노력을 부단히 하지 않았던가.

경충 경충 뛰면서 연습을 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와 모든 노고들을 여기서 죄다 날리듯 추임새를 넣어가며 만족스럽게 모든 공연을 끝냈다.

우리는 다시 숙소로 돌아가 샤워를 마치고 가이나 축제터를 입고 축제의 거리로 나갔다.

어제 길거리 퍼레이드에서 보지 못한 다양한 모습들이 보여진다. 가이나 만도(万燈), 60여개의 등불로 약 10m정도의 돛대를 만들어 거리를 행진하는중에 툼툼이 묘기를 펼쳐 솜씨를 겨루는 행사로, 가장행렬과 마찬가지로 요나고시 소재 각 기관과 단체에서 행렬을 이루면서 손바닥에 그리고 턱에 올려놓고 오래 버티기인데 정말 대단한 묘기였다.

우리는 요나고시 시청팀에 합류하여 무대 앞까지 약간의 동작으로 응원을 하면서 무대 앞까지 갔다가 다시 빠져나오면서 손에 들고 있던 짹짹 악기를 선물로 받았다.

신나고 즐거운 축제가 10시가 접어 들다 깨끗하게 끝났다.

속소로 돌아와 샤워를 마치고 대충 방을 정리한다음 깊어가는 밤창문을 열어보니 오늘 하루 종일 특설무대로 만들어졌었던 그 무대가 감쪽같이 없어졌다.

어느새 긴 빗자루를 들고 자원봉사자들이 쓰레기도 없는 도로와 거리를 쓸고 있었다.

장삿꾼들도 단 한팀도 보이지 않았다. 불과 2시간여만에 일어난 일이다.

어제 오늘 이 거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캄캄한 도로에 간간히 지나가는 차들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창문을 닫고 하루를 마감한다.

일본 요나고시에서의 오일째

아침이 밝았다. 오늘은 플라워 타운을 시찰하고 공항으로 나갈 참이다. 플라워 타운에 도착하고보니 아직 이른 시간이라 매장에선 물건 정리를 하는 판매원들의 손길이 분주할 뿐 시간이 되지 않자 그들은 물건을 팔지 않았다.

잠시 구경만 하고 빠져 나와 매연을 내뿜어 몹시 불편하였지만 파크내를 도는 기차에 올라 부지 면적 : 약 50 헥타아르에 이르는 상당한 넓이의 공원을 돌았다.

매연내가 너무 심하게 나서 피크내를 돌고 오니 모두들 머리가 아프다고 한마디씩 했고 나도 속이 메스꺼워 정신이 없었다.

잠도 제대로 못 자 둔데다가 지열이 폭폭 피어오르는 뜨거운 햇빛아래 서 있으려니 여간 곤욕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터널 모양으로 만들어진 고가 도로를 시원하게 한참을 걸어가니 제주도의 “여미지”와

같은 각종 식물들이 전시되어있는 돔 안으로 들어간다.

건물 면적 : 1.3헥타아르이며, 일본 최대의 플라워 돔으로 400종 180만본의 초화(草花)가 피어있단다.

특히, 4월에는 튜립, 6~7월은 10만본의 백합이 장관이라니 놀라울 일이다.

플라워의 온실돔의 크기가 직경 : 50미터에다, 높이 21미터의 돔이니 상당한 크기가 아닌가 싶다.

산의 일부분이 “금송화”꽃으로 만발했고, “산나리”종류도 다양하게 여기 저기 동산을 이루고 있었고 코스모스도 신기하게 키가 작았으나 그 드넓은 동산에서 야무지게 피어있는 모습이 예뻐다.

꽃을 건조해서 만든 커다란 액자속의 작품들은 마치 물감을 떠서 부어 만든 화폭인양 신비롭기까지 했다. 좀전의 기분과는 달리 몸도 마음도 즐거웠다.

백합의 향내가 물씬 풍기는 돔내를 다 돌고 나올 땐 엘리베이터를 타고 빠져 나왔다.

돔 안이 얼마나 시원한지 밖으로 나오니 뜨거운 열기에 몸이 갑자기 풀리는 느낌이다.

플라워 파크내를 나오면서 처음 생각판 달리 거대한 식물 농장을 본거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멀찌감치 서서 나오는 일행 하나 하나에 카메라 초점을 맞춘다.

정말 참 열심히들 움직인다. 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1시 30분경 우리는 다시 중식을 하러 가 기위해 버스에 몸을 실었다.

“루 미스토라루” 작은 항구를 끼고 있는 곳답이 인상적이어서 궁금했는데 우에다 실장님이 마침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속초의 액

스포 광장의 상징탑과 같은 역할을 하는거라고 설명을 해주신다. 높이를 일러 주셨는데 메모를 못했다.

항구라 했지만 배들이 보이지 않아 물어보니 이곳은 거의 배가 없는 작은 도시란다. 배는 여기서 아니보인다 한다.

처음 보는 음식에 우리가 서로 궁금해하자 우에다 실장님께서 또 설명을 덧붙여 주신다.

역시 주부들이시라 음식에 관심이 많으시다며 웃으신다. (맛도 있었지만 음식이 이쁘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인천 공항으로 떠나는 2시 45분 비행기를 만나기 위해 다시 버스에 몸을 실었다.

인천에서 요나고시를 잇는 항공편이 이틀에 한번 뜨는지라 좀 혼잡할 수 있다하여 일찌감치 가서 수속을 밟아놓자고 한다.

공 항에 도착하니 어느새 목사님같은 이 미지의 '이즈미' 과장님도 나오셨고 '우다' 관광과장님도 나와 계셨다. 참 반가웠다. "10월 설악 문화제 때 모두 모두 꼭 오세요!" 우리는 정말 "설악 문화제" 때 다시 만나고 싶었다.

손을 흔들고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우리는 아쉬운 작별을 나눴다. 4박 5일 동안에 그들은 우릴 위해 너무 열심이 움직여 주었고 친절했다.

10월에 오면 우리도 같은 모습으로 그들의 맘을 움직여 주고 싶었다. 보이지 않을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는 그네들의 모습은 인상 깊었다.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 보이는 일본이 다시 멀어진다. 기내에서 우리는 또다시 우스개소리로 몇마디 하고 보니 인천 공항이다.

내리는 즉시 남편에게 연락을 취해놓고 물건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되어서 좀 짜증이 났다.

속초 시청 버스가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이미 와있단다.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물으니 도로가 막힐까봐 미리 왔는데 그때 출발 안 했으면 오지도 못할뻔했단다.

속초로 가는 고속도로는 한산한데 서울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는 아무리 달려도 달려도 앞에서 올라오는 차량의 끝은 보이질 않는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우리네 도로는 땅 위에 거대한 기차를 연상케 하지만 않을까 싶었다.

밤 8시 30분경. 인제에서 저녁 식사를 위해 모두들 버스에서 내려 시골 냄새가 물씬 풍기는 보리밥 집으로 들어갔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메뉴였지만 형님들과 열심히 비벼 먹었다. 생각보다 맛있게 먹었다.

커피 한잔을 마시기 위해 밖으로 나오니 건너편 차들이 아직도 차의 행렬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내려 오는 동안 내내 일본 문화에 대해 김두령씨와 이야길 많이 나눴다. 덕분에 일본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어 들으며 이런 저런 이야기 하다보니 어느새 속초에 도착했다.

아이고, 인사가 늦었군요. 고생하신 언니들 말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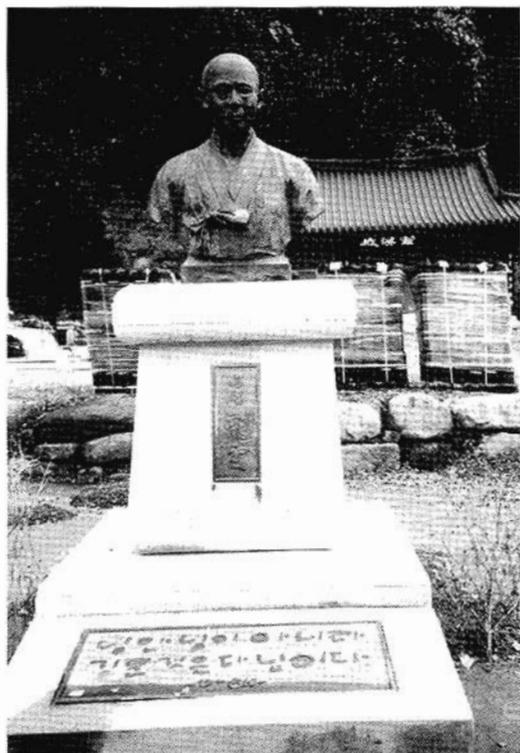
한명옥, 이정옥, 김경선, 김향자, 강복희, 강금옥 언니들 감사합니다.

인사를 나누고 집에 돌아오니 남편과 두말애가 반겨준다.

그렇게 4박 5일의 일본 여행은 막을 내렸다. 짐을 풀고 아이들에게 들려줄 많은 이야기를 가슴에 앓고 잠이든다. 그래서 나는 또 행복하다. ●

만해마을 준공

- 내설악 백담사의 박물관, 공연장 등 완공 -



한용운 선사(1879~1944)의 정신적인 고향 인제 백담사 입구에 만해마을이 조성돼 만해정신과 업적 선양센터로 자리하여 각광을 받고 있다.

만해문학박물관을 비롯 만해사, 대강당과 세미나실, 기획전시실, 야외공연장, 호텔급 숙박시설 등 종합시설을 갖춘 만해마을이 금년 8월 9일 인제군 용대리 북천변 현지에서

준공, 일반인들에게 공개됐다.

만해마을은 (재)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가 국·도·군비를 지원 받아 한용운 선사(1879~1944)의 독립운동가이자 문인이며, 근대 불교의 선각자로서 실천적 삶을 한눈에 보여주는 1천300㎡ 규모의 만해박물관과 47개의 객실 및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한식당, 세미나실 등을 갖춘 3천500㎡규모의 문인의 집이 건립됐다.

만해마을 준공을 맞아 이날 1천관 무개의 '만해 평화의 종' 타종식 및 한용운 선사 흉상 및 입상, 서원 보전의 불상도 제막되어 뜻을 더했다. 백담사 회주 오현 큰스님의 "100년을 내다보는 건축이어야 한다"는 주문에 따라 설계된 만해마을의 각 건물은 열린 공간을 지향했다. '만해사'는 만해스님의 '조선 불교유신론'의 정신을 계승하고 '반야경'의 무소유의 정신을 조형화한 건축으로 안과 밖의 경계가 사라진 곳이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만해문학박물관은 기존 전시관 건물과 달리 그 무엇을 전달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며, 만해광장 님의 침묵은 자연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문인의 집을 비롯한 만해시인 학교와 만해학교, 심우장등은 각종 국제회의와 고교생 백일장으로 활용,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백담사 만해마을에 조성된 이 각종 건물들의 안팎의 현판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과 명사들이 담당해 각인하였다.

'만해마을'은 시인 고은씨가, '만해학교'는 시인 신경림씨가, '심우장' (만해스님이 만년에 기거한곳)은 시인 이근배씨의 작품이다. '문인의 집'은 시인 정진규(현대시학주간)씨가, '님의 침묵'은 시조시인 이지엽(경기대 교수)씨가, '만해문학박물관'은 김용집(서울대 교수)씨가 담당했다.

또한 만해사의 '서원 보전'은 회주 오현 큰스님이, '경절문'은 보광사 효림스님이 직접 썼으며, 서원 보전에 봉안한 만해스님 위패는 시인 정진규씨, '만해평화' 만해평화의 종'은 도을 김육옥씨, 종에 새겨진 글은 김재홍(경희대 문리대학장)씨가 각각 정성을 기울인 작품들이다. 백담사 만해마을 삼조 대표 스님은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완성된 만해마을은 안과 밖, 높음과 낮음의 경계가 엮는 열린 공간으로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는 매력"이라는 설명이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밭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해축전 성료

만해마을 준공식에는 제5회만해축전이 함께 하여 만해사상 선양의 터전을 더욱 북돋우었는데 이날의 축전 개막식에는 만해사상 실천선양회 총재 범장 스님과 회주 오현 백담사 큰스님, 일문 백담사 주지, 김진선 강원도지사 등 주최측과 홍기삼 동국대 총장, 이수성 전 국무총리 등 각계 인사와 관광객, 불



자, 청소년 등 3천여명이 모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한용운 선사의 시 '철석' 낭송과 국악인 박윤초의 '님의 침묵' 시창에 이어 '만해평화의 종' 타종으로 시작되었으며 이어 제7회 만해대상 시상식, 제1회 님의 침묵 서예전 시상과 입상작품 전시회 개막식, 만해문학박물관 개관, 만해사 서원 보전 점안식, 신경림 시비제막 등의 행사가 다채롭게 열렸다.

이날 축전을 기리는 만해학 관련 심포지엄과 만해시화 부채전, 정덕교 사진전, 시낭송, 무용, 음악, 사물놀이가 펼쳐져 그 의미를 더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상이 주어지는 '만해 전국고교생 백일장' (제5회)에는 514명의 문재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는데 대상에는 김지예(서울 진명여고3)양이 차지했다.

曹五鉉 회주의 작품

위의 만해축전은 전적으로 현재 설악산 산감, 백담사 회주 무산(霧山) 조오현(曹五鉉) 큰스님의 작품이다. 법명은 무산, 법호는 만악(萬嶽), 자호는 설악(雪嶽), 필명은 조오현이다. '내가 나를 바라보니'라는 시에서 "무릉선원에 앉아, 내가 나를 바라보니, 기는 벌레 한 마리가 몸을 폈다 오그렸다가, 온갖 저 값아 먹으며, 배설하고, 알을 슬기도 한다."며 스스로를 미물이라 하시는 분이다.

오현 스님은 지금도 '하루는 풀벌레 울고, 하루는 풀꽃으로 웃으면서' 백담사에 머물고 계신다. 그의 경지는 어디까지인가. '무산 심우도' '제1심우(尋牛)'에서 스님은 "누가 내 이마에 좌우 무인(拇印)을 찍어 놓고, 누가 나로 하여금 수배하게 하였는가, 천만금 현상으로도 찾지 못할 내 행방을."하며 본디의 자



신을 찾으려 오늘도 이렇게 괴로워 한다. ●

[만해축전 · 전국고교생백일장] 대 상

장 마

1.

또 비야.

할아버지는 긴 한숨을 허공에 풀어놓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컨테이너 박스 위로
 내려앉은 장대비
 고랑 패인 이마에 옮겨앉고
 짓무른 눈가
 무성한 그늘만 깊어갑니다

2.

지난 해,
 한여름을 쥐고 비틀던 장마는
 순정이네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무너앉은 문짝은

온갖 세간을 토해내고
 느티나무 가지 꼭대기에 매달린 낡은
 슬리퍼 한 짝과
 온몸으로 울어버린 가족사진만
 침수의 깊이를 재고 있었습니다
 야트막한 흙담집들 뼈가 다 드러난 사이로
 돌덩이와 자갈들 저만치 쓸려가고
 영자 누나 시집가던 날,
 마을 어귀 뽕튀기 노부부 입가에
 피어난 달밤의 배꽃,
 서울 올라가이젠
 볼수 없는 진희 누나 얼굴까지
 천근만근 침묵으로 가라 앉았습니다

3.

‘수재민돕기 50억 달성’
 지지 지지직-깨진 라디오는
 연신 속보를 토해내지만
 할아버지, 굶은 등을 돌립니다
 그 뒤로 밀려오는 모난 자갈들
 조금씩 조금씩
 컨테이너 박스가 흔들립니다

이성선(李聖善) 시인 - 시비(詩碑) 그리고 추모시 모음 - 시인의 생가터와 백담사 경내 시비 -

편집부

나뭇잎 하나가

아무 기척도 없이 어깨에 툭 내려 앉는다

내 몸에 우주가 손을 얹었다

너무 가볍다

<미시령 노을> 전문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일명/동루골)에 있는 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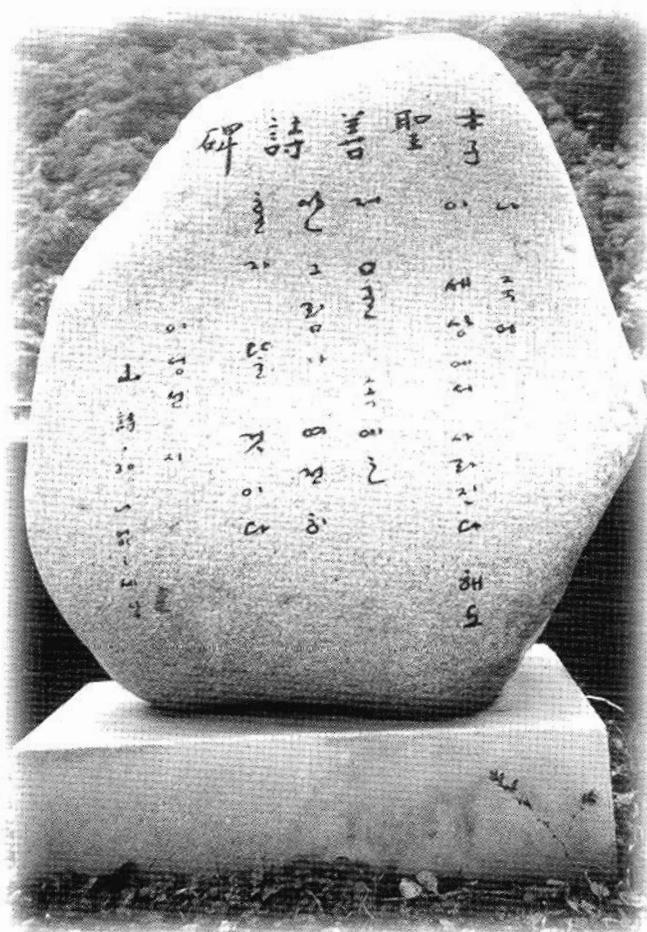
나 죽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해도

저 물 속에는

산 그림자가 여전히 혼자 뜰 것이다

<산시(山詩)30> 전문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백담사(百潭寺)경내에 있는 시비

추모시 모음(1)

우주의 시인 이성선

최명길



시혼이 너무 많아
유리보석알처럼 반짝이던
우주의 시인 이성선
그는 가셨다.
하늘과 땅 사이
그의 몸은 비셨다.
저 광활한 없음의 바다를 어슬렁거리는
대자유인으로나
되어 떠나신 듯
잠시 그가 머물렀던 자리에는
한 바구니 영롱한 시의 구슬들만 소복해
고요로울 뿐
그저 잔잔 할 뿐

설악,소식

추모시 모음(2)

부음을 듣고

이은봉

버려진 시간, 어두운 삼나무 숲 가운데로
느닷없이 소식 한 점 날아왔네

깡, 하고 뒤통수를 때리는 불빛...
그만 놀라 나무등걸처럼 굳어버렸네

설악이 제 입김으로 띄워 보낸 소식
멧비둘기의 마음으로 겨우겨우 해독했네

구구대는 목소리 너무도 커
숲 가운데로 식은 땀방울들 몰려들었네

마음 달래려 숲 그늘에 무릎 모으고 앉아
내 마음에 손 얹은 우주 한 잎 들어 올렸네

손바닥 위에선 아직 덜 마른 초여름
... 낮빛 화안하게 웃고 있었네

우주를 함께 나누라는 뜻인가
웬걸, 여기저기 삼나무 숲
다시 버려지고 있었네

추모시 모음(3)

신선이 되는 이형

오세영

이형

그리 쉽게 가지다니요.
어찌 그리 무심히도 이승과 연을 끊으셨습니까.
당신의 음성에는 항상
백담계곡의 맑은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물소리를 좇아
동해 용궁 봄 나들이를 가셨습니까.
당신의 웃음에는 항상 내설악 고운 들꽃이
수줍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 꽃을 좇아 무릉도원 꽃 구경에 나셨습니까.
당신의 눈빛에는 항상
대청봉 푸른 하늘이 비쳤습니다.
흰 구름을 비껴 타고 천상 백옥경에 가셨습니까.

이형

남은 우리는 모두 진정
당신이 다시 돌아올 것만 같습니다.
가시기 일주일 전 춘천의 청평사에서 만나
함께 백담계곡을 찾자던 우리의
그 약속을 잊으셨나요.
그러나 당신은 아마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지요.
하늘의 상제(上帝)께서 어찌하여 당신을
이 속된 세계로 다시 돌려 보내시겠습니까.
거룩할 성(聖), 착할 선(善)
이름처럼 순결하게 살다간 이형
이제 설악의 신선으로부터 영면을 누리소서.

추모시 모음(4)

백담사 계곡

- 이성선 시인을 생각함 -

박 찬

푸른 하늘에 흰 모란 같은 구름 한 송이
봉우리에 앉아 생각에 잠기다
찢어버리며 희롱이나 할까
제풀에 심심해 우왕좌왕
안개되어 비도 뿌린다.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 청아한 소리 듣다가
물에 비친 제 모습에 취해 하염이 없다

물은 산을 비추고 하늘을 비추고
제 모습까지 비추는데
물 속에 푸른 산이 있다
그러나 물은 깊이가 없다
산도, 하늘도 높이가 없다
그속한 눈길만 깊고 푸르다

홀연히 흩어져 버린 구름 한 송이
모란 꽃 하얗게 피는 시절에...

세상 참, 괜히 왔다 간다!
바쁜 마음만 서성이는 백담사 계곡

추모시 모음(5)

이성선 시비

김종길

백담사 경내에 세운 이성선 시비에는
그의 산시(山詩) 30번이 새겨져 있다.

[나 죽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해도
저 물 속에는
산그림자가 여전히 혼자 뜰 것이다]

뻥한 소리라면 뻥한 소리인
이런 말을 왜 그는 적어 놓았을까.

심심해서? 아니다.
그가 너무나도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산과 개울물,
그 중에서도 내설악과 백담사 계곡을.

그리하여 그는 잿가루가 되어
이 골짜기에 뿌려지고
한 덩이 자연석 시비로 섰다.

물속에 혼자 뜬 산 그림자처럼
그는 넉 줄 고독한 사랑의 말마디로 섰다.

추모시 모음(6) 이성선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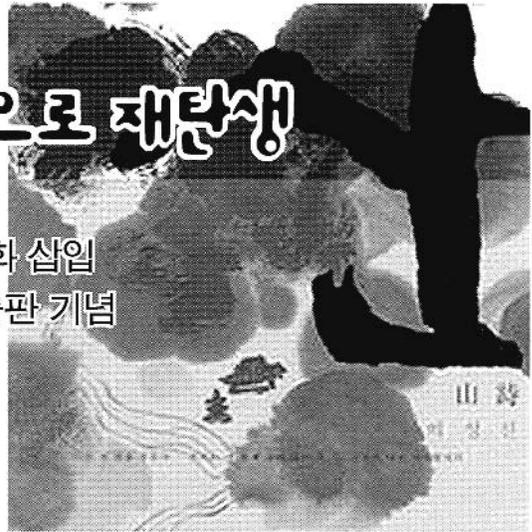
허영만

신성봉이 어느 날 사람 옷 입고
세상에 나와 세상을 거닐며
다시 산으로 돌아갔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이성선이라고도 하고
시인이라고도 하고 그가
설악산이 보기엔 그는 풀잎이었고
이슬이었고
별이었고 구름이었다
적요의 골짜기를 흐르는
한 줄기 바람이었다.

그가 세상을 건너간 뒤
세상엔
무엇하나 건드려진 게 없었다
무엇하나 상한 게 없었다.

이성선 '산시' 시화집으로 재탄생

2주기 맞아 한국화가 김양수씨 수묵화 삽입
5월 4일 고성서 추모행사 · 서울서 출판 기념



‘구도의 시인’ ‘설악의 시인’으로 불리는 이성선 시인(1941~2001) 2주기인 5월 4일 낮 12시 고향 고성 토성면 성대리 동루골 이성선 시비 앞에서 시낭송과 헌화하는 추모행사가 열렸다. 기일을 앞두고 이성선시인이 생전에 내놓은 시집 ‘산시(山詩)’에 수묵화를 곁들여 새롭게 꾸민 시화집 ‘산시’가 출간됐으며, 서울 관훈동 아트사이드 화랑에서는 시화집 출간 기념 ‘산·시·화’전이 5월 4일까지 열려 그의 문학세계를 기리고 있다.

원래 ‘산시’는 1999년 나온 시집이다. 이성선시인은 생전에 그동안 발표했던 시 중에서 추리고 고쳐 쓴 54편을 엮어 시집 ‘산시’를 내놓았다. 욕심에 집착하고 이기심에 짓눌린 현대인들에게 우주의 겸허한 질서를 다시 보게 만들었으며, 자연과의 대화 속에 선(仙)의 세계를 추구했던 시인의 문학관이 잘 드러났다는 평을 받은 작품집이다.

이 시집을 출판한 시와 시학사는 시인 생전에 ‘산시’에 어울릴 만한 그림을 곁들여 시화집으로 내고 싶어한 약속을 지켜 5월 4일 기일에 맞춰 시화집으로 공들여 편집해 펴냈다. 그림은 사후에 ‘산시’를 읽고 시 세계에 푹 빠진 김양수 화백(43)이 해를 넘기며 몰두해 그린 수묵화 40점이 시와 나란히 실렸다. 김양수 화백은 동국대 미술학과, 성신여대 조형대학원, 중국 북경 중앙미술대학 벽

화과를 나와 불교신문 1면에 선화를 연재중인 한국화가, 시화집 ‘산시’에서는 깊은 맛이 먹의 농담을 잘 살려 특유의 자유와 여백을 강조한 수묵화의 진수를 보여줘 산과 시, 그림이 하나되게 빛어냈다.

당초 발간된 시집 ‘산시’는 연작시 형태로 편집됐으나 이번 시화집은 5부로 나뉘 부마다 주제에 맞게 순서를 새로 잡았다. ‘저 산은 모른다’ ‘장엄한 배경’ ‘마음 꽃 한송이’ ‘숨은 산’ ‘나 없는 세상’ 등으로 나뉘었다. 자연을 통해 순화되는 아름다운 사랑법과 작은 나뭇잎의 떨림에서 우주 전체를 보는 시인의 모습이 선연하게 다가오는 시편들이다.

시화집 가격은 112쪽에 4만9천원으로 그림의 느낌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고급 마분지를 쓰고 실로 페넨 수제본인데다 1천500부 한정판이어서 고가이다. 이성선 시인은 1970년 ‘문화비평’에 시 ‘시인의 병풍’, 1972년 ‘시문학’ 지로 재추천받아 문단에 데뷔했으며 첫 시집 ‘시인의 병풍’ (1974)부터 작곡하기 한 해 전인 2000년 ‘내 몸에 우주가 손을 얹었다’에 이르기까지 13권의 개인 시집 등을 냈다. ●

선 가 (船價)



이 은 자

- 1941년 함남 흥원 출생
- 일사후퇴 때 부모님 따라 남하, 속초 중앙동 정착
- 속초고 7회 졸업
- '갈매' 동인

그 가을 TV 화면엔 내 고향 풍경이 자꾸 비쳤다. 드라마 '가을동화' 때문이다. 갯배를 타고 남나드는 사람들과 그 주변 마을이 렌즈에 많이 잡혀 나왔다. '갯배'는 이제 속초의 명물로 자리를 잡았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갯배를 지키는 지킴이가 있어 갯배가 속초의 명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몇 년 전 속초에서 주간(週刊)으로 발간되는 '설악신문'에서 사진작가 엄상빈의 작품집 '청호동 가는 길'이 소개되고, '갯배'는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고 사연을 부연하고 있었다.

가끔 고향을 찾아가 보면 사라져가는 옛 것들에 왜 그리 서운하던지, 고향에 살지도 않으면서 무슨 할 말이 있을까마는 '갯배'도 결국 시대적 퇴물로 사라져 가는 운명 앞에 놓인 터라 어찌하랴 싶었다. 그러던 중 관광 엑스포를 치르게 되었고, 속초를 상징할 것들을 챙기다 보니 '갯배'가 꼽힌 것이다. '갯배'는 그래서 살아남았다.

갯배는 청초호와 바다를 잇는 물목에 놓인 거룻배다. 이들과 모음이 따로 없고 양쪽 육지에 철제 와이어 끝을 고정 시키고 물 속으로 느슨하게 내려놓은 것이 배 갑판을 관통한다. 누구든 승선한 사람들이 쇠 갈퀴리로 그 줄을 당겨서 가곤 한다. 지금은 고용인이 있어 책임지고 젓지만 여분의 쇠 갈퀴리가 있어서 처음 타 보는 사람도 재미 삼아 끌어

볼 수 있다.

청호동이 어떻게 만들어진 마을인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다 안다. 50년대 초에 이북 실향민들이 주인 없는 땅을 찾아 움막 같은 오두막을 짓고 추운 어깨를 서로 기대며 살아낸 마을이다. 지금은 '청호동'이란 어엿한 이름으로 거명되지만 수복지구 당시엔 '5구'라 불렀다. 파도와 해풍이 만들어 놓은 해안사구에 사람 사는 마을을 일구어 왔다.

지금이나 그 때나 청호동 가는 길은 두길 뿐이다. '갯배'를 건너가거나, 아니면 청초호를 한 바퀴 빙 돌아서 부월리 반부득 고개를 꺾어 질러서 가는 길이 있다. 택시도 버스도 가로등도 없던 시절 부월리 반부득 고개는 귀신 나온다고 무서워 했다. 사실 그 곳은 야전병원에서 무방비 상태로 내다 버리는 병원 폐기물 야적장이 있었고 공동묘지도 있었다. 그 야적장엔 잘려나온 팔도 있었고 다리도 있었다. 그런 시절 '갯배'는 청호동 주민의 발이요 생존에 절대 필요한 존재였다.

처음 '갯배'는 뗏목 수준의 한 척으로 운행

됐다. 마지막 손님이 내린쪽이 종착지가 된다. 반대편에 필요한 사람이 소리쳐 부르면 누구라도 건너와 준다. <갯배 끊어질라.> 아무도 와 줄사람이 없는 늦은 밤이면 도리가 없다. 가족들이 기다려 주는 수밖에.

'갯배'를 타고 청호동 쪽에 서면 선가(船價)를 내야 한다. 우리가 어렸을 적 갯배삯은 코흘리개 아이들 군것질 수준도 안되는 적은 돈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안 내는 사람들이 있다. 없어서도 그렇겠지만 장난끼로 그러기도 한다. 사람들은 갯배삯 받는 이에겐 중요한 생업(生業)이란 생각을 못하는 것 같다. 그까짓 적은 돈이니까...

처음 '갯배'를 맡아서 운영했던 사람은 별 명만으로 우리 기억에 남아있다. '조막손 영감'이다. 손이 상처를 입어서 조막손이 된 사람이었다. 우리 보기에 보잘 것 없는 선가를 받았지만 그 속에서 아들을 대학까지 마쳐주었다. 그의 아들은 경찰관으로 정년퇴임하고 지금은 시내에서 행정사법서사로 성공하여 잘 살고 있다고 누가 알려 주었다. 조막영감님이 늙고 힘이 쇠하여 두 번째로 운영을 맡은 이는 김○○아저씨였다. 처음엔 자생적이거나 다름없던 갯배 경영권이 어느새 상업화 되기에 이르렀다. 배 모양도 세련(?)되었고 시설도 갖추고 고용인 딸린 두 척의 배로 안정성과 편리함에 합리적인 운항을 꾀해서.

개인적 분쟁을 피하여 마침내 갯배 경영권은 속초시에서 공개입찰로 정하게 되었다. 세 번째 주인은 높은 입찰가격을 들이대서 따낸 아무개란 사람이었다. 김○○아저씨는 밀려난 셈이다. 꽤나 짹짹한 사업일거란 기대와는 달리 그 아무개는 적자를 보다말고 경영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다시금 시행한 입찰 때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힘 들이지 않고 가장 적합한 조건하에 김○

○아저씨에게 경영권이 되 돌아왔다. 이젠 아무도 그에게 도전장을 내지 않는다. 몇 년 내리 김 아저씨가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주욱 그리 될 거라고들 한다. 갯배에 관해서라면 그를 능가할 자신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정평이 나있기 때문이다.

청호동 주민이면 선가를 내지 않게 되어있다. 그 외 모든 이용자는 예외가 없다. 그런데 그 청호동 주민을 알아보고 가려내는 일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일의 첫 번째요 전부다. 신분증을 일일이 내보이는 것도 아니고, 얼굴에 청호동 산다고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면식 하나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김 아저씨는 그 면에서 백발백중 족집게요, 도사이다. 어떤 낯선 사람이 선가를 내지 않으려고 청호동에 산다고 우길라치면, 아버지 성함이 누구냐, 몇 통 몇 반이냐, 언제 청호동에 이사 왔느냐, 다른 식구는 누구누구냐... 동거인이라 둘러대면 아무개네는 "동거인 없슴매"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아저씨다. 누구도 감히 거짓말로 빠져나가진 못한다. 컴퓨터에 입력된 호구조사 사본을 손에 들고 있다 해도 아저씨만치 신속 정확히 식별해내지는 못할 것이다. 심지어 집난이(시집간 딸)와 그 딸린 가족들 까지도 알아 맞추는 능력이 있는 아저씨다. 그 분의 청호동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소식통은 과히 전문가 수준이다. 이런 것들을 생업과 사람에 대한 지극한 애정이라 말해도 되지 않을까.

속초는 관광 뿐 아니라 북방교역의 요지로 비대해지고 있지만 갯배 하나로 평생업으로 가꾸고 이어가는 김 아저씨 같은 지킴이들이 없다면 가능했을까.

청호동에 불일 있는 사람들은 김 아저씨의 선가로 속일 생각일랑 아예 말 일이다. 공연한 수고로 시간만 낭비하고 말 테니까. ●



보은과 사랑의 실천

忠貞장학회 20돌잔치 - 40명 양아들 결실

한 정 규(속초문화원 사무국장)



이사장 김 충 호

양아버지의 은혜에 보답코져 설립한 '은혜'의 장학회가 20년 돌을 맞아 수혜자들이 보답의 잔치상을 마련, 그 은혜에 감사를 표한 박수 갈채였다.

속 초 동계 약국 약사 김충호(金忠鎬·66·속초시 금호동)씨가 20년전 설립한 충정(忠貞)장학회가 스무돌을 맞은 금년 3월 21일 속초시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수혜자 서동규(徐東圭·37·서울대출·삼일회계법인상무이사)등 40명이 보은의 잔치를 베풀었다. '보은과 사랑'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가정이 어려운 속초·양양 관내의 가

정이 어려운 고교졸업생을 매년 2명을 선발해 대학 진학은 물론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충정장학회는 지난 82년 봄 가난한 농촌 출신의 약사 김충호씨가 순수한 열정으로 닦아 올렸다.(속초문화 제16호 게재)

김 이사장의 '보은'의 역사는 대략 이러하다.



1955년 양양 중학교 졸업생이던 김 이사장은 전 학년 우등생이었으나 가정이 어려워 고교진학은 포기해야 하는 처지였다.

당시 복진 양조장을 경영하던 유지 박태송(朴泰松·작고)사장이 이날 졸업식에 참석하였다가 이 딱한 사연을 목격했다.

박 사장은 졸업식장에서 충호군의 고교와 대학 진학을 약속했다.

양자를 맺는 날이기도 했다.

충호군은 이날부터 양조장 일을 거들면서 주경야독의 각고 끝에 양양 고교와 경희대 약학과(당시 동양의대)를 졸업하고 속초에 오늘의 동제 약국을 개설했다.

김 약사는 약국이 자리가 잡히기 시작한 82년 결심했다. 양아버지의 뜻을 담아 장학회를 설립하고 자신과 부인(朴貞恩)의 이름 중 한자씩 다서 '충정(忠貞) 장학회'라 명명했다. 양아버지 박사장의 '빈자(貧者)가 켜는 한등(燈)은 장자(長者)가 켜는 만등(萬燈)과 같다.'는 말씀을 교훈으로 '보은의 사랑'을 실천한 것이다.

비록 수백명에게 돌아가는 대규모 장학재단은 아니지만 한두 사람에게라도 진정한 도움을 주어 그 능력에 맞게 인생의 진로를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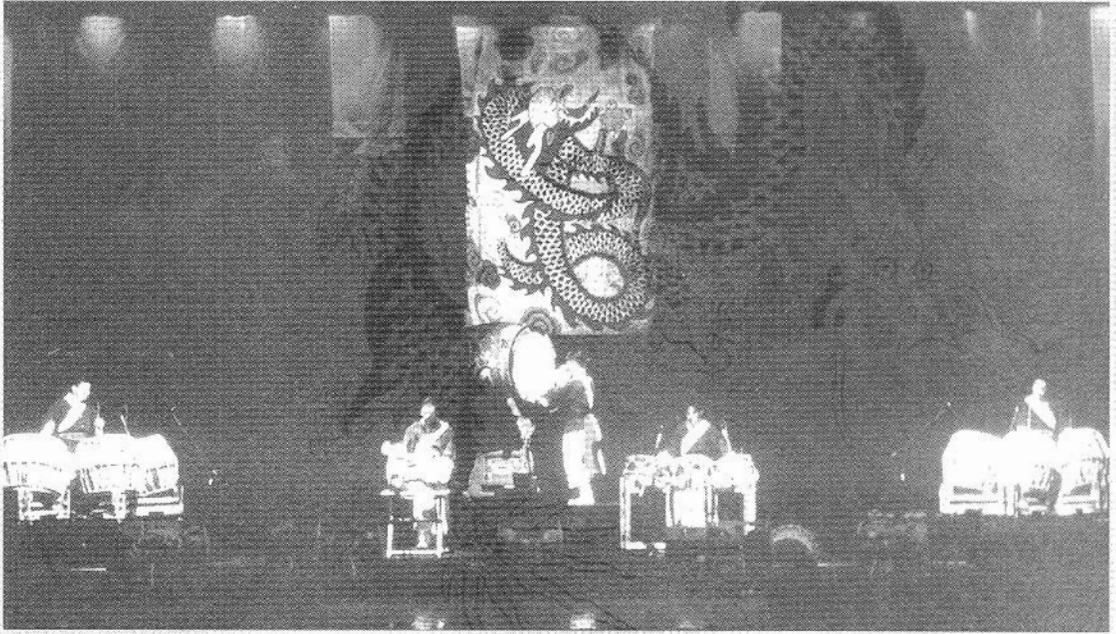
택해 주자는 취지였다.

오늘 그가 자랑하는 것이 수혜자 이들의 직업이나 출세 여부가 아니다.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직장인과 생활인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선량하고 성실한 시민들이 많을 때 우리 사회는 더 건강해 진다는 그의 지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이들이 대학을 마치고 직장을 구한 뒤 결혼 주례를 부탁할 때와 첫아이를 낳아 안고 찾아올 때가 가장 반갑다"로 환한 웃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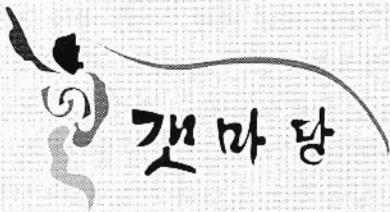
충정장학회 수혜자 40명중 현재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40세이고 막내는 대학 1학년이다. 이들 수혜자들은 김 이사장 내외를 아버지·어머니라고 부른다.

이들은 5년 전부터 '충정 가족 하계 수련회'를 만들어 매년 여름 '가족 대회'를 갖는다. 김 이사장은 20주년 기념 식사에서 자식들인 이들 수혜자들에게 "절대 신용을 잃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가장 부유해지는 방법은 바로 남을 돕는 일이다"라고 당부했다.

바로 양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겨준 교훈을 되뇌는 말씀 이었다. ●



‘갯마당’ 가을 공연 무대의 갈채



- 일시 : 2003. 11. 15(토) 저녁 7시
- 장소 : 속초문화회관 공연장
- 주최/주관 :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
- 후원 : 문화관광부, 속초시,
(사)한국국악협회 속초지부



▶ 속초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의 상모판굿 '소리날려 흩어지고' 공연 모습

영북민속문화 갯마당 15일 속초 / 21일 양구 공연

속초지역 고유의 동해안 별신굿의 난해한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무대화하는 독특한 작업을 보여주고있는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이 15일 속초, 21일 양구에서 잇따라 창작공연을 펼쳤다.

15일 오후7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 21일 오후7시 양구문화복지센터 공연장에서 각각 '축원' '소리날려 흩어지고'를 테마로 전통타악을 관현악으로 접목하거나 편곡, 변주해 새롭게 풀어낸 다채로운 이미지의 창작타악의 세계를 선사했다.

갯마당은 이번 공연을 위해 1년 가까이 장르별 연희자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열어 완성도를 높여가고, 음향 조명 무대설치 등 다양한 장치를 적극 활용해 연주의 효과를 높였다. '삶의 음악'이라는 부제로 기획 최택수, 구성·편곡 정철기·윤중림, 연출 이규왕씨가 맡았으며 갯마당 공연당과 소리나눔 국악관현악단, 원주풍물단 대표 강영구, 국악협회 농악분과 부위원장 정철기씨가 출연해 신명의 무대를 이었다.

1부 공연에서는 사물놀이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이 연주된다. '풍장'은 악기소리를 통해 경건하면서 애잔하며 깊이 있는 정취를 넉넉하게 자아내며, '축원'은 사설·노래와 장단이 주고받는 별신굿 구조를 사물놀이와 관현악이 주고받는 대거리로 작곡한 것이 특징이며, '놀이'는 경쾌하고 발랄한 무가반주와 떠들썩한 사설노래를 사물악기와 관현악의 다채롭고 변화무쌍한 타법연주로 극대화 시켰다.

2부에서는 심장을 멎게하는 힘을 지닌 북의 울림을 감상할 수 있는 모듬북 산조 북소리'와 장구놀이가 '장구소리', 상모판굿 '소리날려 흩어지고' 등을 선사한다. 창작곡 '소리날려 흩어지고'는 가락, 너름새, 율동, 밭놀이, 재주 등 풍물이 보여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예를 한곳에 두루 표현한 판굿으로 동해안지역의 무속가락을 다른 장르의 악기와 연주로 새롭게 구성하고 표현했다. 1992년 전통타악단체로 창단된 갯마당은 2001년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됐으며 지난해에는 문화관광부 '찾아가는 문화활동 참여단체'로 선정됐고 일본 히로시마 초청공연, 요나고시가이나축제 초청공연, 울들어 스웨덴 한인 뿌리찾기 행사 공연을 갖는 등 황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



속초 사진작가 협의회 창립총회

회장 최낙민씨 등 15명회원 신규 회원 가입 가능



▲ 속초사진작가협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아름다운 산과 바다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속초시에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가 없이 활동하던 사진가들이 힘을 한군데로 모아 속초지부 추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추진을 위한 가칭 속초사진작가 협의회(회장 최낙민)는 지난 12월 9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3명과 역량있는 신인작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속초사진작가 협의회는 앞으로 꾸준한 활동을 통해 협회주관의 공모전에 출품해 입선의 기회를 많이 갖고 사진강좌 수강을 통해 정회원 자격을 갖춰 속초지부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속초사진작가 협의회 최낙민 회장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도 공식적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가 없는 것이 항상 한이 됐다”며 “능력있는 후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15명으로 구성된 속초사진작가 협의회는 일반사진공모전에 10회이상 입선한 신인 사진가와 사진학과 출신자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속초사진작가 협의회에 가입을 원하는 신인 사진가는 협의회로 문의하면 된다.●

〈부회장 김성학 011-215-5429, 총무 황병진 017-707-6379〉

속초여성교육문화센터

개관 10주년 · 1만 6천 3백여 명 배출
여성교육의 요람 - 작품전시 · 발표회 성료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강영희)에서 시승격 40주년 및 개관 10주년 기념 작품 전시 · 발표회가 12월 10일 열렸다.

속초시는 여성교육문화센터를 93년 개설 이후 10년간 1만6천3백여명의 교육생을 배출, 여성교육과 복지증진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여성교육분야 ○사회교육분야
=여성대학-여성 고위지도자 과정 위탁교육(경동대학교) ○ 의식교육=교양강좌-환경교실 ○ 문화활동지원=여름모자문화학교-고교생 특활교실-전통 문화 가야금 교실-향토문화 탐방 교실-열린글방.



- 여성정책분야 ○여성사회활동 장려=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여성자원봉사 활동 지원-구인 · 구직센터 운영-자격취득자 확대 ○여성복지사업 전개=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성 · 가정폭력 상담소지원-요보호여성 선도 보호-외국인주부 지원 · 관리-무료법률 상담 ○여성지도자 양성 및 남녀 평등문화 확산=여성단체협의회 지도 · 운영-여성지도자교육 실시-남녀평등 양성교육 실시-고교생 성교육=주부 명함 만들어 주기-부부 공동 재산 갖기 운동 전개.

- 여성자원 봉사센터 운영 ○상설 알뜰매장 운영=연간 8명 교대근무, 인보복지사업으로 2,600천원 지원9장학금 7명 1,200천원), 불우이웃돕기 8명 800천원, 수해의연금 100천원, 기타 행사지원 500천원) ○찾아가는 「이동봉사단」운영-8개팀 110명 활동, 속초의료원등 10개소 4,200명에게 수혜.

- 2003년도 특수시책으로 ○「여성정책포럼」개최 ○「여성한마음대회」개최 ○직장인 · 부부를 위한 야간반 운영 ○약기반 개설 ○센터운영「소식지」발간. ●

제12회 음악협회 속초지부 정기연주회

음악협회 속초지부 제12회 정기연주회가 12월 13일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섹소폰(이승환) Sarabande Et Allegro-Grovez, Deeper than love, 제1회 설악 음악콩쿠르 대
상수상자인 권예나 학생의 플룻독주 Chawinade concerino OP.107 소프라노(김성주) 매맘의 강
물-이수인 작사, 작시 오페라 『휘가로외의 결혼』中 Voi che sapete - W.A Mozart, 첼로독주(구자
령) Adagio and Allegro - R. Schumann 피아노 3중주 (va김은영, ce 구자령, p 김지은) Trio
op49 1악장 Medelssohn, 피아노독주(안애숙) Noctume b-Moll op.9 Nr.1-Fr. Chopin, Piano
Sonatas Op.27 No. 2,3악장 Presto-Beethoven, 바리톤(박태호) Ombra maifu(largo)와 설악
엔젤스 합창단(지휘 : 강은희) O! Holy night! - A. Adam등을 연주하였다. ●



지휘 강은희



반주 김수경



섹소폰 이승환



플룻 권예나



소프라노 김성주



첼로 구자령



바이올린 김은영



피아노 김지은



피아노 안애숙



바리톤 박태호



제2회 강원장애인 하나되기

합창경연대회 속초시 금상 수상

속초시장애인연합회 합창단이 '제2회 강원장애인 하나되기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10월 30일 강릉시청 대회의실에서 16개 시·군 장애인 합창단이 참가, 열전을 벌였

는데 속초시는 지체장애인 10명, 시각장애인 6명, 청각장애인 2명, 신체장애인 3명 등 총 21명(지휘-최봉하, 반주-송미나)이 출연, 곡목 '희망의 나라' '아름다운 들'을 열창했다.

이 대회 대상은 홍천군이 차지했다. ●

제14회

속초시 문화상에 빛나는 얼굴들

제38회 설악문화제 개막식전

2003년 10월 2일

속초시 청초호 유원지

3인의 PROFILE

문화예술 부문 / 최재도 · 체육 부문 / 김남표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부문 / 김명자



문화예술 · 최재도(崔在都)

방송작가, 극작가

1. 주요공적내용

- 최재도氏は 문학가 및 문화운동가로 활동하며 지역문화발전에 기여
- '77년 라디오드라마 현상공모에 당선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수십편의 라디오 연속극, 단막극과 TV 다큐멘터리, 방송칼럼등을 집필
- 국내최다 국제 라디오드라마 컨테스트 출품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저작료를 받고 작품을 수출
- 한국문인협회 회원, 국제펜클럽협회 한국본부회원, 한국소설가협회 회원으로 현재 방송드라마, 소설, 희곡, 아동문학 등 여러분야에서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음.
- 십수년간 속초문화원 사무국장과 시 문화전문위원으로 재임하며 지역문화현상을 연구분석하고 각종 문화발전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하였음.

2. 주요경력

- '77년 : 라디오 드라마 및 '85년 서울신문 신춘문에 당선
- '85~92.8 : 속초문화원 사무국장 역임
- '92.9~' 97.6 : 속초시 문화전문위원 재임
- '97~ 현재 : 방송작가, 극작가, 소설가등으로 전업 창작활동 중

3. 수상경력

- '77년 : 한국방송공사 주최 라디오 단막극 공모 당선
- '85년 : 서울신문사 주최 신춘문에 당선
- '94년 : 강원도지사 표창
- '95년 : 강원도지사 표창



체육 · 김 남 표

속초시축구협회 고문

1. 주요공적내용

- 1966년부터 속초시와 강원도의 축구발전에 이바지 하였고 고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일선에서 활동하며 속초시축구협회와('82-현재) 강원도생활체육축구연합회('97-현재)고문 역임.

2. 주요경력

- '82 ~현재 : 속초시축구협회 고문
- '97 ~현재 : 강원도생활체육축구연합회 고문

3. 수상경력

- '72년 : 속초시체육회 공로상, 강원도축구협회 공로상
대한축구협회 공로상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부문 · 김명자

속초시예림회 회장

1. 주요공적내용

- 김명자氏는 '76년 새마을봉사단 속초시단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내 초등학교마다 한마을봉사단을 조직 장학금 지급등 새마을운동의 확산에 기여
- 학교 새마을 어머니회 속초·양양협의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녹색어머니회를 구성 교통안전캠페인, 학교도서보내기운동, 불우청소년 장학금 등을 전달
- 여성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기금조성등을 통해 여성교육문화센터 건립 원동력 제공에 기여하였으며, 현재 소년소녀가장후원회를 조직하여 매월 밑반찬을 제공하는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전개
- 그외 강원도민체육대회 자원봉사활동, 전국체육대회 자원봉사, 동거부부합동결혼식 지원, 중국교포주부 자매 결연 후원, 모자가정 지원 등 헌신적인 노력을 한바 있음.

2. 주요경력

- '76~'79년 : 새마을봉사단 단장
- '84~'88년 : 학교새마을어머니회 속초·양양협의회장
- '90~'96년 : 새마을부녀회속초시후원회장
- '94~'02년 : 속초시여성단체협의회장
- '85~'01년 : 민주평통속초시협의회 자문위원
- '96~현재 : 한국여성예림회 속초사회장

3. 수상경력

- '94년 : 강원도지사 감사패
- '96년 : 대통령 표창장
- 2002년 :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장
- 속초시장 공로패 그외 다수

설악사랑대상

KBS  속초

제2회 KBS설악사랑대상 수상자

KBS속초방송국(국장·전현찬)은 10월 31일 공개홀에서 제2회 설악사랑 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 대 상 | (사) 한국산악회 설악산 산악구조대

- 78년 8월 창립, 조난자 구조 및 등산객을 위한 가이드 활용 등을 전개해 옴.
- 98년 토왕성 조난사고시 10일간 연인원 110명의 대원이 출동해 구조활동을 벌이는 등 지금까지 2,000여명에 달하는 조난자를 구조했음.
-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등반객들에게 안전하고 계획성 있는 등반을 유도해 옴.

■ 홍보부문상 | 최구현(사진작가 / 전 속초예총지부장)

- 1957년 이래 수차례 설악산을 담보하며 촬영한 사진작품으로 사진첩을 제작하고 전시회를 열어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전국적으로 홍보함.
- 설악산 비경의 명칭을 발굴하고 작명함은 물론, 등산로를 개설하는 등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이미지의 설악산을 만드는데 공헌함.

■ 환경부문상 | 경동대학교

- 1997년 개교이래 현재까지 총 100여회, 활동인원 2,000여명이 참여해 설악산 국립공원 지역의 자연보호활동 및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해 옴.
- 사회봉사단 운영을 통해 설악한 환경보호 캠페인, 자연 탐방 안내, 산불방지 감시단 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설악산 환경개선에 공헌함.

■ 환경부문 장려상 | 최상규 (설악환경보존 운동본부 운영위원)

- 설악산 곳곳에 숨어있는 쓰레기 수거작업을 수년간 해오는 한편, 산불감시요원으로 자원봉사하는 등 설악산 환경보호에 기여함.
- 환경단체의 일원으로 설악산 꽃길 조성, 아영장 정화 작업 등 수차례 설악산 환경보호 활동 참여

2003년도 한국예총 속초지부 주요사업

▶ 제8회 설악눈꽃축제기념 속초사진협회 사진전

속초사진협회에서는 1월24~28일 속초시 설악동 매표소 입구에서 제8회 설악눈꽃 축제 기념 사진전을 개최하였다.

설악사계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김성호, 최홍영, 황병진, 김형관, 이왕선, 최상후, 최낙민 등 사업회원 22명이 51점의 작품을 출품 전시하여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 제13회 학생예술상 시상

지난 1년간 예술문화 활동으로 모교와 지역을 빛낸 학생을 학교별로 1명씩을 선발 학생예술상을 졸업식에 맞춰 시상하였다. 속초예총 회장상 및 부상이 주어졌다.

- 속 초 중 학 교김민성 (3학년 3반)
- 설 악 중 학 교이도영 (3학년 4반)
- 속초여자중학교원소희 (3학년 2반)
- 설악여자중학교안은진 (3학년 3반)
- 속 초 고 등 학 교방인섭 (3학년 9반)
- 속초여자고등학교정선아 (3학년 2반)
- 속초상업고등학교남호섭 (3학년 7반)
- 양양여자중학교김영은 (3학년 2반)

▶ 제14차 예총속초지부 정기총회 - 7대회장 한기학 피선

예총속초지부 제14차 정기총회가 속초문화원 사랑방에서 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최되었다. 본 정총에서의 가장 커다란 안건은 속초예총 7대 회장 선출 및 임원선거였다. 회의결과 단독으로 올라한 한기학 속초연예협회 고문이 속초예총 7대 회장으로 회의참가대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추대로 선출되었다.

한회장은 1989년 예총속초지부 중앙인준과 동시에 속초예총 간사로 활동하면서 예술인 화합 및 향토문예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1994년 제6회 속초시 문화상(문화예술부문)을 수상한바 있다.

▶ 제20회 강원연극제 개최

4월 9일~14일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속초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하여 강원연극인 최대의 축제인 제20회 강원연극제가 개최되었다.

□ 시상내용

구 분	수상자(작품명)	시 상
대 상	택시 드리벌 - 속초 극단 굴렁쇠 · 오름	강원도지사
최우수상	김치국씨 환장하다 - 춘천연극사회	속초시장
최우수상	옛새 - 춘천 극단굴레	예총 강원도지회장
우 수 상	新林 - 원주 극단 노들	강원도 연극협회장상
연 출 상	김태영 - 굴렁쇠	연극협회 강원도지회장
최우수연기상	최석규 - 노들	속초시 의회의장상
연 기 상	홍현정 - 동그라미	속초시 예총회장상
연 기 상	조민철 - 연극사회	속초시 예총회장상
무대미술상	황재형 - 동그라미	연극협회 속초지부장상
무대기술상	김봉렬 - 우리네땅	현찬사9대명증합건설상)

▶ 제1회 바다문학기행

황동규 시인 등 40여명의 「문학과 문화를 사랑하는 모임」이 주관한 제1회 바다문학 기행이 4월 12일 속초시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속초 문인협회 회원 20여명이 본 문학기행 후원단체 자격으로 참가하여 문학토론과 시낭송을 함께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 우리들의 작은 음악회

연예협회 주관으로 장애인의 날을 맞아 속초시 지체장애인과 학부모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4월 23일 속초시 장애인 자활센터에서 우리들의 작은 음악회가 개최되었다.

▶ 제14회 속초종합예술제

제14회 속초종합예술제가 예총속초지부(회장:한기학)가 주최하고 예총 소속 단일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7개협회 지부는 문인협회(지부장:박화), 미술협회9지부장:김광희), 연극협회(지부장:박영미), 연예협회9지부장:김동만), 음악협회9지부장:김영일), 국악협회(지부장:권종식), 사진협회(회장:황병진)가 16개 단일 사업들로 구성되어 전개되었다. 단일 사업별 행사는 아래와 같다.

▶ 연극협회 정기공연

연극협회 속초지부 정기공연이 5월 2일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이 개최되었다. 지난 4월 속초에서 개최된 제20회 강원연극제 대상 수상작이며 연출상 수상작인 「택시 드리벌」이 공연되었다.

▶ 제3회 설악 청소년 사진촬영대회

사진협회 주관으로 5월 17일 속초시 수복탑 광장에서 제3회 설악청소년 사진촬영대회가 개최되었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사진예술의 기초지식과 사진예술의 이해도 증진을 꾀하고자 마련한 대회로서 사협의 가장 의욕적인 사업중의 하나이다. 우수입상작 전시회는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사협 정기회원전과 같이 전시되며 시상식은 5월 21일 개최되었다.

등 위	시상자	성 명	학 교 명	작 품 명
대 상	속 초 시 장	박 찬 술	교동초등 6-2	소녀와 일회용 카메라
금 상	속초시의회의장	김 미 용	교동초등 6-2	속초시의 상징
"	"	김 동 현	속초중 3-8	수리 중인 동진호
은 상	속초예총회장	김 현 주	소야초등 4-1	고사리 줌 사이소
"	"	박 철	청대초등 4-1	임연수어 나란히
"	"	김 민 주	청대초등 5-4	야생화
"	"	김 다 은	교동초등 3-8	관광객과 깃배
동 상	속초사진협회장	최 기 용	교동초등 6-5	우리 누나 정말 예쁘다
특별상	속초교육장상	이 예 슬	중앙초등 6-2	가을동화 속의 주인공들
특별상	라이온스강원지역총재	이 청 일	속초초등 4-4	우리 애기는 천사
특별상	속초농협지부장상	강 민 규	영랑초등 2-1	아빠의 웃음
지도교사상	속초문화원장	김 억 열	교동초등학교	

▶ 제11회 설악 청소년 음악콩쿠르 본심

5월 17일 문화회관 대극장 및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강원도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 11회 설악청소년 음악콩쿠르 본심 행사가 음악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피아노부문 예선을 거친 진출자와 관현악 성악은 예·본심이 연속하여 진행되었다.

- ▶ **【피아노 초등 1, 2학년부】**
금상 - 김미리 (9교동초등 2학년)
은상 - 천혜민 (9교동초등 2학년)
- ▶ **【피아노 초등 3, 4학년부】**
금상 - 백송미 (속초초등 4학년)
은상 - 심현수 (소야초등 4학년)
장유진 (소야초등 4학년)
- ▶ **【피아노 초등 5, 6학년부】**
금상 - 광나라 (속초초등 6학년)
은상 - 박희민 (교동초등 6학년)
- ▶ **【피아노 중등부】**
금상 - 장유희 (설악여중 1학년)
동상 - 김민우 (속초중 1학년)
- ▶ **【피아노 고등부】**
은상 - 김하늬 (속초여고 2학년)
동상 - 장덕영 (속초여고 2학년)
- ▶ **【성악 초등 1~3학년】**
동상 - 김예인 (교동초등 2학년)

- ▶ **【성악 초등 4~6학년】**
금상 - 오나원 (청대초등 6학년)
은상 - 최아윤 (소야초등 6학년)
- ▶ **【성악 고등】**
은상 - 허윤석(속초고 2학년)
- ▶ **【관현악 초등 1-3학년】**
은상 - 이신성 (교동초등 3학년)
동상 - 송주원 (교동초등 3학년)
- ▶ **【관현악 초등 4~6학년】**
은상 - 최혜정 (청대초등 6학년)
은상 - 손예만 (교동초등 6학년)
- ▶ **【관현악 중등】**
대상 - 권예나 (속초여중 2학년)
은상 - 김기호 (설악중 1학년)
- ▶ **【관현악 고등】**
금상 - 강선혜 (속초여고 1학년)
은상 - 이승현 (속초여고 2학년)

▶ 제20회 속초사진협회 정기회원전

속초사진협회 정기회원전이 5월 21일 ~ 25일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 되었다. 사진협회 연중 가장 커다란 전시회이다. 출품회원으로는 최구현, 황병진, 이왕선, 박민효, 최상후, 허인순, 최낙민, 김성호, 최홍영, 최이권, 강영진, 김형관, 장공순, 최정수, 김태정, 최하용, 고장윤, 최종화, 홍인복, 김은숙 등 사협회원 20명이 40점의 작품을 출품 전시하였다.

▶ 제9회 설악 주부 백일장

제9회 설악 주부 백일장이 문인협회 주관으로 5월 24일(9토) 10시에 엑스포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시제는 「비오는 날」, 「화장」이 주어졌고 문학에 관심 있는 지역 주부 100여명이 본 대회에 참가하였다.

▶ 제14회 설악 학생 백일장

제14회 설악 학생 백일장이 주부 백일장과 같이 5월 24일 엑스포 광장9분수대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지역 청소년 1,500여명이 시 산문 부문에 참가해 성황리에 대회가 진행되었다. 시제는 자전거, 얼굴, 강아지, 약속, 소중한 것, 거울, 의자 등이 주어졌다.

초등 1부 시 부

- 장원 중앙초등 3-1 박지석
- 차상 청대초등 1-1 오환규
- 차상 중앙초등 3-3 권보혁

고학년 시 부

- 장원 소야초등 5-1 탁동연 소중한 것
- 차상 속초초등 4-1 김아현 소중한 것

초등 1부 시 부

장원 중앙초등 3-1 박지석
 차상 청대초등 1-1 오환규
 차상 중앙초등 3-3 권보혁

고학년 시 부

장원 소야초등 5-1 탁동연 소중한 것
 차상 속초초등 4-1 김아현 소중한 것

초등 1부 산문부

장원 소야초등 2-1 정채연
 차상 교동초등 2-7 손유정
 차상 교동초등 1-6 길다숨

고학년 산문부

장원 김라은 속초초등 4-4 강아지
 차상 하지연 오색초등 5-1 소중한 것

중등부

장원 양양여중 3-2 이옥현 (산문)
 장원 양양여중 3-2 이혜미 (시)
 차상 설악여중 1-3 최푸름 (시)
 차상 속초여중 2-6 김소연 (시)

고등부 시 부

장원 속초고 3-1 민영삼
 차상 속여고 1-4 신현정
 차상 속여고 2-4 김은미



▶ 9회 설악주부백일장 입상자 명단

주부 산문부

장원 소야초등 5-3 황정아 모 이순호
 차상 조양초등 1-5 이정효 모 박채윤
 차하 교동초등 2-5 김영현 모 박명숙
 장려 속초초등 4-4 김라은 모 이해정

주부 시부

장원 교동초등 2-1 이유진 모 한경은
 차상 교동초등 5-2 전주환 모 김정순
 차하 소야초등 2-1 최윤석 모 김미화
 장려 교동초등 3-6 김시현 모 문진희

▶ 제4회 설악 주부미술 한마당

5월 24일 오전10시에 엑스포광장 상징탑 일원에서 제4회 설악주부미술한마당 사업이 미술 협회를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향토미술 저변확대와 미술발전을 도모코자 마련한 본 대회에 수채화, 사군자부문 등에 영북지역 자모, 주부 등 100여명이 참가하였다.

서양화부

대상(1) 속초 조양동 부영아파트 박은형
 최우수(2)
 안유희 양양여성회관
 남유희 속초여성회관
 서예부
 대상(2)
 김은아 (한글) 속초평생교육정보관
 한금화 (사군자) 속초평생교육정보관

최우수(7)

이시자 (한문) 속초평생교육정보관
 강백운 (한글) 속초평생교육정보관
 심현순 (한글) 양양여성회관
 이정희 (한문) 양양여성회관
 김정수 (사군자) 양양여성회관
 김교회 (한글) 고성여성회관
 오영순 (한글) 속초중학교

▶ 제14회 설악 학생미술 실기대회

향토 아동미술 발전과 현장예술 실기능력을 배양코자 마련한 제14회 설악 학생 미술 실기대회가 5월 24일 엑스포 상징탑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유치부, 초등부 저고학년, 중 고등부에 크레파스화, 수채화, 한국화 부분으로 나뉘어 주위의 아름다운 풍광 그리기에 지역 청소년 1,800여명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대회가 진행되었다.

유치부

지도교사상 : 백종숙 (중앙미술학원)

최우수상(5) : 이현우(중앙미술), 박세준(중앙미술), 김현동(21세기미술), 이수민(임광미술),
김영걸(양양세라피아미술)

초등1부 (1~2학년)

지도교사상 : 김억렬(교동초등학교)

최우수상(10) : 김시현(교동2-8), 김시내(교동1-7), 김수현(교동2-1), 박준혁(교동2-4)
황유진(교동2-2), 이문주(양양1-1), 김영훈(양양1-4), 최경련(소야2-1),
김윤종(청대 1-1), 한정훈(총대1-5)

초등 2부 (3~4학년)

지도교사상 : 김남인(청대초등학교)

최우수상(10) : 김현섭(속초4-3), 김혜인(속초4-3), 이규영(3-1), 김예인(교동 3-7),
이상원(교동 3-4), 김도레미(양양3-4), 김동주(강현4-1), 김철우(청대3-5),
신보라(청대 4-5), 이한진(청대3-1)

초등 3부 (5~6학년)

지도교사상 : 정선주 (속초초등학교)

최우수상(5) : 정예진(청대6-6), 조세련(청대6-5), 서정인(속초5-1),
황정아 (소야5-3), 황윤주(교동 6-8)

중등부

지도교사상 : 고주리(속초중학교)

최우수상(5) : 이성몽(속초중1-3), 이강호(속초중2-5), 강현구(속초중2-4),
강철원(속초중 2-4), 유 현(설여중2-7)

고등부

지도교사상 : 장국보(속초여자고등학교)

최우수상(2) : 정수진(속초여고2-5), 김나연(속초여고2-6)

▶ 제7회 설악 청소년 음악회

제7회 설악 청소년 음악회가 5월 30일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5월 17일 제 11회 설악 청소년 음악콩쿠르에서 금상 이상 수상 학생들로 출연자가 구성된 연주회로서 지 정곡 없이 평소의 기량을 발표회 형식으로 공연하였다.

▶ 제28회 미술협회 속초지부전

미술전람회로서 영북지역 최고 연륜의 상징인 제28회 미협 속초지부전이 속초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하여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미술협회 회원 36명이 한국화, 서양화, 서예, 공예, 조각 등의 다양한 장르 작품 45점을 출품하였다. 출품자는 아래와 같다.

- 한국화 - 김길자, 백종숙, 윤재복, 옥명준, 이지숙, 이혜경
- 서양화 - 공재숙, 김영복, 김종학, 박동국, 방종철, 박흥기, 서문일초, 안치홍
이동수, 이선미, 이준열, 정광섭, 최금란, 최낙민, 허인순
- 조 소 - 김문석, 도창록, 박영근, 신동진, 장국보, 장승복, 정봉재
- 공 예 - 고주리
- 서 예 - 김광희, 김동하, 김송금, 김은숙, 조성익, 최흥영, 함연호

▶ 제8회 국제아동 미술 교류전

제8회 국제아동 미술교류전이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6월 1일 개최되었다.

금번 전시회에는 설악학생미술실기대회 우수수상작 110점, 일본 요나고시 30점, 일본 사카이미나도시 35점, 중국 훈춘시 37점 등 총 212점이 전시되었다.

아울러 설악학생미술실기대회 우수수상작들을 본 사업에 참가한 외국에 작품을 송부하여 외국에서 우리 학생들의 작품이 전시되도록 하였다.

특히 (주)신한화구의 협찬을 받아서 훈춘시의 출품학생들에게 우수 출품작을 선별하여 속초 예총 회장상 및 미협지부장상을 수여하였다.

▶ 제14회 설악 청소년 건전가요제 본심

연예협회 주관으로 제14회 설악 청소년 가요제가 6월 7일 속초시 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5월 4일 예심을 거친 15개 팀이 열띤 노래 경연을 벌였으며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부상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대 상 - 방재향 속여중2
금 상 - 조신애 속여고2
은 상 - 김두현 고성고
동 상 - 설수정 속여고3

장려상 - 박혜린 속여중2
장려상 - 함영수 속상고3
인기상 - 이소정 속상고1

▶ 제12회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

6월 9일 ~ 13일 연극협회 주고나으로 제12회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가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시상 내용	수 상 팀	수상자
최 우수 상	북평여자고등학교	-
지도 교사상	북평여자고등학교	원병재
우 수 상	속초여자고등학교	-
장 려 상 1)	속초상업고등학교	-
장 려 상 2)	속초상업고등학교	-
최우수연기상 1)	속초고등학교	윤국원
최우수연기상 2)	북평여자고등학교	이수진

▶ 제21회 전국연극제 참가

제21회 전국연극제가 6월 112 ~ 30 충남 공주시 문예회관에서 개최되어 극단 굴렁쇠와 극단오름의 연합으로 구성된 속초극단이 강원도 대표로 출전하였다. 속초합동극단은 대회 2등상에 해당하는 문화관광부 장관상인 단체 금상을 수상하는 영예와 함께 극단 오름의 황현중씨가 최우수연기상을 받는 쾌거를 얻었다.

▶ 제4회 훈춘시 국제가요제

제4회 훈춘시 국제가요제가 6월 27일 중국 길림성 훈춘시 영국원에서 예총이 주최하고 연예협회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4월 27일 예심을 통과한 22명의 출연자와 1,500여명의 훈춘시 관람객이 입장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입장객 전원에게 기념품 제공과 대형TV, 세탁기, 냉장고, 전자렌지, DVD, 고급손목시계 등 푸짐한 경품도 지급하였다. 영예의 대상은 아버지를 부른 경신진에 사는 한은주 동포에게 돌아갔고 부상으로 대형TV와 강원도지사 상장이 수여되었다. 아울러 훈춘시 제1실협소학교를 한기학 예총회장이 방문하여 국제아동미술교류전 우수출품작에 대한 시상식도 금번 방중기간에 가졌다.



▶ 2003 도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

2003 강원도민의 날 기념 문예행사가 예총 주관으로 7월 5일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출연진 및 연주 프로그램으로는 남호섭 군 등이 출연하는 힙합댄스팀 天, 색소폰 연주의 최경복씨, 락그룹 더블핑거, 갯마당의 판국 순서로 이어졌다.

▶ 연극협회 중국 훈춘시 공연

연극협회는 한국문예진흥기금 해외교류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8월 29일 연변조선족위안 연극공연 중국 훈춘시 영국원에서 이근삼작 “아카시아 흰꽃은 바람에 날리고”를 무대에 올렸다. 배우 스태프 포함 15명으로 장규호, 김인환, 김귀선, 김일태, 김태영, 윤종구 남호섭, 김영주, 윤영은, 남상진, 기철의, 이지혜, 노지연, 노종팔, 신오일 등이 공연에 참가하였다.

▶ 설악문화제 기념 속초사진협회전

10월 2일 ~ 4일 제38회 설악문화제를 기념하여 사진협회으로 “속초사진협회회원전”이 문화제 행사장에서 개최되었다. 협회소속 작가의 작품 40점이 전시되었다. 개막식은 속초사진협회회원전, 문협의 시화전, 명예총총청 훈춘사진전 등이 2일 오후2시에 연합 테이프 컷팅식을 가졌다.

▶ 중국 훈춘시 백두산소년 예술단 초청공연

제38회 설악문화제를 기념하여 중국 훈춘시 제1실험소학교 백두산소년예술단 공연이 예총 주관으로 10월 3 ~ 4일 문화제 특설무대에서 개최되었다. 매회 15개 프로그램으로 70분의 공연으로 무용(향상, 물동이춤, 칼놀이, 접시춤, 아!백두산) 남녀독창(밀양아리랑, 쫓각달, 놀라갈텐데, 갈매기, 사랑이 샘솟는 집, 북경아가씨) 남녀중창9우리집은 동물원, 즐거운 아리랑) 손풍금 연주 등을 공연하였다.

▶ 제7회 설악서에 백일장

10월 4일 제38회 설악문화제 기념 제7회 설악 서예 백일장이 속초시 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100여명이 대회에 참가한 가운데 학생부 및 일반부 한문, 한글, 사군사 부분으로 나뉘어 사업이 진행되었다. 서제는 요강으로 사전에 배포되었으며 초등 한글부는 푸른하늘, 한문부 淸淨東海 雪嶽峻嶺, 일반부 사군자는 매란국죽에서 택일하되 필조건은 화제(畫題)는 4자이상 등이 주어졌으며 시상은 대회 직후 개최되었다.

대 상 : 김지윤 / 교동초(6) (속초시장상)

최우수상 : 이나예/거친송정초5, 이준석/교동초6 (속초예총회장상)

중,고등부 대 상 : 권정아/속여고(2) (속초시장상)

최우수상 : 이솔/속여중(3), 이규호/속초중(2) (설악문화제위원장상)

일 반 부 대 상 : 김은아(한글/속초평생교육정보관) - 속초시장상

최우수상 : 심현숙(한글/양양여성회관), 박현숙(사군자/속초여성교육문화센터)
- 설악문화제위원장상

▶ 2003 설악가요제

속초 연예협회 주관으로 2003 설악가요제 본선 행사가 10월 4일 제38회 설악문화제 특설무대에서 개최되었다. 지난달 9월 21일 개최한 15명의 예심자들로 구성된 본선 대회에 우리지역 최고의 실력자들이 노래솜씨를 건주는 흥겨운 한마당 잔치가 펼쳐졌다.

▶ 강원미술대전 순회전

제31회 강원미술대전 수상작품 지역순회전이 10월 16일 ~ 20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속초미술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금번 전시회는 2003 강원종합예술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지역 순회전은 춘천, 삼척, 강릉, 속초에서 이루어졌다.

▶ 제6회 속초 리코더 앙상블 공연

11월 11일 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음악협회 주최로 제6회 속초 리코더 앙상블 정기공연이 개최되었다. 앙상블 멤버는 소프라노 김은미, 장선영, 알토 이수미, 최수영, 김신혜, 테너 최미영, 고순득, 정준교, 베이스 최종길, 신민걸, 이병구 등으로 구성되었다. 공연 프로그램은 앙상블 연주의 피치카토 폴카와 최다예 외 60명이 참가한 어린이합주, 동요모음, 전체합주의 순으로 연주되었다. 영랑, 속초, 교동, 온정, 양양, 강현초등학교에서 찬조 출연하였다.

▶ 갈피 33집 발간 및 문학축제

강원 최고의 연륜을 자랑하는 문학지 갈피 33집 발간을 기념한 문학축제가 12월 13일 아남프라자 스카이 라운지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갈피지에는 시에 박명자, 김춘만, 이충희, 이화국, 장승진, 채재순, 지영희, 김영섭, 권정남, 김종현, 최월순, 박응남, 김향숙, 최숙자, 조인화 회원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소설에는 윤호렬, 강호삼, 김석득, 한춘녀, 수필 이은자, 이구재, 최재도, 서미숙의 작품으로 4*6배판 350쪽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문학강연 연사로는 소설가 김원일씨가 초대되어 주제강연을 하였다.

▶ 제12회 음악협회 속초지부 정기연주회

음악협회 속초지부 제12회 정기연주회가 12월 13일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색소폰(이승환) Sarabande Et Allegro-Grovlez, Deeper than love, 제1회 설악 음악콩쿠르 대상수상자인 권예나 학생의 플룻독주 Chawinade concerino OP.107 소프라노(김성주) 매맘의 강물-이수인 작사, 작시 오페라 『휘가로의 결혼』中 Voi che sapete - W.A Mozart, 첼로독주(구자령) Adagio and Allegro - R. Schumann 피아노 3중주 (va김은영, ce 구자령, p 김지은) Trio op49 1악장 Medelssohn, 피아노독주(안애숙) Noctume b-Moll op.9 Nr.1-Fr. Chopin, Piano Sonatas Op.27 No. 2,3악장 Presto-Beethoven, 바리톤(박태호) Ombra maifu(largo)와 설악엔젤스 합창단(지휘 : 강은희) O! Holy ninght! - A. Adam 등을 연주하였다.

▶ **엔젤스**

음악협회 속초지부 소속 2003 설악엔젤스 합창단 정기연주회가 12월 23일 오후 7시에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 **속초예술지 4호발간**

속초예술 제4호가 12월 31일 발간되었다. 전문예술지를 지향하며 속초예총 7개 협회의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글을 소개하였다. 또한 미술, 사진협회의 지상갤러리, 시화, 백일장 우수작 소개, 한해 동안 예총 사업 실적 등 다양한 원고를 수록하였다.

▶ **2003 송년자선 미술제**

태풍 매미 수해민 돕기 및 2003 송년자선 미술제가 12월 27 ~ 31일 2003 송년 6일간의 미술여행의 부재로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한국화, 양화, 조소, 공예, 디자인, 서예의 장르에 미협 회원작품 전시되었다. 전시된 작품중 판매된 작품액 일부는 불우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였다.

2003년 속초민예총 주요사업내용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속초지부
지부장 전 태 극

■ 2003 춘계 속초민족예술제

속초의 민족예술인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예술장르를 통해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참여의 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의 민족예술 발전을 도모하였다.

1) 2003 사진이야기

- 일 시 : 4월 24 ~ 27일
- 장 소 : 속초시문화회관 전시실
- 내 용 : 사진회원들이 년중 촬영한 속초이미지의 사진을 전시함.

2) 영화속의 전생이야기

- 일 시 : 2003년 4월 26일(1회 오후 3시, 2회 오후 7시)
- 장 소 : 속초시문화회관 소강당
- 상영작 : 썬레드라인(1회), 지옥의 묵시록(2회)
- 내 용 : 끝나지 않는 전쟁... 전쟁을 주제로 한 영화를 상영

3) 사랑을 찾아서

- 일 시 : 2003년 4월 27일, 오후 5시
- 장 소 : 속초시문화회관 소강당
- 내 용 : 민족예술제를 축하하기 위해 '극단 백두'의 연극 초청 공연

4) 환경시화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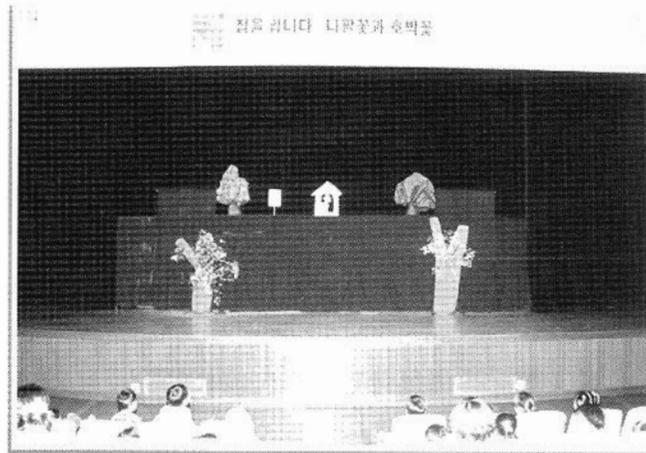
- 일 시 : 2003년 4월 28일 ~ 4월 30일
- 장 소 : 속초시문화회관 전시실
- 내 용 : 21세기에 가장 중요시하는 환경에 대한 시화를 전시함.



▲ 개막식

■ 어린이날기념 '인형극 초청 공연'

- 1) 기 간 : 5월 2일 ~ 3일(2일간) 오전 10시 30분
- 2) 장 소 : 속초문화회관 대강당 및 KBS홀
- 3) 내 용 : 어린이날 기념 극단 각시놀이(대표 양혜경)의 인형극을 초청 공연하였다. 이 공연은 인형극의 저변확대와 지역내 어린이들에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1부 '집을 팝니다'와 2부 '나팔꽃과 호박꽃'을 공연하였다.



▲ 어린이날 기념 '인형극 초청 공연'

■ 제6회 사진워크샵

- 1) 기 간 : 7월 12일 ~ 13일(2일간)
- 2) 장 소 : 영랑호리조트 및 속초문화회관 소강당
- 3) 내 용 : 속초, 양양지역의 주민과 학생 및 사진인을 대상으로 사진 대중화를 사업으로 '사물의 사진적 접근방법'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가졌고, 사진촬영의 실제에 대한 슬라이드 감상 및 출품된 작품의 평가회로 진행되었다.



▲ 제6회 사진워크샵

■ 한여름밤의 영화축제 '2003 하야몽'

- 1) 일 시 : 7월 29일 ~ 8월 20일
오후 9시부터(매주 화·목·금 10일간)
- 2) 장 소 : 청초호유원지 엑스포 상징탑앞 특설무대
- 3) 내 용

- 무더운 한여름밤 시원한 야외 무대에서 29일 몽정기를 시작으로 더위에 지친 지역민들과 휴가철을 맞아 속초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무료로 상영함.

- 시승격 40주년을 기념해 다채로운 행사가 같이 펼쳐져 한여름밤의 새로운 문화 한마당으로 자리매김을 함.

- 상영프로그램 : △ 몽정기 △ 링2 △ 선생김봉두 △ 에어리언 4 △ 택시 3 △ 별 △ 피아노치는 대통령 △ 위위술저스 △ 하얀방 △ 동승



■ 해외문화교류

- 재중국동포 제3회 인상사진무료 제작증정과 사진교류전 및 제1회 청소년문학백일장

- 1) 기 간 : 6월 15일 ~ 10월 4일
- 2) 내 용

· 인상사진증정사업 및 순회전 :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인상사진 무료제작증정사업은 속초민예총 사진위원회 소속 사진작가가 참여하여 200여명의 훈춘시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동시에 촬영기간 중 속초 지역 중진작가의 사진을 전시하여 속초, 나아가 한국 사진의 현주소를 보여주었음.



▲ 인상 사진 증정 사업

▲ 사진 교류전

· 청소년문학백일장

- 재중국 교포학생대상 청소년문학백일장(대상:고등학생)을 개최하여 언어와 문학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민족문학으로 계승발전시킴.
- 청소년에게 조국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시킴.
- 제1회 훈춘 청소년 문학백일장에서는 중국 훈춘 제2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최홍화 학생의 '바닷길-마음의 길' 과 1학년 김예금 학생의 '길' 이 우수작으로 선정.



- 훈춘촬영가협회 초청전
- 지역문화제인 제38회 설악문화제에 훈춘촬영가협회 회원 사진을 초청 전시하였음.



■ 제7회 통일문학제



▲ 제7회 통일문학제

- 1) 일 시 : 8월 15일 오후 6시 30분부터
- 2) 장 소 : 청초호유원지 엑스포상징탑앞 특설무대
- 3) 내 용
 - '통일, 다시 시작하자' 라는 주제하에 펼쳐진 제7회 통일문학제는 시낭송과 노래공연이 펼쳐져 주민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선사했다. 이날 광장에는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통일문학제를 열고 분단의 슬픔과 통일에의 열망의 표출하였다. 이번 행사는 속초의 풍물패 갯마당의 풍물 길놀이를 시작으로 1부·2부 공연과 떡등의 먹거리가 제공되었으며, 1부 공연에는 민노중가수 방정경의 노래공연을 비롯해 통일염원 고사와 개회식, 강원민예총 문학위원장 겸 춘천민예총지부장인 김홍주시인의 '어머니의 물고기' 등 5명의 시인들의 시낭송이 전개되었으며, 2부 공연은 '울고싶어라'의 가수 이남이의 5명으로 구성된 '철가방 프로젝트'의 흥겨운 노래 공연이 펼쳐졌다.

■ 2003 속초민족예술제 - 민예총예술제

속초민예총의 주계 민족예술제 행사로, 날로 발전해가는 지역문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예술인의 모습을 보여줌.

1) 2003 속초, 그리고 사진이야기

- 일 시 : 11월 15일 ~ 18일
- 장 소 : 속초시문화회관 전시실
- 내 용 : 속초의 역사와 문화, 지역민의 삶을 생생하게 담은 다큐사진을 전시함.

2) 열린 미술 교실 - 그림을 통해 다가서기

- 일 시 : 11월 16일 오전 11시 ~ 12시 30분
- 장 소 : 속초시문화회관 사랑방, 소강당
- 내 용 : 아동미술 교육의 올바른 이해로 자녀들의 미술교육에 한걸음 다가서며 아동 발달 단계에 맞는 미술의 이해와 부모님들의 협조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음.

3) 장애인을 위한 영화제

- 일 시 : 11월 17일 오후 1시부터 ~
- 장 소 : 강원장애인복지회 속초시지회 보호작업장
- 상영작 : 첫사랑사수궤기대회
- 내 용 : 장애인을 위한 영화제는 장애를 소재로 한 영화난 장애인이 만든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아닌,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의 문항유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장애인들을 직접 찾아가 무료 상영함.



▲ 2003 속초민족예술제

仰觀壯麗可作鑒於既往俯察
卑儉足垂訓於後昆此所謂至
人無為大聖不作彼竭其力我
享其功者也

歲癸未立冬 碧海朴昌緒



벽해 / 박창서

先帝創業未半而中道崩殂今天下三分益州羅救
此誠危急存亡之秋也然侍衛之臣不懈於內忠志之
士忘身於外者蓋追先帝之殊遇欲報之陛下也誠宜
開張聖聽以光先帝遺德恢弘志士之氣不宜妄自菲
薄引喻失義以塞忠諫之路也宮中府中俱為一體陟
罰臧否不宜異同若有作奸犯科全未立冬之節思浦崔貞子



사포 / 최정자



석정 / 구 명 윤

1. 2014년 11월 15일, 속초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속초시 문화예술회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2. 2014년 11월 15일, 속초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속초시 문화예술회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3. 2014년 11월 15일, 속초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속초시 문화예술회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4. 2014년 11월 15일, 속초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속초시 문화예술회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5. 2014년 11월 15일, 속초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속초시 문화예술회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6. 2014년 11월 15일, 속초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속초시 문화예술회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7. 2014년 11월 15일, 속초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속초시 문화예술회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8. 2014년 11월 15일, 속초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속초시 문화예술회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9. 2014년 11월 15일, 속초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속초시 문화예술회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10. 2014년 11월 15일, 속초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속초시 문화예술회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觀自在菩薩行深般若
波羅蜜多時照見五蘊皆空度一切苦厄舍
利子色不異空空不異色色即是空空即是色
受想行識亦復如是舍利子是諸法空相不生
不滅不垢不淨不增不減是故空中無色無受
想行識無眼耳鼻舌身意無色聲香味

春雨魚善子



춘우 / 어선자



根深之木風亦不抗
 有灼其華有蕢其實
 源遠之水旱亦不竭
 流斯為川于海必達

錄龍飛御天歌錦石柳真淑



은석 / 유진숙

桃源秋境樹風頭漲綠江亭忽感秋鷺飛
 喃頻掠水鳴蟬嘒却戲流咏詩騷客溢高
 興醉後狂歌忘暫憂日暮歸家閑不杖豪
 遊雅會友情收

癸未小暑書友會野遊石井詩恒山書

平湖鏡面澄滄波凝不流蘭舟縱所如
 泛迥隨輕鷗浩然發清興沂洄入深幽
 丹崖抱蒼石向晚欲面頭徇山泊松下
 玉洞藏瓊洲荷葉淨如洗空翠涼生秋

永郎湖安軸光善得癸未晚秋序恒山尹汝承



단산 / 윤여승

春遊易成悠旅意
勁含懷綠
夢扶影樹蒼苔
護地堤暮江
煙柳重曉岸
霧在啼
影吹
楊州路
風流悵竹西

湖亭朴鶴聲

2008



호정 / 박학성

속초문화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직 위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비 고
			근무처	자 택	
원 장	최용문 崔龍文	동명동 250-5 5/4	632-1231	633-3233	
부원장	이인철 李仁鐵	교동 동부㉔ 102-1306	633-2177	633-2177	속초지구합북도민회 고문
	노광복 盧光福	중앙동 468-142	632-8907	632-9014	장안슈퍼 대표
이 사	고재양 高在陽	교동 780-60 15/3	633-4931	633-4931	교사(전)
	김광수 金光洙	도문동 1628-12 1/2	635-3366	635-3377	속초자동차학원 원장
	김길정 金吉貞	조양동 721-2 13/2	635-1878	633-4756	강원도의회 의원
	김병학 金炳學	중앙동 503-44	632-6400	631-7425	속초요리학원 원장
	김상복 金相福	교동 동부㉔ 107-701	633-7733	633-8512	(주)금강케이블넷 대표
	김종규 金鍾圭	동명동 72 2/4	633-4477	633-4477	범죄 예방속초지역협의 회장
	김창구 金昌九	교동 럭키실악타운2차 101-1106	637-1112	632-8275	東草道川로타리 회장
	박상복 朴相福	교동 627-130- 20/2	632-3888	632-3888	속초의료보험대표이사(전)
	어재석 魚在奭	중앙동 468-67	633-2069	633-2069	속초시의회과장(전)
	오운근 吳允根	교동 656-5 13/2	632-5357	633-8817	청운독서실 대표
	윤숙자 尹淑子	교동 627-42 19/5	633-4014	633-4014	실악유치원 원장
	이병선 李秉宣	교동 동부㉔ 107-1906	638-7005	638-6386	강원도의회 의원
	이영호 李永鎬	청학동 483-20	632-9244	632-9244	유성여관 대표
	임호성 林鎬成	조양동 부영㉔ 310-1505	633-2178	633-2178	속초시의회 의장(전)
	전복식 全福植	교동 삼환㉔ 108-1004	636-8790	631-7130	대우파크(실악산) 회장
	정래섭 鄭來燮	조양동 부영㉔ 302-501	636-1945	633-3149	실악관광(주)문화재단이사
	최경순 崔敬順	중앙동 496-55 1/4	633-3668	632-6590	화신상회 대표
	최현식 崔顯植	조양동 부영㉔ 303-604	633-2632	633-2632	강원도 문화재 전문위원
	허춘권 許春權	교동 908-10 두산교육센터	635-5767	019-376-2002	두산교육센터 원장
	감 사	박정기 朴政基	실악동 246-36	636-8244	636-7025
정연태 鄭然泰		동명동 104-2 3/1	633-2764	633-2364	교육행정자문위원
사무국	한정규 韓鼎圭	교동 966-12	632-1231	635-5933	사무국장, 국립사료조사위원
	장은선 張銀善	교동 늘푸른㉔ 105-1201	632-1231	636-4344	간사
	최봉하 崔捧河	금호동 실악연립 다-201	635-8827	631-5298	향토사료전시관 기사

매주 기능 검정과 도로 주행 시험 실시 통학은 셔틀 버스로 모십니다

■ 응시구비서류(응시원서)

: 속초시 · 속초의료원
인심의원 · 보건소



■ 응시구비서류(응시원서)

: 양양군 · 고성군
각 보건소에 비치

매주 기능 검정과 도로 주행 시험 실시

시 험 장 소 / 속초자동차운전전문학원
문의와 연락처 / 속초경찰서 민원실 ☎633-3333
속초자동차운전전문학원



원장 김 광 수



강원도경찰청지정 속초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하도문리) 1628-14

☎ 635-3366 ☎ 635-3377 ☎ 635-3388 ☎ 635-3399

雪嶽山新興寺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본사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 033-636-7044



사찰에서 법당의 기둥과 공포, 천장, 벽 등 건물에 물고기 형상의 그림이나 조각상을 발견할 수 있다. 물고기가 단독으로 장식되기도 하고, 양산 통도사 용화전의 천장이나 또한 우리 고장의 설악산 신흥사 중심 법당 '극락보전(極樂寶殿)'에도 위의 사진을 살펴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게, 자라, 조개, 개구리 등의 수생 동물과 함께 등장하기도 한다. - 신흥사 중심 법당 오른쪽 측면 문살을 보면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바로 원천적 자유와 수행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물고기의 즐거움을 말하며 '어락(魚樂)'이라는 말 속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는 여기에서 상징의 세계와 만난다.

글·사진 / 박영도 본지 편집인